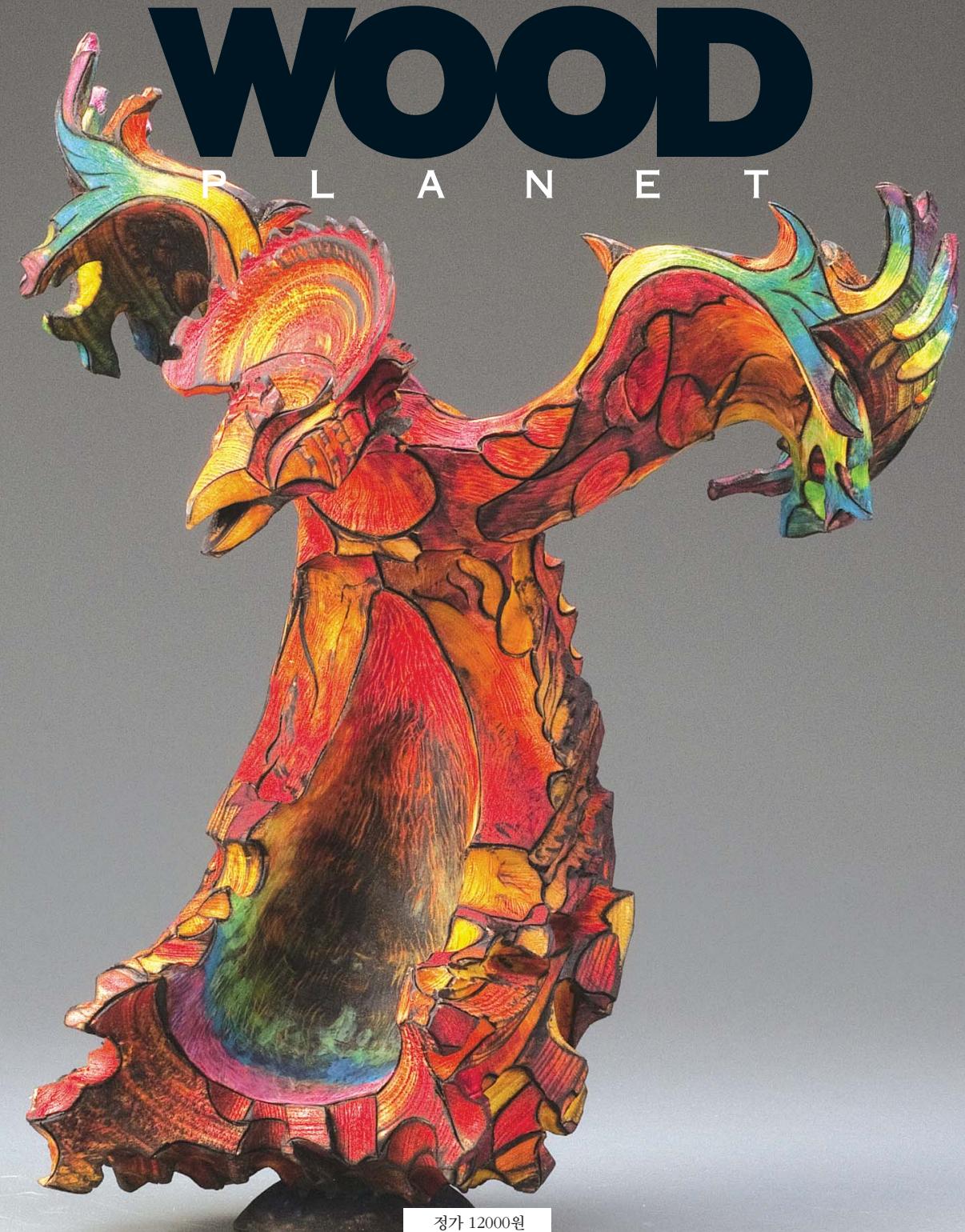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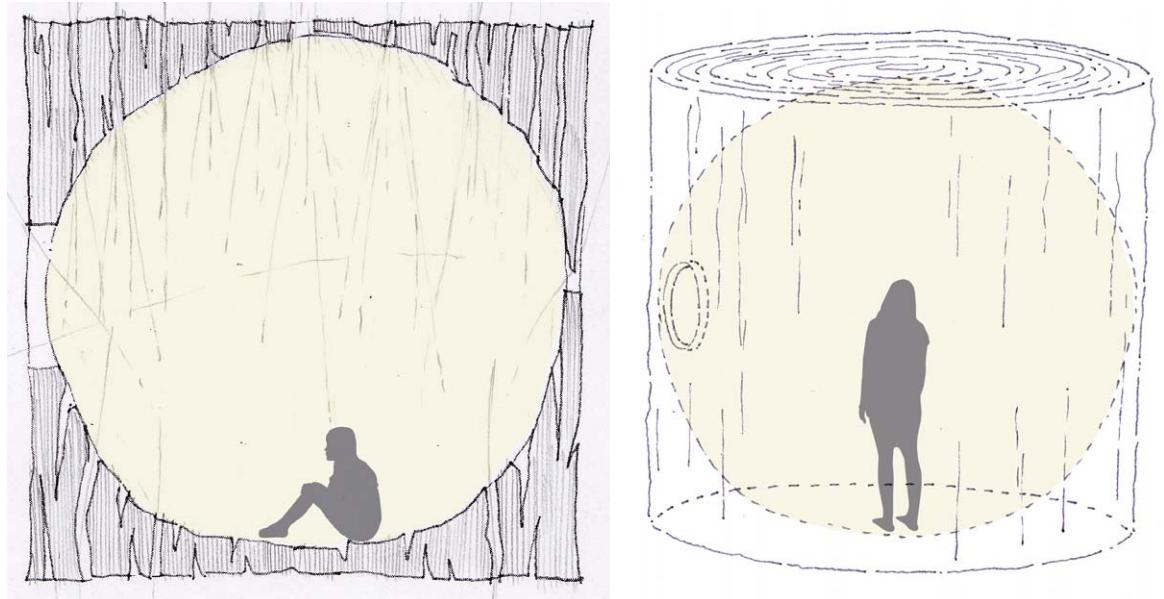


www.woodplanet.co.kr

Be wood, Be life 삶의 가치를 담는 매거진 - 우드플래닛 11 2014



통나무집



우리에게는 참 신기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지구상의 어디엔가, 예를 들어 미국의 요세미티 같은 곳에서는 집채보다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거대한 나무줄기의 일부를 자르고 속을 파내어 만들어내는 공간을 상상해 보았다. 흰개미 같은 곤충들이 집을 만드는 방식이라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 나무를 잘게 잘라내어 판이나 봉의 형태로 가공해서 부품을 만든 뒤 그 부품들을 짜 맞추는 방식을 생각한다. 나무의 속을 파내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나무의 가공법에 대한 도전이자 나무라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재해석이다.

나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된다. 나무는 생체조직이기 때문에 나이테리든지 옹이 같은 생체의 패턴에 따라서 뒤틀리고 휘어지고 부식된다. 그렇게 생긴 온갖 틈과 구멍을 타고 바깥의 빛과 바람, 이슬, 빗방울이 스며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나무 속 공간은 그 나무만의 질감과 향기, 그리고 삶의 내력으로 채워진 공간, 즉 나무의 혼이 깃든 공간이 된다. 진정한 '통나무집'이라 부를 만하다.

'통나무집'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의 체험은, '나무로 만든 집 속에서의 생활'이라기보다는 '나무와 함께하는 명상'에 가까울 것이다. 나무의 본질과 마주하며 원시의 동물로 돌아가는 체험이다.



REAL WOOD

나무가게 우드코디가 응원합니다

튼튼한 건축외장에 쓸 목재를 찾는 분!
우리 집안에 편안한 원목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분!
우리 가족 모이는 식탁을 아름다운 원목으로 만들고 싶은 분!
나만의 상상을 펼쳐 볼 작은 나무 토막을 구하는 분!
우드코디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유림목재는 목재건축외장재, 원목데크와 원목시설물, 원목인테리어, 원목도어와 원목창호, 원목계단과 원목핸드레일, 원목풀로어 등에 필요한 목재를 직접 수입·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목가구제를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창고 옆나무가게와 동가리나무 원목샘플들을 취급하는 옥탑방나무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woodstore NAVER에서 우드코디 를 만나세요

건축가 천경환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건축디자인연구소 '깊은풍경' 운영. 2004년 프랑스 대사관 주관 김중업 장학제 제1기 수혜자로 선발, 2005년 건축학회 주관 '무애건축상'을 수상하였다. 일상디자인 관찰 및 탐구를 내용으로 하는 블로그 (jaeminahyo.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행본 〈나는 바닥에 탐닉한다〉, 〈어느 게으른 건축가의 디자인 탐험기〉를 발표했다.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WOOD



FRAME

10	WOOD MIND
12	나무를 읽다
20	가구 그룹
26	양상블
30	잊지 말기
31	주변정리
32	해외 가구
34	부라진 나무
36	캐릭터 가구
37	서울국제건축영화제
38	BOOK
40	신명덕 전시
44	우드 프레임 거울
46	제주 게스트하우스
48	전시 리뷰
49	자라섬 동연재
50	나무 그림

FURNITURE

52	나무가 품은 시간	여덟 가지 무늬결 가구
60	가구 토크	Fx 프로젝트 그룹
68	가구 스토어	스퀘어풀
74	듀오 가구 디자이너	정직한 가족, 올곧은 가구
80	듀오 가구 디자이너	함께 있어 즐거운 코지뮤지엄
86	MOVIE	다큐멘터리 〈의자가 되는 법〉



서울리빙 디자인페어

SEOUL LIVING DESIGN FAIR

2015. 4.1~4.5 Coex

취미생활(趣味生活)

건강하고 유쾌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브랜드를 모집합니다.

참가 브랜드 모집 중!

신청 기간 2014년 12월 18일(목)까지 신청 [온라인 참가신청](http://www.livingdesignfair.co.kr) www.livingdesignfair.co.kr

전시 섹션	참가 대상	참가 형태	면적(WxDxH)	신청 단위	참가비(VAT 별도)	제공 사항
리빙 아트 LIVING ART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브랜드 &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아트 & 크래프트, VIP 서비스 브랜드 등	브랜드+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3m x 3m x 3m	6부스	기본 벽체, 조명, 바닥(파이텍스), 상호 간판 *디자이너 지원비(시공비)와 대행비 별도	
					3,000,000원 / 1부스	
		일반 대관	3m x 3m x 3m	2부스 이상		기본 벽체, 조명, 바닥(파이텍스), 상호 간판
리빙 브랜드 LIVING BRAND	토털 인테리어 가구, 주방 & 욕실용품, 흠 가전, 텍스타일, 미감재, 생활 소품, 아웃도어 등	조립 부스	3m x 3m x 2.4m	2부스 이상	2,800,000원 / 1부스	기본 벽체, 조명, 바닥(파이텍스), 상호 간판
		독립 부스	3m x 3m	4부스 이상	2,400,000원 / 1부스	전시 면적만 제공(브랜드 자체 시공)

주최 ● **design house - coex** 주관 **행복의 가득한집 · LUXURY**

서울리빙디자인페어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동호로 310 태광빌딩(주)디자인하우스

T 02-2262-7191~9 F 02-2275-7884 E SLD@design.co.kr H www.livingdesignfair.co.kr Facebook www.fb.com/seoullivingdesignfair



SPACE

<u>88</u>	나무집
<u>104</u>	공공건축
<u>125</u>	주제가 있는 공간
<u>142</u>	해외 주거공간
<u>148</u>	종교건축
<u>154</u>	BOOK

평창동 내촌목공소 한옥
안양예술공원
목구조 천장이 근사한 식음료 공간
유니버설 스페이스
카르사마키 성글 교회
런던 공간디자인 스터디

ART & PEOPLE

<u>156</u>	나무 예술가
<u>164</u>	나무 갤러리
<u>176</u>	해외 아티스트
<u>182</u>	나의 작업실
<u>188</u>	우리 시대의 목수
<u>194</u>	BOOK

조각가 김기로
조각가 나점수의 식물적 사유
데렉 와이드먼
우사단의 새로운 기호 &
마스터빌더 최현기
고은쌤의 우드버닝

CRAFT

<u>196</u>	파워블로거
<u>204</u>	나무가게
<u>210</u>	브랜드 스토리
<u>216</u>	목공방
<u>222</u>	취목인 갤러리
<u>224</u>	WOODPLANET STORY

미쓰봉의 따뜻한 나무
시간을 파는 상점
John Neeman Tools
나무와 뉴질랜드
조각보 박스 · 마리오네트

나무의 가치를 보다



2014 목재산업박람회

12.4(목)-12.7(일), coex Hall C

목재산업의 모든 것,
제4회 목재산업박람회!

- 목재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
- 생활 속 목재문화 실현을 위한 리빙우드 페스티벌
- 목재산업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채용프로그램



목재산업박람회와 함께 할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문의 | T. 02-6000-7852 E. wood@woodfair.or.kr H. www.woodfair.or.kr



Media Department 미디어팀

Media in Chief | Yoo JaeHyung 유재형 팀장 woodeditor@woodplanet.co.kr

Editor | Bak SinHye 박신혜 woodeditor1@woodplanet.co.kr

Editor | Seo JooWon 서주원 woodeditor2@woodplanet.co.kr

Editor | Jeong InHo 정인호 woodeditor3@woodplanet.co.kr

Art Department 미술팀

Art Director | company sanji forestbookk@naver.com

Photography 사진팀

Freelance Photographer | Jeanluc Lee 장뤽 리

Freelance Photographer | Nam JungWoo 남정우

Advertising / Marketing Team 마케팅본부

Executive Director | So BeomJoon 소범준 이사

Finance Manager | Hwang Jihye 황지혜 대리 jhhwang@woodplanet.co.kr

Marketing Manager | KIM YongWon 김용원 사원 woodmarketer@woodplanet.co.kr

CEO-Publisher | Youk SangSoo 육상수 ssyouk@woodplanet.co.kr

2014년 11월 1일 발행 No.33 / 2011년 10월 17일 등록, 등록번호 마포라 00344

발행공급처 (121-9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이안 2차 1302호 (주)라이프풀

대표전화 02-722-4311 팩스 02-722-4315

홈페이지 www.woodplanet.co.kr

e-mail woodplanet@naver.com

- 본지에 실린 외부 글은 필진의 의견을 따릅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오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 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자료는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테이블데코페어
home · table deco
fair 2014



특별한 당신을 위한 12월의 초대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사랑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풍성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전시회장 규모를 30% 확대하여 진행하고 보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참여 브랜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홈·테이블데코페어는 지난 10여 년간 리빙산업의 발전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선도해온 프리미엄 홈스타일링 전시회입니다. 서울·부산·대구 세 곳의 도시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염선한 브랜드의 가치 있는 제품들과 감각적인 공간 스타일링을 선보입니다. 홈인테리어 분야의 트렌드와 다양한 리빙 제품들을 한 곳에서 보기 원한다면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를 놓치지 마세요! 1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하게 당신의 삶에 아름다움과 품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Seoul home · table deco fair 2014. 12. 11(목) – 14(일) coex

전시구성

홈인테리어/데코 플라워/애니버서리	럭셔리가구/가전 아트리빙/갤러리	주방/테이블웨어 힐링/크리스마스시즌	테이블세팅/센터피스 해외디자인기획전
-----------------------	----------------------	------------------------	------------------------

동시행사

인테리어트렌드 및 공간제안 플라워 기획관	메가트렌드 컬러라이프 세미나 라이프스타일 기획관	테이블세팅전 12 Designers with CASA LIVING
---------------------------	-------------------------------	---

주최

K.FAIRS LTD. CASA

문의

home-table deco fair 사무국
TEL 02-555-7153 FAX 02-556-9474 www.hometabledeco.com





후강된 강의 덕분에 할 일이 없어진 오후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 지난날 우사단로 기사를 읽은 게 생각이 나서 이태원에 놀러갔습니다. 우드플래닛에 소개된 소품 가게나 카페 찾아다니며 일찬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장소 많이 소개해주세요.

(김정민, 25, 건축학과 학생)



한 번은 회사식구들과 함께 우드플래닛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저 같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데 <나무가 남자를 말하는 시간>에 실린 제품들을 보고서 다들 텁내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보타이와 부토니에는 특히 더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자를 위한 멋진 나무 제품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최진혁, 29세, 회사원)



제가 사는 부암동에 그릇장 전시가 있다는 소식에 주말을 손꼽아 기다려 무게원에 다녀왔어요. 가구 구경이나 하려고 찾아갔는데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모두 계시더라고요. 가구나 전시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유인아, 47, 주부)



평소 북촌 한옥마을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10월호에 소개된 물나무사 진관을 보고 물나무다방에 방문했습니다. 책에 실린 것처럼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진관도 좋았고 다방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이 좋았습니다.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현정, 32세, 자영업)



집이 양평에서 가까워 카페 테라로사에 자주 가긴 했지만 갤러리 빌트의 종개는 까맣게 몰랐었는데. 우드플래닛을 통해 빌트에서 진행 중인 6인의 취향이 있는 서재 전시를 보게 됐어요. 평소 북유럽 가구에 관심이 많던 어머님께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팬스레 뿌듯합니다. (한선정, 28, 취업준비생)



평소 나무로 된 소품이 많아 우드플래닛을 통해 틈틈이 확인해요. 지난 10월 호의 나무가게 ghgm 기사를 보곤 그곳에 가서 다양한 고퀄리티의 나무 물건들을 드웨했어요. ghgm의 가구 매장도 있다고 하니 거기도 가보고 싶네요. (고하늘, 29, 회사원)

※ 지난호를 읽고 느낀 점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나무제품을 선물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낼곳 woodplanet@naver.com



최고의 나무집을 짓습니다

대화의 집 〈단삼고재〉 | 연면적 33평 | 2013년 완공 | (주)라이프폼 컨설팅 사례 | 설계 바자율

나무전문가그룹 **WHO** 우드하우징

■문의 070.7525.7872



미얀마 티크를 볼 수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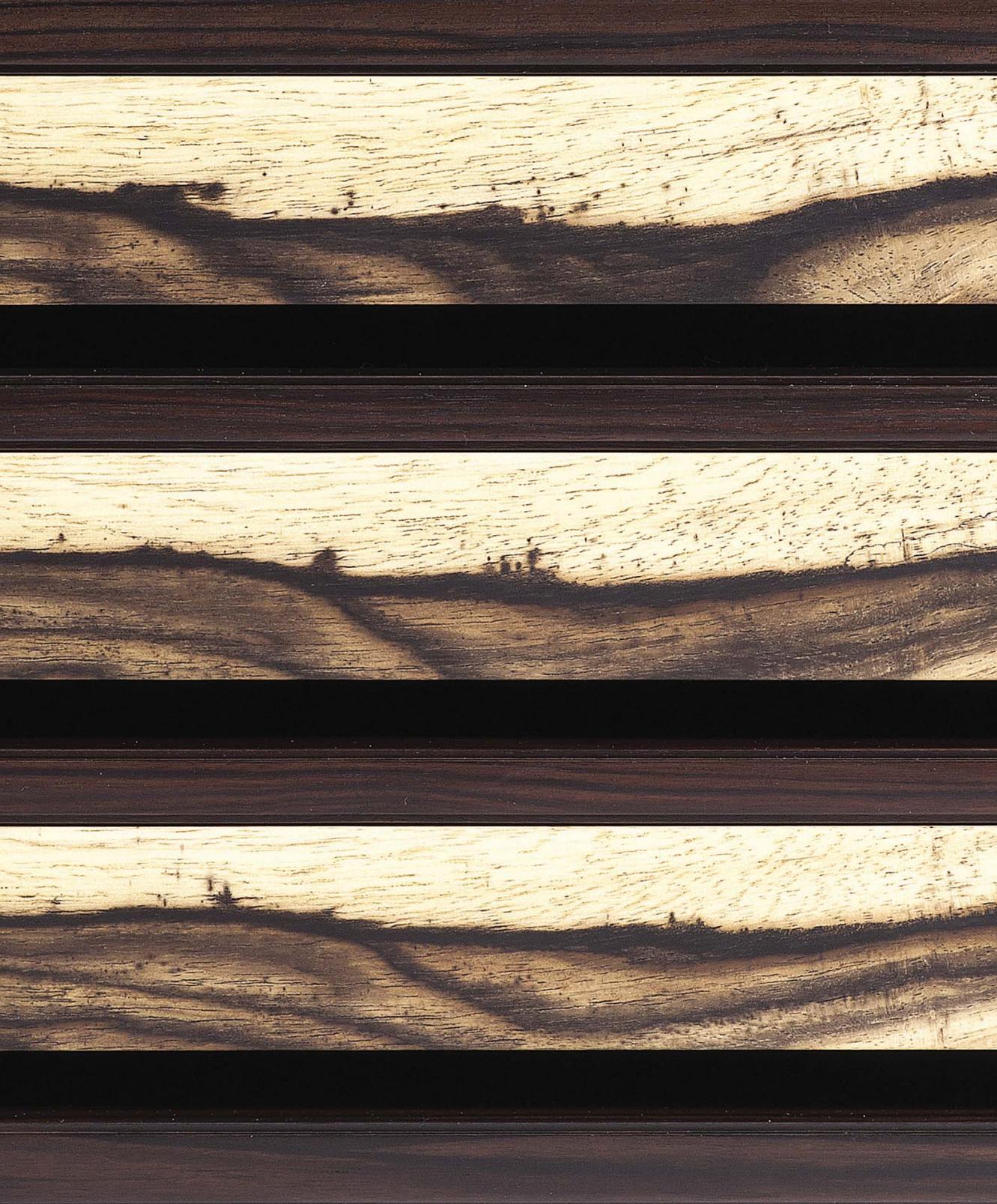


일몰을 기다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베인 목교 위를 걷는다. 목재가 주는 감성 위에 서아시아의 태양이 앞 사람의 어깨 너머로 가라앉는다. 물결도 서쪽으로 쓸려간다. 세계 최장 티크(Teak)목 다리인 우베인 다리는 미하간다용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이 강 건너 마을로 탁발을 다녀올 수 있도록 1,2Km에 이르는 목교가 완성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1851년 만달레이 아마라푸라 지역의 영주인 우베인(U Bein)이 옛 궁궐 건설에 사용되었던 티크목 부재를 가져와 재사용한 다리다. 흔히 티크를 두고 참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분을 함유하고 있어 잘 썩지 않고, 수축과 변형이 거의 없어 수분이나 염분에 강하기 때문이다. 수상가옥이나 요트제작, 고급 가구목소재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백 년 궁궐의 목골을 이루었던 우베인의 티크는 다시 다리로 꾸며져 16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셈이다. 구조 일부가 수면 아래에 잠긴 채 흔들림 없이, 마을 사람들은 이를 ‘불심’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주인 없는 이 다리가 보존되어온 연유를 어디서 찾겠는가. 굳이 언급하자면 티크가 가진 뛰어난 내구성이다. 하지만 외부자극에 제아무리 강한 티크일지라도 인공적인 구조물로 쓰일 때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아무튼 높이 3m, 폭2m, 길이 1209m에 이르는 이 목교는 우리가 찾아올 때면 몇 번씩 물 밑으로 잠기는 풍파를 거치면서도 견고함을 유지하며 따웅타만 호수의 풍경 일부가 되어왔다.

미얀마 신정부는 올 4월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목재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자연 숲을 보존하고자 티크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티크의 95%의 불법거래라고 한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군부의 자금창구 노릇을 해온 티크 유출은 철퇴를 맞은 모양새다. 이후 미얀마산 티크는 그야말로 귀한 몸 대접을 맞고 있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 세계 티크 애호가들의 아쉬움이야 충분히 이해가 있지만 숲을 보존하는 이유를 기후변화에 직면한 미얀마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연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눈매가 굵고 녹색이 감도는 미얀마산 티크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한 때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했다.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미얀마 티크는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약 30만ha가 자라고 있다. 문제는 남아있는 산림보호구역의 20배가 넘는 670만 ha(6만7000㎢)에서 급속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얀마 국토면적 6800만 ha 중 109%에 해당하는 넓이로 제주도의 3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벌채된다면 사막화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고 자연림 티크는 우리 목재시장에서 영원히 자취를 갖출 수도 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사가잉의 핀레부 마을의 벌목 캠프에서 티크 목재를 끌고 가고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 목재는 덴마크, 스웨덴 등지로 옮겨져 지금의 북유럽 가구 명성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북유럽가구의 위용은 곧 티크의 힘이기도 하다. 미얀마 티크에게 응원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유재형 미디어팀장



흑단(Ebony)

대륙과 군도에 뿌리내린 검은 나무

글 서주원 기자 | 자문 청오 김용희

흑단은 감나무속(*Diospyros*)의 수종 중 흑색 심재를 지니는 나무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흑단은 아프리카흑단(African Ebony)과 동인도흑단(East Indian Ebony)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감나무과(Ebenaceae)에 속하는 수종들이다. 흑단은 색이 짙은 것은 물론, 광택감과 강도도 뛰어난 독특한 물성을 가진 나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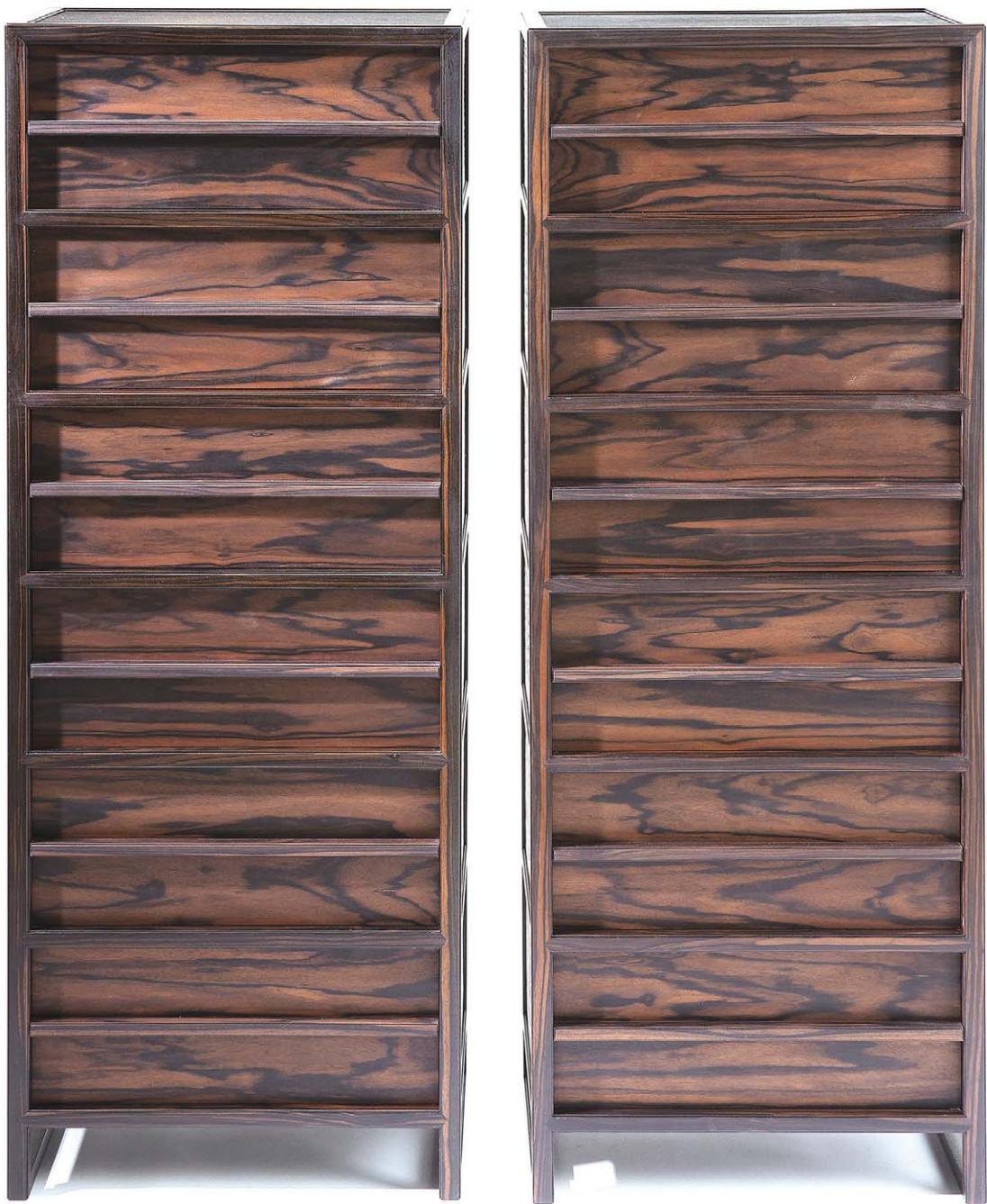


흑단 원반침 | 김용희

검은 대륙, 검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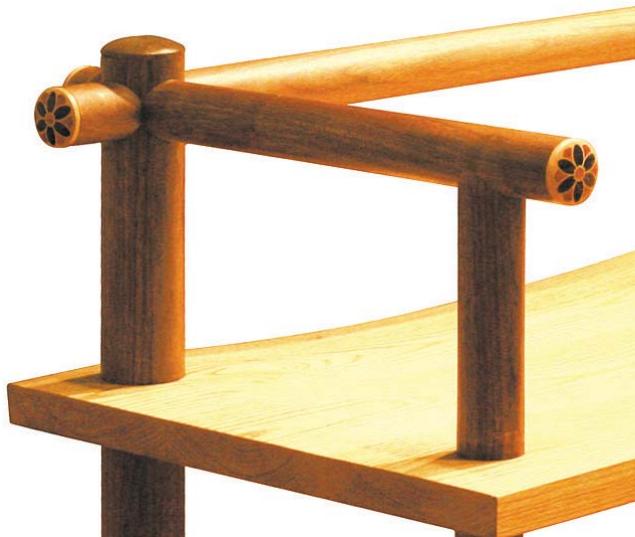
아프리카의 조각품 중에는 유독 검은색을 띠는 것들이 있다. 칠흑색의 나무에 정교한 조각을 새겨 넣고, 그 위에 강렬한 색을 덧입혀 완성한 조각들 말이다. 눈, 코, 입이 선명해 언뜻 보면 사람을 조각한 것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은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정령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조각에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아프리카흑단이다. 흑단은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 및 아프리카 일대에서 자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흑단이 최고급 수종에 속한다. 아프리카흑단은 남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크리비 등지에서 자란다. 원산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달라진다. 나이지리아흑단(Nigerian ebony), 마다가스카르흑단(Madagascar ebony), 카메룬흑단(Cameroon ebony), 그리고 크리비흑단(Kribi ebon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프리카흑단은 흑단 중에서도 가장 칠흑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수종이다. 아프리카흑단



청운(靑雲)-2 | 김원규

의 심재 부분이 칠흑색이며, 변재 부분은 백흑단(White Ebony)으로 불린다. 크기는 15~18m 정도이고, 지름이 대략 0.6m까지 자란다. 크기가 크지 않은 편이라 길이가 비교적 짧은 원목이나 나무토막으로 수출되어 가공된다. 아프리카흑단은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강도 역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증기를 쐬었을 때 훨씬 가공성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목공기계로 다를 때는 공구 날물이 심하게 마모되고, 쉽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프리카흑단은 조각이나 목판 등의 수공예 작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구의 소품 부분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문의 손잡이, 당규 큐의 끝 부분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의 검은 지판에 활용된 예도 흔히 볼 수 있다.



하늘바람 벤치 | 정은미

본순기후를 견뎌낸 애보니

동인도흑단은 인도 남부 지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섬인 셀레베스,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동쪽 뱅골 만 동부에 있는 안다만 제도에서 서식하는 수종이다. 동인도흑단은 다시 실론 흑단(Ceylon Ebony), 인도 흑단(Indian Ebony), 그리고 마카시흑단(Macassar Ebony)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실론 흑단은 텐두(Tendu)나 에반스(Ebans)로 불리기도 한다. 동인도흑단 역시 감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으로 타원형의 두꺼운 잎은 감나무잎의 모양새와 유사하다. 동인도흑단의 심재는 진한 흑색이며 변재는 검은 줄이 있는 회색이다. 아프리카흑단과 마찬가지로 잘 다듬을수록 금속성의 광택감이 살아나는 수종이기도 하다. 통직목리와 더불어 불규칙한 곡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권모목리가 있다. 건조했을 때의 무게는 실론 흑단이 가장 무겁다. 그 무게는 1070kg에 이르는데 이는 인도흑단이 880kg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측面에 속한다.

동인도흑단을 건조할 때는 느린 속도로 건조해야 하며, 천연건조는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도가 높지만 쉽게 파괴되는 성질 역시도 아프리카흑단과 비슷하다. 목공기계로 가공이



흑단 접시 | 김용희



흑단 젓가락, 빙침 | 김용희



복주머니, 캔디볼 | 정은미



CUATRO 흑단 | 곽민경



Ice bucket and tongs | 이대원



흑단 찻잔받침 5인 set | 김용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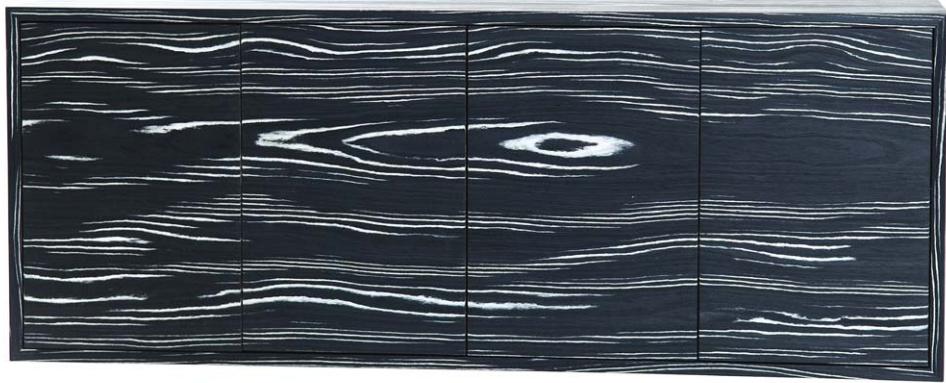


채집된 곤충 8715 | 최병훈

어려운 점, 공구의 날물이 쉽게 마모되는 점도 똑같다. 날물이 마모되면 목재의 단면이 일정하지 않게 절삭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공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동인도흑단은 고대인도 왕조 시대부터 조각이나 목판, 가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의 지판부분으로 쓰이거나, 기타의 브릿지와 브릿지핀을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목다구 장인이 말하는 흑단의 우수성

“흑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목다구 작가로 이름나 있는 청오 김용희 선생의 말이다. 김용희 선생은 사람들이 목다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부터 목다구 작업을 해왔다. 그는 주로 고재를 활용해 작품을 만든다. 공들여 만든 작품이 세월이 지나 트거나 뒤틀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흑단은 참으로 고마운 재료가 아닐 수 없다. “흑단은 현존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Simplicity Dark | Mario Sabljak



청운(靑雲)-1 | 김완규



서류함 | 이광웅, 권우범 제작, 박재우 디자인



브라스책상 | 크래프트 브로 컴퍼니

차시(차를 젓는 숟가락) 같은 작은 목다구를 만들기에 매우 용이한 재료입니다.” 부피가 얇고 작은 소품이라도 흑단으로 만든다면 변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흑단의 강도 덕분에 매우 견고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다 그 형태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다. 김용희 선생이 흑단으로 만든 작품은 차시 외에도 접시, 젓가락, 완발침 등이 있다. 하지만 흑단은 대중적인 재료가 아닌 만큼 작업 시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김용희 선생은 말한다. 김용희 선생에 따르면 우리가 흑단을 사용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옛 선조들은 흑단을 고급 재료로 여겼으며, 외국에서 흑단을 수입해서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흑단은 과거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재료지만,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크지 않은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용희 선생은 주로 동남아시아 산 흑단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흑단의 강도 때문에 조각칼 대신 핸드 그라인더로 작업한다. 또한 그는 흑단은 잘 다듬으면 광택이 더욱 살아나는 재료이기에 마감칠을 덧입히기보다는 해바라기사포를 이용해 잘 다듬으면 나무의 물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

공동의 삶, 공동의 목표 ‘가구’

한국가구학교에서 배출된 작가들로 구성된 바오커뮤니티는 소비자와 소통을 모색하는 가구그룹이다. 이들의 색다른 가구 해석을 들여다 보았다.

에디팅 정인호



가구는 ‘휴식’ 이다 - 김덕모 | 목공경력 6개월

목공을 배우며 만든 가구는 사랑하는 이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좌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테이블이 되기도 했다. 가구는 그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늘 사용하고 싶은 가구가 오래오래 대를 이어 기분 좋은 휴식이 되길 바란다.

- 테이블-행복한 시간 | W1500 x D730 x H750 | 레드오크, 월넛



가구는 ‘만남’ 이다 - 김정근 | 목공경력 8개월

나무의 따뜻함을 통해 느끼는 부드러운 촉감은 그 어떤 만남보다 귀중하다. 짧은 날 소개팅을 하던 것처럼 즐거움과 떨림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3피스의 테이블과 스톤 역시 시간과 공간, 사고의 만남을 의미한다. 접힘과 펼침의 방법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고 이상과 현실이 만난다.

- 펼침과 접힘의 미학 | W1070 x D610 x H780 | 자작나무 합판, 애쉬



가구는 '생활' 이다 - 김정훈 | 목공경력 3년

원목가구는 부(富)를 표현하기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가구는 일상 속 쓰임새에 의미가 있다. 김정훈 씨는 가구의 실용성과 건고함에 집중해서 작업을 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생활가구를 만드는 것이 사람과 나무를 아끼는 것이라 여긴다.
- 캣타워 구름이 | W700 x D450 x H1820 | 자자나무 합판, 레드파인 각재



가구는 ‘의리’ 다 - 우선택 | 목공경력 1년

수십 년 자란 나무가 가구를 위해 제 몸을 내어 주었다면 그 가구는 적어도 나무의 나이만큼은 사용되어야 한다. 가구를 만드는 사람은 수십 년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튼튼하게 가구를 제작하는 것 만이 고마운 나무에 대한 의리다.

- 오후만 있던 일요일 | W1700 x D700 x H730 | 레드오크, 월넛 | - 풍류(風流) | W1000 x D330 x H320 | 애쉬



가구는 ‘보물상자’ 다 - 이주연 | 목공경력 3년

가구의 기능 중 수납이 있다. 어딘가에 넣어두었던 것들은 언제가 기억에서 희미해진다. 어느 날 낡은 서랍 속을 열었을 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애타게 찾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설렘을 가구가 선사해준다. 친밀한 재료로 만든 가구가 건네는 의외의 선물이다.

- 콘솔 | w1100 x D330 x H900 | 화이트오크



가구는 '일상' 이다 - 조 훈 | 목공경력 2년

나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지만, 나무를 가공해 일상의 도구로 재탄생 시키는 것은 그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일상 생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구, 견고하면서도 쓰임새를 정확히 파악한 가구만이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 책장 | W1200 x D380 x H1100 | 오크, 월넛

함께 있으니 좋지 아니한가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건 주인의 취향을 닮은 소품 하나. 디자이너 감성으로 완성된 테이블 위에 남다른 소품이 놓이니 그야말로 좋지 아니한가.



식탁의 멋

밀로드의 테이블은 발톱이 달린 2개의 다리가 상판의 중심부를 지탱하고 있다. 무게감 있는 상판과 기계적인 투박함이 느껴지는 다리가 서로 어우러져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아메리칸 블랙 월넛 테이블이다.

밀로드 | M1_T02 table | 아메리칸 블랙 월넛 | 380~490만원



덴비 임페리얼 블루 2인 실속 홈세트 11P
scandihome.co.kr | 34만8천원



박선영 도기 | sonobepark.com | 가격 문의



나무숟가락 | frond.jo@gmail.com | 가격 문의



하늘은 높고 읽을 책은 많고

독서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두고 싶다면 라떼 슬림 데스크가 제격이다. 오리엔탈리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라떼 슬림 데스크는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가구다.
찰스퍼니처 | LATTE SLIM DESK | 구루미 원목, 월넛 무늬목 | 44만원



Oxford Pattern Buttero Diary
latootoo.com | 6만4천8백원



MADAM STOLTZ Rerto Lamp(L596BRASS)
maisondesylve.com | 38만원

앤틱 통가죽 북엔드 | antiquehill.com | 16만7천원



선 하나로 완성한 좌탁

가구의 기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공간과의 조화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균형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 기능적인 상판과 아치형 다리의 서로 다른 폭이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비례를 보여준다.

고범준 작 | One Line Table | 월넛 | 가격 문의



윤상혁 도기 | lstore.co.kr | 가격 문의



북극의 눈물 | designstudio365.com | 3만2천원 엘로블루 주병세트 | 29cm.co.kr | 6만원



몬드리안을 닮은 가구

견본으로 제작된 콘솔은 선과 면의 변형이 가져오는 절제된 조형미를 품고 있다. 순수미술과 가구 디자인의 경계에 서있는 이 가구는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큰 기쁨을 선사한다.
크래프티드 매터 | Low Console Board | 블랙 월넛 | 가격 문의



제니스 진공관 AM 라디오
antiquehill.com | 26만3천원



알덴 원목 블루투스 도킹 오디오
1300k.com | 61만9천원



네버랜드 오르골
iamhandmade.co.kr | 30만원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테크놀로지가 만연한 세상이다. 기술은 더 편리한 기술로 대체된다. 여기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도 자꾸 들이밀고 싶어진다. 과거를 살아 온 우리의 자국들을.



어른들은 전축이라고 불렀다. 얇고 둉그런 LP판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크고 묵직한 기계 말이다. 여기 소개하는 턴테이블은 기억속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깨마득한 옛날부터 존재했었을 것 같다. 나팔 우드 턴테이블에 어울리는 음악을 꽂자면 여성 흑인 가수가 부르는 깨느른한 선율의 재즈정도가 아닐까. 나무의 물성 때문에 더욱 빈티지스런 멋이 살아 있는 턴테이블이다.

- 2454 턴테이블, 나팔 턴테이블 set | sketchzone.co.kr | 49만3천원, 66만3천원



단어에, 그리고 문장에 힘을 실어주고 영혼을 부여하는 것. 캘리그라피의 매력이다. 유명인사의 명언이라도 획일화된 폰트와 직접 쓴 손 글씨의 느낌은 꽤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잉크펜으로 글씨를 눌러 적으며 역동적인 문제에는 절도 있는 획을, 따뜻한 사랑이야기에는 부드러운 마무리를 지어보자.

- 루비나노 글리스잉크웰 | sinhancorp.co.kr | 12만원



1894년 9월,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드레퓌스 사건을 촉발시킨 기밀문서였다. 비밀은 감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되어야 의미가 있다. 실 스탬프는 그런 비밀스러운 편지에 어울린다. 실링왁스를 녹여 붙이는 손맛도 있다.

- 체리우드 클래식 실, 비드왁스 | kailart.co.kr | 2만3천~5천원, 1만 천원

결벽한 생활



불면 날이갈 듯, 만지면 부서질 듯. 여자 친구가 아니라 새로 산 노트북에 관한 얘기다. 완벽한 디스플레이에 흠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먼지는 쌓여가니 표면은 닦아야겠는데 역시 스크래치가 걱정이다. 천연 모로 만든 청소용 브러쉬로 먼지를 닦아낸다면 불안함이 가실테다. 늘 새것처럼 깨끗하게 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

- 레데커 PC용 브러쉬 비치우드 | 써모우드 caffemuseo.co.kr
4만6천원~5만2천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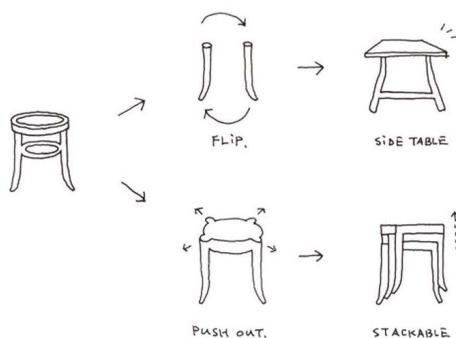
깔끔한 게 좋다. 책상위도 깔끔해야 한다. 핸디형 청소기를 들이미는 것도 애매하고, 휴지로 대충 끌어버리자니 그것도 어딘가 찢찝하다. 테이블 빗지루와 스테인리스 쓰레받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저분한 것들을 바로 치울 수 있다. 돈모는 탄력이 강해서 빗자루 털로 쓰기에 제격이다. 손잡이에 사용된 나무와 브러쉬 용털은 전부 천연이다.

- 레데커 테이블 스위핑 세트 비치우드 | 써모우드 caffemuseo.co.kr | 5만9천원~6만3천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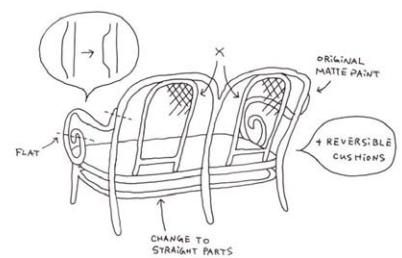
해외 가구

참 넨도스러운 가구





사토 오오기 대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디자인 회사 넨도(Nendo)는 진행하는 프로젝트마다 고유의 디자인을 탄생시켜 왔다. 넨도 디자인을 설명하려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척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넨도 디자인이 이번에는 휘어진 목재를 이용하여 벤트우드 가구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아키모쿠(Akimoku)의 원자의자에 더해졌다. 회사의 10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키모쿠의 의자에 알록달록한 색을 입힌 것이다. 넨도는 의자 등받이의 상단 720mm에 다양한 색상을 칠했는데 이는 딱 테이블 상판의 높이로 의자가 테이블과 합쳐지는 순간 기대치 못했던 시각적 만족을 준다. 부드럽게 휘어진 아키모쿠의 가구를 감싸 안은 넨도의 감성이 보는 이를 설레게 한다. nendo.jp / 에디팅 박신혜



괜찮아. 넌 영원히 살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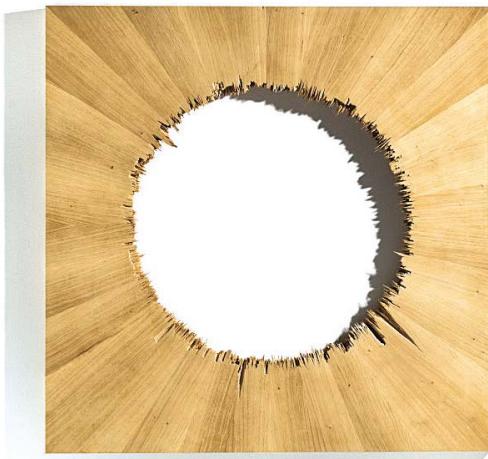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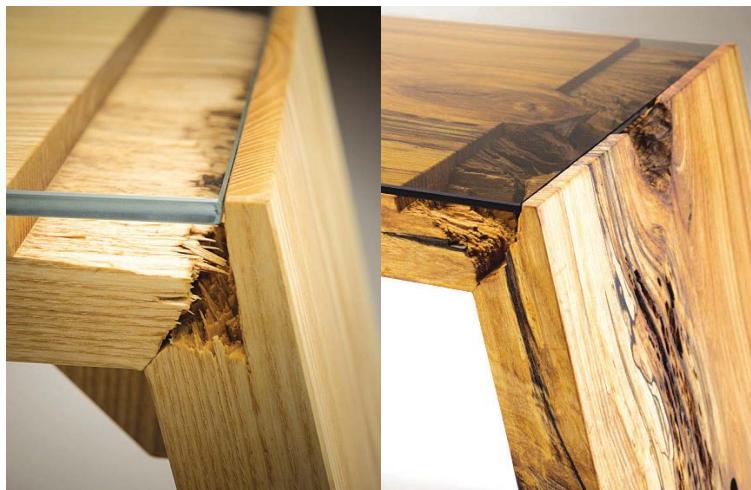


핀란드 디자이너 알마리 라이하넨은 갈라지고 부러진 나무들을 그려모아 브로큰 컬렉션(broken collection)을 선보였다. 그의 가구들을 보고 있자니 숙연해진다. 이 나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나머지 인생을 보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디자이너의 눈에 띈 나무들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언제든 폐기처분될 수 있는 흠이 있는 나무가 가구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수분을 품은 나무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곧 언제든 탁 하고 부러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부러지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한 이후에도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목재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이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작가의 목표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는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구구절절 화려한 수식을 더하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의 가구, 가구에 부러진 단면 한 구석이 더 많은 감동을 준다. byjalmar.com / 에디팅 박신혜



올라! 메히꼬



멕시코 제2의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과달라하라에서 나고 자란 디자이너 아나 히메네스 팔로마의 가구는 볼수록 귀엽다. 그녀의 가구에는 스위스 로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의 경험과 함께 고향인 멕시코의 영혼이 듬뿍 담겨있다.

특이한 형태와 독특한 색감을 가진 가구들은 각각 고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두 개의 가구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듯 보이는 친구의 이름은 이중성이다. 평범한 가구

는 땅에 제대로 밟을 내려두고 서 있지만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얼굴은 숨어있지 못하고 공기 중에 밟을 빼죽 내밀고 있다. 양손을 들고 즉각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장난꾸러기 암마도 있고 열정의 도시 멕시코를 상징하듯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아가씨도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으니 공간은 어느새 시끌벅적한 멕시코의 열정으로 가득하다.

anajimenez.com / 에디팅 박신혜

건축이 말을 건네는 시간들



우드 프레임이 멋들어지게 펼쳐진 이 건축물은 벨기에의 리아주 극장이다. 영화 〈제4의 벽〉은 리아주 극장의 건축 현장을 담은 영화다. ‘제4의 벽’은 연극 용어다. 연극에서 객석을 향한 가상의 벽을 뜻한다. 〈제4의 벽〉은 건축의 용도를 고려해 지은 제목이다. 영화는 2년에 걸쳐 진행된 극장 건축 현장의 과정을 담았다. 프랑스의 포토그래퍼 마리-프랑스와즈 플리사르는 극장 공사 현장에 참여한 건축사와 디자이너,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 건축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건축을 주제로 한 〈제4의 벽〉은 올해로 6회를 맞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영화제는 〈제4의 벽〉외에도 건축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차례로 상영한다. 영화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건축 소재의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관람자가 국제 건축을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화제는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세운다. ‘건축이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면?’이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건축 스스로가 지니는 책임, 그리고 인간이 건축에게 기대하는 심미적인 가치를 고려해 보면, 건축이 말을 건넨다는 가정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테다. 건축은 우리의 삶 곳곳에 깃들어,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자태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면서 건축이 지닌 언어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건축 영화제는 올 11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 에디팅 서주원



기간 2014년 10월 29일 ~ 2014년 11월 3일

장소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

문의 02-3415-6865

나무와 사람이 만드는 식탁의 온도



31명의 목공 작가들이 그릇의 쓰임새를 포착해 고안한 은은하고 편안한 식기들이 있다. 접시, 그릇, 사발, 트레이 등 종류와 용도별로 다양한 그릇들을 통해 음식은 더욱 맛듬직스러워지고 식탁 위 풍경은 더욱 푸근해진다. 삶을 위한 나무 그릇, 실용성에 미까지 겸비한 그릇 300점을 소개한다. 모두 나무로 만든 제품으로, 만든 이의 손길과 나무의 질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디자인, 제작 과정은 물론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 등 만든 이의 가치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나무 그릇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을 담아두는 것들을 통칭한다. 지은이 니시카와 타카아키는 단순한 물건으로서의 그릇이 아닌 직접 쓰는 '도구'로서의 그릇을 이야기한다. 책에는 목공 작가들이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실제 사용한 일상의 장면들이 담겨 있어 그릇에 담긴 모습들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나무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보면서, 각양각색의 소재로 된 그릇들과는 다른, 나무 소재로 만든 그릇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손에 닿는 온기와 입에 닿는 촉감도 좋을 것이다. 정갈한 음식과 은은한 정취가 음식과 잘 어우러져 어떤 요리든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실용적인 나무 그릇을 보면 나무나 그릇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나무의 온도를 실감하게 된다.

나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이 책에는 독자들이 스스로 그릇이나 접시를 만들 수 있도록 10가지 유형의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들은 것은 잊히고 본 것은 기억되며 행한 것은 이해된다고 했다. 책을 읽으며 나무 그릇의 포용력과 푸근함에 대해 느꼈다면 '만들어볼까요'의 코너를 통해 나만의 나무 그릇을 만들어보자.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기에 그릇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쓰고 싶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편하게만 만든다면 삶의 의미가 담긴 나무 그릇이 완성될 것이다. 이밖에 일반인들에겐 살짝 어려울 수 있는 윗칠 방법과 함께 나무 그릇의 순질과 보관법, 목공 관련 용어 해설 등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나무로 만든 그릇〉은 나무를 배우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에디팅 정인호



〈나무로 만든 그릇〉 | 니시카와 타카아키 저 | 한스미디어 퍼냄



woodplanet 40

침묵하는 나무

에디팅 서주원



내달 11월 1일 <신명덕-침묵> 展이 열린다. 목조 각가 신명덕은 이 전시를 위해 2년을 준비했다. 그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구상하며 작업을 하는 작가다. 신명덕은 고교시절부터 나무 다듬는 일을 해 왔다. 목칠 명인 흥순태 씨로부터 조각하는 일을 배웠다. 그는 이전에 장승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장승조각가’로도 불리운다. 그의 작품은 장승이란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적인 세계를 담고 있는 경향으로 작업 세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갤러리 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도 신명덕은 추상의 향취가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인다.



〈침묵〉이라는 제목은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는 단어다.

침묵은 문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정적이 흐르는 상태를 뜻한다. 신명덕은 작품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심리를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가 이런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된 데에는 가까운 지인의 죽음의 영향도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여덟 점의 작품은 삶을 더욱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깃들어 있다. 작품에 쓰인 나무의 수종은 재래종 소나무인 육송, 호두나무 그리고 침죽나무 등이다.

위치 갤러리 담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72

기간 2014년 11월 1일 ~ 2014년 11월 10일

문의 02-738-2745



세월이 농축된 거울들

에디팅 서주원

나무 중에서도 고재만을 고집해 프레임을 만든 거울이 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의 태양 보다는, 차라리 연약하게 대지를 비추는 가을날 햇살을 닮은 프레임이다.



러스틱 티크루트 미러는 티크의 뿌리부분을 이용해 만들었다. 나무의 가지보다 더 굵은 뿌리의 단면을 이용해 프레임을 만든 거울이다. 티크만의 질고도 은은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거울이다.
러스틱 티크루트 미러 90x70 | artu.co.kr | 52만원



표류목으로 만든 티크 거울이다. 바다에 휩쓸려 다니며 폭 우와 비람을 고스란히 맞았던 나무들을 모아 손수 가공했다. 세월의 풍파는 사람만 겪는 게 아닌가보다.
티크 드리프트 우드 거울 | artu.co.kr | 5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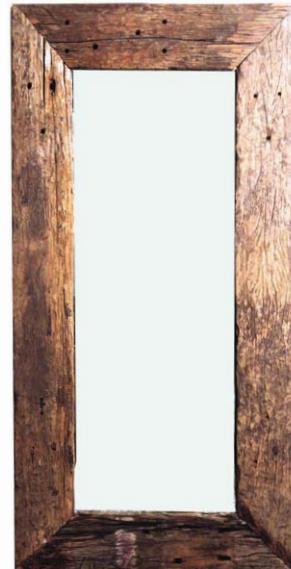


러스틱 티크 원형 프레임은 자연풍화의 기색이 역력하다. 깨지고 다듬어진 나뭇결을 브러쉬로 수작업 해 만들었다.
러스틱 티크 씨클 80 | artu.co.kr | 52만원



타타바타 우드 미러 90은 결이 살아있는 티크 원목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가공한 뒤 다시 붙여 만든 프레임이 매력적인 거울이다. 작은 직사각형들의 집합은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이룬다.

타타바타 우드 미러 90 | artu.co.kr | 48만원



고급 수종에 속하는 울린나무로 만든 보르네오 아이론 거울이다. 거친 결이 살아있는 철도침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택감이 살아나는 매력이 있는 목재다.
보르네오 아이론 대형 | artu.co.kr | 196만원



브랜치 티크 미러는 고급 수증인 티크의 가지로 만든 거울이다. 티크의 크고 작은 원형 단면을 빼곡하게 붙여 프레임을 완성했다.
브랜치 티크 미러 120 | artu.co.kr | 60만원



사람들을 기다리는 눈 먼 고래의 이야기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순한 바람을 기다리는 곳’. 제주도 조천을 이르는 말이다. 조천 바다 근처에는 제주 전통돌집 두 채가 있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보고도, 충분히 제주도의 가옥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돌집 말이다. SWBK의 가구브랜드 매터 앤 매터(Matter&Matter)와 스테이 브랜딩 회사 지랩(Z-lab)은 삼다도의 향취가 흠뻑 배어 있는 이 돌집을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했다. 불규칙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살아있는 돌벽도 그대로 살리고, 낮은 층고도 손을 대지 않았다. 현무암과 고재로 이루어진 내부 공간도 최대한 활용했다. 나무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천장과 공간을 장식하는 나무들은 인테리어 역할을 톡톡히 해 낸다. 또한 기존에 있던 대문과 미룻바닥에서 나온 고재는 재활용해서 테이블과 침대로 만들었다.

새 옷을 입게 된 돌집의 이름은 ‘눈먼고래’다. 이 곳은 조천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렌탈 하우스로 활용된다. 돌집 두 채가 바다를 떠돌다 육지로 몰려와 파묻혀버린 고래 모양을



닮았다는 연유로 지어진 이름이다. 어딘가 사랑스러우면서도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 명칭이다. 매터앤매터와 지랩은 가구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제주 렌탈하우스 ‘눈 먼고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구를 연출하기도 했다. 순한 바람을 기다린다는 이 곳 지명의 속뜻처럼, ‘눈먼고래’는 바다가 그리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낭만적인 공간이 될 테다. ‘눈먼고래’의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까지 크리스마스 2박 3일 숙박권 및 매터앤매터 가구를 선물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에디팅 서주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7길 19-12
문의 blindwhale.co.kr
이벤트 문의 facebook.com/matterandmatter, facebook.com/blindwhales

청춘 예찬



지난 10월 한 달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HoMA, Hongik Museum of Art)에서 ‘청춘예찬 : 한·중 청년작가전’이 열렸다. 이 전시는 ‘중국청년예술 100’과 홍익대 현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양국의 미술계를 대표하는 청년작가 40명이 참여해 회화, 설치, 조각, 영상, 공예, 사진 등 총 85점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수학한 가구 디자이너 권재민, 신 강, 윤새롬이 참여했다. 그들의 작품은 다음을 기약하며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 푸르게 빛나는 청춘을 만날 수 있음을. 이것이 그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 에디팅 박신혜



북미식 그루렘 커뮤니티센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천혜의 자연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북한강 동연재’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전원주택단지다. 이곳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전원주거단지로, 141세대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북미식 목조주택단지를 자랑한다. 경춘선 가평역에서는 1.5km로 도보 15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근처에 남이섬과 자라섬이 자리 잡고 있어 주변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북한강 동연재는 캐나다 정부 산하 비영리기관인 캐나다우드 (Canada Wood)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시공관리를 받았다. 이 곳의 목조주택은 팀버프레임 하우스로, 2 " X6 " 규격 목재를 사용한 2X6 공법으로 시공된다. 이 곳에 일찌감치 자리 잡은 커뮤니티센터에는 카페, 슈퍼,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룸, 멀티룸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입주 완료 후에 마을회에 무상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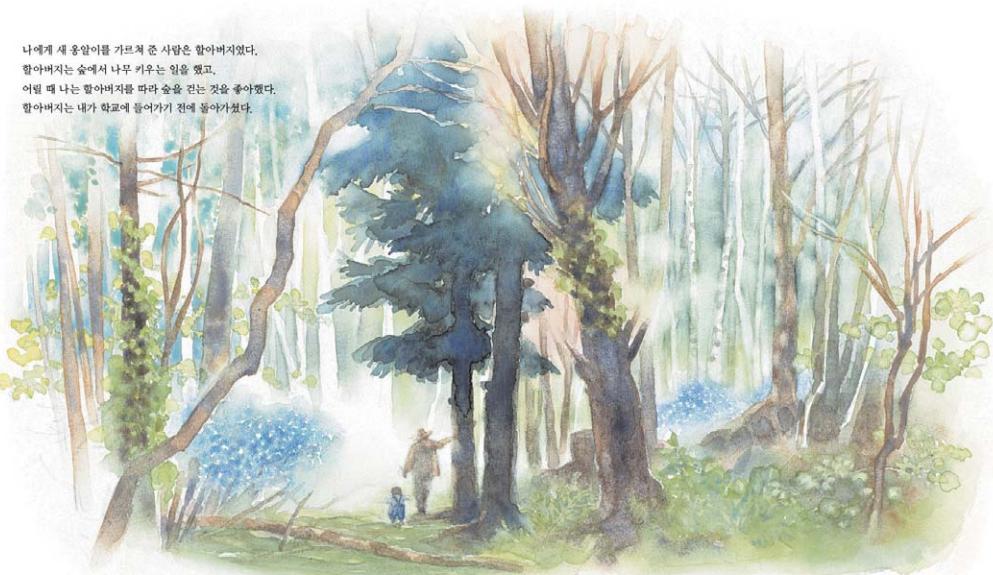
‘북한강 동연재’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 캐나다우드 코리아에서는 지난 10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이하 'BC') 산림토지천연자원부 장관(스티브 톰슨)과 아시아특별대사(벤 스튜어트), 그리고 캐나다 연방 천연자원부 차관보(글렌 메이슨)의 방한 행사를 마련하고 준공식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BC주 산림토지천연자원부 장관 스티브 톰슨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한 목적을 “캐나다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 사업을 한국 시장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산림청은 박 대통령이 한국-캐나다 FTA 협상 문제로 캐나다에 방문했을 당시 캐나다의 산림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산림청과 대한민국의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 위주의 친환경 사업 등 긴밀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에디팅 서주원

펜 끝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

949년 샷포로에서 태어나 일본과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한 이세 히데코는 〈마키의 그림일기〉로 노마 아동문예상을 받고 〈나의 틀리외르 아저씨〉로 고단사 출판문화상 그림책상을 수상했다.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철로〉, 〈첼로, 노래하는 나무〉, 〈첫 번째 질문〉, 〈나의 형 빈센트〉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그녀의 손끝에서 청명하게 우거진 숲이 탄생을 지켜보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다. / 에디팅 박신혜



〈첫 번째 질문〉 | 천개의바람 펴냄



〈첼로, 노래하는 나무〉 | 천개의바람 펴냄

FURNITURE

로즈우드 - 권재민
혼자서 깊어지는 나무

에디팅 정인호

바람과 눈보라를 견결히 버틴 나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가늠할 수 없는 그 세월은 기구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된다. 권재민 작가는 자연의 형상보단 물성에 집중해 작품을 만든다. ‘함’은 터지거나 갈라진 나무, 이끼나 피죽을 제거하지 않은 나무로 제작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사각의 형태가 완성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자란 이끼는 나무의 곁에서 한결 짙어졌다.



회화나무 - 김영찬

나무로부터 당신에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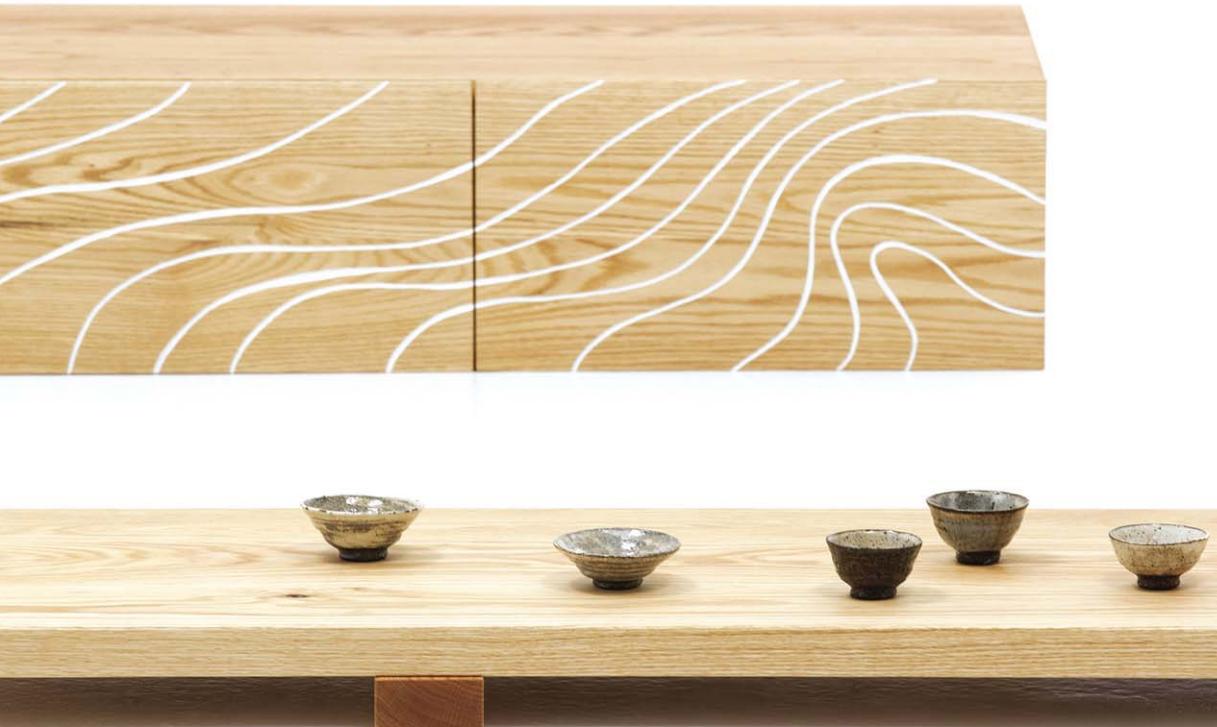
연리지의 단면이 떠오르는 이 작품의 이름은 'with ssong.' 어린 딸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회화나무를 조각했다. 부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바라볼 회화나무는 온몸으로 나무이면서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된다. 김영찬 작가는 나무의 피죽을 이용해 목재를 접목해가며 조각하고 생습칠을 했다. 연질부와 경질부의 성질을 이용해 제작한, 군더더기 없이 절제된 작가의 감각이 돋보인다.



레드오크 - 박연규

어느 섬에 우두커니 서서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충충으로 되어 있는 좁고 긴 논. 다랑논이다. 청산도의 높고 푸른 하늘에서 내려다본 다랑논의 세월은 차라리 그림에 가깝다. 끝 없이 이어지는 다랑논을 바라보며 작가는 향토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박연규 우드 스튜디오에선 가구가 하나의 상품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맺어주는 매체로, 세대와 세대 간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매체로 사용되길 바란다.



화이트오크 - 양웅걸

어떤 나무는 간결하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한 위안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 매끈한 곡선과 최 소한의 장식으로 이루어진 의자에 앉아 침묵의 휴식을 갖는 건 어떨까. 화이 트 오크로 제작된 이 의자는 뒷모습이 예뻐 ‘뒤태 의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라운드 처리된 좌판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 나란히 있을 때 훨씬 정갈한 모습을 연출한다. 각종 디자인 페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웅걸 작가는 빈 틈없고 날렵한 디자인을 구사한다.



화이트오크 - 오크마운틴
바람이 뛴다, 살아야겠다



“섬세한 섬광은 얼마나 순수한 솜씨로 다듬어내는가.” 폴 발레리의 묘비에 새겨진 구절이다. 오크마운틴의 자이브 5단 서랍장은 투박하지만 섬세하다. 포근하고 편안한 풍경이다. 우직하게 서서 험난한 인생을 견뎌온 나무의 세월이다. 심연 위에 태양이 휴식을 취할 때 나무는 비로소 아득한 평화를 품는다. 오크마운틴은 ‘숲 속 가구’를 모티브로 하여 가구에 자연 치유능력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

올리브나무 - 톤첼리
나무가 이룬 주방은 아름답다



허육과 먼지로 가득했던 시간을 정갈하게 다듬어주는 나무가 있다. 밝은 톤의 올리브나무 무늬목으로 주방 분위기를 한층 환하게 만드는 톤첼리 에센셜이다. 훌려내리는 듯한 곧은결이 가구의 유려함을 배가한다. 50년 역사를 지닌 톤첼리의 감각과 아이디어로 주방은 멋진 흰바 공간이 된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던 곳이 사교의 장으로 멋지게 거듭난다.

월넛, 장미목 - 김자형

실로 자연스러운 자세



나무를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이다. 김자형 작가는 변재와 심재를 모두 사용해 가구를 만든다. 월넛과 장미목으로 이루어진 이 수납장에서는 장미목의 온전한 굴곡을 느낄 수 있다. 수납장의 자태에서 나무의 품성이 엿보인다. 그녀가 표현한 자연 본연의 멋은 우리의 전통가구와도 닮았다.

월넛 - 이승석

저 물녘에 나무의 결에서

시인 김현승은 말한다.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나무이다.” 혹처럼 튀어나온 나무를 그대로 제재해서 활용한 월넛 low table은 고단하고 먼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감성가구, 말 없는 월넛 테이블의 그림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추억이 담긴 일기장을 꺼내 지난날을 반추해보게 된다.



수다보다 좋은 휴식은 없다

글 박신혜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일상의 스트레스는 잠깐 내려놓은 주말. 일요일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부담이 덜한 한낮의 토요일. 고즈넉한 부암동 무계원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멋진 풍광과 숨씨 좋은 그릇장 사이로 시종일관 이어지던 수다를 <우드플래닛>이 담았다.

우드플래닛 사무실로 나무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FX 프로젝트 그룹이 개최하는 그릇장 전시 초대장이었다. 작가가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아니다. 작가 한 명이 기획자이면서 마케터, 진행요원이자 큐레이터 역할도 하면서 일당백이 돼야 하는 그야말로 어디로 펼지 모르는 기획전이었다.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실현시킨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내 다섯 작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 어떻게 해서 FX 프로젝트가 탄생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김은희 작가: 우리는 가구를 만들게 된 계기도, 배우게 된 곳도 모두 다 달라요. 가구를 하는 동안 다들 기존의 전시회도 경험했고요.

전시회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쌓였어요. 기존의 가구 전시회는 갤러리 안에 가구를 늘어놓고 관람객이 멀리서 구경하는 형태거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 가구라는 게 쓰면 쓸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물건인데 그걸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만 감상하는 건 가구라기보다는 조형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보완한, 정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전시회를 진행하려면 물론 작품

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행사를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끼리 정말 마음이 맞아야 하거든요. 제가 금보성 아트센터에서 '동거-COHABITATION'을 할 때 김태원 작가와 김희원 작가를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건물 1층에서 한국가구학교 그룹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하면서 그때 인사 나누던 게 지금 까지 왔네요.

- 그렇게 첫 만남을 가졌군요. 재밌는 기획 전시라 동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김희원 작가: 전시 장소가 무계원으로 결정되고 나서 준비하는 동안 6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함께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멤버 구성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룹 안에서 얼마나 융합이 돼 자기 뜻을 해낼 수 있느냐였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니까 자기주장만 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 개인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흔쾌히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김은희: 그래서 지금 구성돼 있는 다섯 멤버에게 사실은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워요. 지금도 매일 여기 오면서 생각해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고요.



- 최상의 멤버네요. 작업하는 동안 다섯 분이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김은희: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의견이 달라서 회
의를 길게 하죠. 지난번에는 9시간을 했어요.

김희원: 12시간이었거든요. 언니.



이현정 작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
시까지 회의했던 그날 말하는 거
예요?

김희원: 그렇지. 하루 세끼를 같이
먹었잖아요.

김은희: 만약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
람들이었으면 장시간 회의 못했을 거예요. 지
금 생각해보면 다들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
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
게 오랜 시간 토론을 할 수 있었어요.

- 정말 즐겁지 않으면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텐데요.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
나요?



김태원 작가: 저희는 한 번 했다 하
면 무조건 기본이 4~5시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한 시간 반 정도는
워밍업으로 수다를 떨죠.

이현정 작가: 오다가 만난 이상한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태원: 나무 이야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강아
지 이야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만 정
리하고 회의에 들어가죠.

- 수다에 익숙한 여자 멤버들에 비해 청일점인
김태원 작가는 수다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
나요?

김태원: 제가 예전부터 수다 떠는 데 일가견이
있어요. 드라마 이야기도 좋아하고 동네 사람
들이랑 이야기도 잘해요.

김은희: 부암동 마당발이에요. (웃음)

- 무계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김태원 작
가님이 한몫 하셨군요. FX 프로젝트의 첫 전시
라 무엇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릇장

을 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은희: 김태원 작가와 저, 김희원 작가 셋이서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즉흥적으로 나왔어요.
때마침 그릇장을 찾는 분들이 많았고 일방적으
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
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장이
관객들의 추억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
거든요.

- 다들 매일 가구를 만드니 그릇장 만드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겠죠?

김희원: 저는 그릇장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그
릇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멤버
들 모두 경악해서 쓰러졌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싱크대에 그릇 쌓아놓고
필요할 때 빼서 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릇
도 따로 모으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세트로 맞
춘 그릇에 이 빠지면 하나씩 사는 정도였거든
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감
정이입이 안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하
듯 그릇장에 대해 물어 그린 제 첫 디자인에 다
들 아무 말을 안 하고.

김태원: 그게 사무쳤구나. (일동 웃음)

김희원: 아니야. 사실 나도 그 디자인이 내 마음
에 든 게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김은희: 회원이가 너무 우리 전시회 콘셉트에
몰두하는 바람에 자기 색깔을 가구에 안 넣은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전시회 생각 접어두고
본인만의 색깔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렇게 멋진 장이 나왔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
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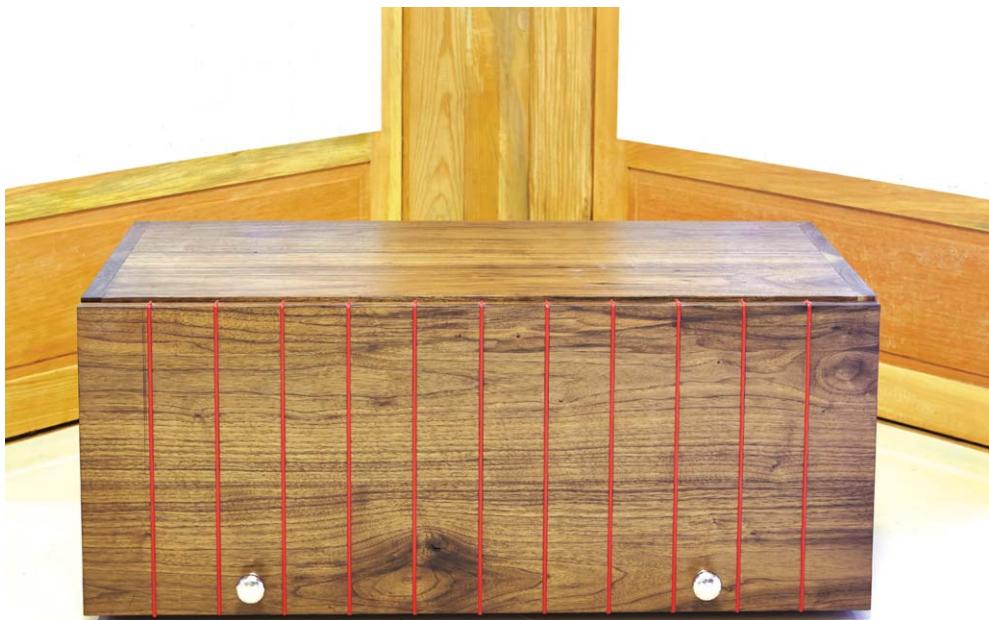
- 맞아요. 그릇장을 보고 첫눈에 김희원 작가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
땠나요?

김은희: 강연구 작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김태원: 저는 강연구 작가가구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가구 촬영하는 날, 도면으로만 봤던 디
자인을 실제로 처음 봤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여름에서_담다 | 강연구 | 900 x 350 x 1400 | 메이플, 월넛



Kitchen Cabinet K2 | 김은희 | 870 x 390 x 1350 | 레드오크, 파덕, 천연기족



강연구 작가: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서울이고 주중에는 하남에서 일을 하고 공방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장농

면허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집에 서 공방까지 가는 데만 꼬박 두 시간이 걸려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밤도 많이 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정말 즐겁게 작업했어요. 밤샘 작업하다가 새벽에 문득 친구들 다 결혼하고 SNS에 아기들 사진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 강연구 작가님, 오늘 정말 예뻐요.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꾸밀 시간도 없죠?

강연구: 저희 공방에 오는 분을 전시 오프닝 때 봤어요. 알아보고 인사하니 멈칫멈칫 하시는 거예요. 먼저 뒤집어쓰고 작업화 신은 저만 보다가 치마 입고 화장한 모습에 놀라셨나 봐요.

김희원: 작업하다 쉬고 싶고 그러면 갈아입기 불편하니까 작업복 입은 채로 카페 가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때가 있죠.

강연구: 저는 그렇게 밥 먹으러 가면 어느 공장에서 일하느냐고 물기도 해요.

- 오로지 가구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군요. 그렇게 만든 가구로 전시회도 자주 하시죠?

김은희: 이번에는 기획전이에요. 단순히 가구 만들어서 진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섞어야 하거든요.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자기 개성을 녹인 가구를 같이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프로젝트예요. 기존의 전시회는 자기 가구를 만들고 갤러리 빌려서 전시해 놓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시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이 무계원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릇장 전시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 기획을 통해서 사람들 이 원목가구에 대해 좀 더 친밀하게 생각했으

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 그리고 보니 다섯분 모두 원목가구에 대한 관심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겠네요.

김희원: 이전에는 소나무나 삼나무 같은 소프트우드로 가볍게 만들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프러스 등을 이용하는 DIY 가구까지 저변이 많이 확대됐어요. 요즘에는 자기만의 가구를 집안에 가져다 놓고 싶은 고객들이 하드우드 가구를 많이 주문해요. 나무 색깔에 나무 무늬라서 원목가구인 줄 알고 샀는데 공방 와서 굵어보니까 MDF에 무늬목인 경우가 있어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가구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었죠.

- 원목가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들 바빠지셨죠?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라 얼굴이 밝아요.

김은희: 가장 즐기는 사람 여기 있어요.

김희원: 즐기는 분, 한마디 하세요.

이현정: 저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솔직히 이 전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지내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안 정된 친구들 보면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아 창피하기도 하고 기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돈벌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자고 결정했어요.

김은희: 제가 계속 부추겼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가구를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이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이현정: 겉보기와는 다르게 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암전하게만 살아왔어요. (웃음)

김희원: 그건 아니잖아.

이현정: 정말이에요. 대학생 때 친구가 7시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데 그 시간이면 집에 갈 시간인데 왜 영화를 보러 가는지 이해를 못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이 마흔에 이십대 친구들이 할만한 일을 하니까 저는 정



Bar Cabinet 2014 | 김태원 | 900 x 380 x 1550 | 블랙윌너



여백 1 | 김희원 | 900 x 400 x 1770 | 레드오크, 월넛

말 신나요. 진짜 좋아요.

- 미러볼을 가구에 집어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김희원: 본인 집 거실에 있는 거예요.

김태원: 가구를 보물창고라고 해서 그 안에 사탕을 넣어 놓고 아이들이 오면 하나씩 꺼내주기도 해요.

- 다음번 전시도 이번처럼 톡톡 트는 아이디어로 가득할 예정인가요? 다음 작업에 대해 생각해 놓은 게 있다면 살짝 들려주세요.

김은희: 저는 이번에 가죽을 썼는데 패브릭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김희원: 왜 나랑 타일 쓰기로 했잖아.

김은희: 시도는 여러 가지 해봐야죠. 그런데 가장 많이 사랑 받은 게 패브릭이라서요.

- 김은희 작가님의 패치워크 캐비닛은 우드풀 래닛에도 소개된 바 있죠. 패브릭을 좋아하면 뜨개질이나 바느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희원: 목공 하는 사람들 바느질 굉장히 못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김태원: 저는 당연히 그렇겠죠. (웃음)

이현정: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김희원: 저는 바느질하면 몸이 뒤틀려요. 손가락 마디가 꼬이는 것 같아서 학교 다닐 때 바느질 숙제가 나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엄마가 해주셨어요.

이현정: 저도 과외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김희원: 바느질 잘하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죠. 대신 나무 만지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공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바느질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김태원: 은희 누님 좋아하지 않아요?

김은희: 나?

김희원: 은희 절대 안 해. 내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느꼈는데. (웃음)

김은희: 저는 바늘만 보면 정말 두통이 왔어요.

김희원: 아이들 새 옷을 입혀 놓으면 이튿날 꼭 구멍이 나요. 사흘마다 옷을 살 수는 없으니까 바느질을 하면 우리 남편이 한숨을 쉬어. 남편이 저보다 바느질을 잘해요.

이현정: 맞아요. 저도 인형 찢어졌을 때 아빠한테 이것 좀 꿰매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바느질 해 준 적 있어요.

- 김태원 작가님은 의외로 바느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태원: 저를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세요. (웃음)

이현정: 오빠 의외로 잘할 것 같아.

김태원: 그렇게 몰아가지 말라니까. 뜨개질을 한 번 해본 적 있는데 답답해서 하다가 집어던졌어요.

김희원: 작업하는 방식이 다른가봐.

김은희: 특이한 게 바느질은 어려워하는 반면에 천은 정말 좋아해요. 원목가구 자체가 굉장히 색이 단조롭잖아요. 거기에 화려한 패턴의 천이 더해지면 정말 예뻐요.

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바느질 이야기가 어느새 좋아하는 재료 이야기로 넘어가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요즘 사는 이야기가 오간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수다를 끝내고 싶지 않았지만 작가와 작품을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나몰라할 수 없는 일. 아쉬워하는 기자에게 FX 프로젝트 그룹이 귀띔을 한다. 다음 전시는 방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이들은 대체 무슨 꿩꿍이일까. 어쩔 수 없다. 잠자코 다음 초대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



i am | 이현정 | 500 x 420 x 1620 | 레드오크



간결하지만 따뜻하다

글 정인호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가구는 그 무엇이기 전에 삶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구를 선택했다. 간결함과 내구성이 바탕이 되는 가구 공식을 고집하는 이현승 대표. 여름 초입에 땀으로 일구며 오픈한 그의 가구 스토어에 찾아가 본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스퀘어룰에 들어서면 오크로 제작된 가구들이 한눈에 보인다. 정밀기계 엔지니어 출신 이현승 씨는 이런 나이에 직장에 다니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생활과 돈에 치이는 직장생활에 지칠 무렵 그를 구제해 준 것은 수제가구였다.

조금은 무모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레 ‘베체’라는 가구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3년 동안 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이현승 씨는 “베체의 첫 직원이었어요. 대표님이 여자 분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죠. 제가 원하던 가구 스타일과 굉장히 밀접했어요.” 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 디자인과 제작을 겸했던 것이 공방을 오픈하는 데에 발판이 되었다.

그가 고집하는 수종은 화이트 오크. 은근하지만 꾸준한 열정으로 목공에 임하는 그의 자세와 부합한다. 화이트 오크는 그가 생각하는 나무의 질감과 본연의 색감에 가장 근접하다. 주변 환경과도 조화롭다. 그는 오크를 먹음직스럽다고까지 칭찬하며 나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오크는 내부 크랙이 많고 건조 방식이 까다롭다. 때문에 그는 밤낮없이 일한다. 힘겹고 고단한 노동이지만 평생 업으로 삼고 싶은 일이기에 오로지 즐거운 자세로만 나무를 마주한다. 태생적으로 내구성과 충격에 강하며 자연스럽기까지 한 화이트 오크. 어쩌면 가구의 기본을 중시하는 스퀘어룰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아닐까.

부드러운 선, 따뜻한 감촉

스퀘어룰에선 최소한의 구조만으로 가구의 기능을 완성한다. 가구의 불필요한 요소는 가급적 생략한다. “3인용 소파 좌판 및 하단 중간에 다리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각적 아름다움이 떨어지고 관리하기도 불편하죠.” 구조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했다.









얼핏 보면 그저 기본에만 충실한 이곳의 가구에도 특별함이 있다. 가구마다 보이는 큰 엣지가 스퀘어를 가구의 포인트. 절대적인 수치의 엣지가 아니다. 가구에 비례하는 크기의 엣지이다. 쉬운 작업은 아니다. 기존 작업보다 시간도 더 걸린다. 자칫하면 오크 특성상 뜯김으로 인하여 다시 가공해야 한다. 그래도 각각의 가구에 어울리는 엣지를 찾는 작업이 그에겐 큰 보람이 된다.

날카롭지 않은 이 엣지들은 사람의 손이 닿는 위치에 중점적으로 제작된다. 사람들이 가구를 만질 때 온기를 느끼길 바라는 이현승 씨의 사려 깊은 마음이 담겨있다. 두껍고 큰 엣지들은 입체감과 실용성은 물론 인간미까지 겸하고 있다. 그는 기능적이면서도 정이 묻어나는 가구를 꾸준히 만들고자 한다.

그가 꿈꾸는 타이틀, '장인'

아무도 핀 윤의 가구를 제작하려 하지 않았을 때 닐스 보더(Niels Vodder)는 핀 윤의 새로운 시도를 지지했다. 그는 핀 윤이 디자인 한 작품의 70% 이상을 만들었다. 닐스 보더와의 협업이 있었기에 지금의 핀 윤 가구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현승 씨 또한 디자인 못지않게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했던 그의 기질이 목공을 하면서도 발휘된다. 그는 제작이 완벽해야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구가 많다고 말한다. 본인의 공방을 차리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기본적인 공정에 대해 다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작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야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기본'을 중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현승 씨는 가구 디자이너보다는 가구 장인이 되고자 한다. 다섯 살 아들을 둔 그는 자식이 명맥을 이어 가는 장인 집안이 되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한다. 소박하고도 묵직한 꿈이 스퀘어룰의 화이트 오크 가구와도 닮았다. 가구에 조형미와 온기를 불어넣는 그의 도전정신을 응원해 주고 싶다. ◎

● 스퀘어룰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75-4 1F
문의: 031-216-1126 | blog.naver.com/squarerule



정직한 가족, 올곧은 가구

글 정인호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가구를 보면 만든 사람의 시간과 정성, 마음을 느낄 수 있듯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채워 온 인생의 순간들을 읽을 수 있다. 느리지만 꼼꼼하게 자신들의 시간을 가꾸는 한 부부의 가구 전시장에 다녀왔다. 자잘한 행복의 순간들이 축적된 부부의 가구에는 사랑이 전염되어 있었다.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만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한 부부가 있다. 찬란했던 20대에 만나 서로의 중년을 마주하고 있는 부부의 첫 아이 이름은 수빈이다. 그들은 가리모쿠60을 떠올리며 그들의 추억을 조합한 이름으로 빈스70을 탄생시켰다.

가구와 주방의 운명 같은 만남

한홍국 실장과 권안나 실장은 각자 업계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한 실장은 한샘 디자인개발실, 전망 좋은 방, 보컨셉, 셀럿을 거쳐 온 실력파 디자이너다. 한국공예대전, 대구공예대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도 다양하다. 권안나 실장은 에넥스에서 주방가구 인테리어 설계로 실력을 쌓아 온 주방가구 전문가다.

그들의 시간은 15년 전부터 쌓여왔다. 아래 권안나 씨가 대학 시절 졸업 작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 한홍국 씨가 시간 강사로서 그녀를 도와준 것이 그들 만남의 계기.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결혼해서 동업까지 하게 된 그들의 관계가 사뭇 담백하다. 각종 부부 프로그램에도 거침없이 참여한다는 그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들이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일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미리 예정되었던 일이다.

금을 좋은 부부의 가구 전시장은 한없이 편해 보인다. 20대 때부터 오로지 가구만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주저 없이 다가갔을 그들의 젊은 날이 떠오른다. 사랑이라는 해





북은 단어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자연스러운 기표가 된다. 빈스70은 그렇게 서로의 생활이자 안식처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정직하고 올곧은 가족의 가구

빈스70의 쇼룸은 세 가지 톤으로 이루어졌다. 레드오크와 애쉬, 자작나무. 그들이 사용하는 수종에 따라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수종별로 나누어진 디자인 시리즈의 이름은 그들이 이루어낸 또 다른 결실이었다. 존, 매리, 빈은 각각 자녀들의 세례명과 이름이다. 존은 북미산 레드오크, 매리&피아는 자작나무, 빈스는 애쉬로 디자인, 제작된다. 딸아이 둘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그들은 신제품이 하나 더 나올 예정이라며 작명에 대해 고민 중이다.



‘자연을 생각하는 가구’. 브랜드의 슬로건에 걸맞게 그들은 좋은 나무만 사용한다. 하드우드로 제작된 모던한 가구는 신혼부부나 30대 젊은이들이 주로 구입한다. 성인 가구를 목적으로 제작한 가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단정한 느낌과 저렴한 가격대 때문에 부부의 침실부터 자녀의 방까지 다양한 공간에 배치가 가능하다. 원래는 인터넷으로만 판매했지만 가격대가 워낙 저렴해서 재질을 직접 확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쇼룸을 마련하게 되었다. 백 프로 원목임에도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는 빈스70의 가구에 고객들은 항상 만족한다고 한다.

인건비와 유통 마진을 줄여야 가구 가격이 저렴해질 테니 그들은 규모를 키우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가격 거품이 심해진 가구들 때문에 나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그들은 조금씩 타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여유와 열정 사이에 따뜻함과 순수함이 엿보인다.





좋은 나무, 좋은 제품, 좋은 가격

직장생활을 하던 그들에겐 본인들의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재미다. 디자인, 제작, 홍보까지 모두 직접 도맡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수고부터 홈페이지 관리, 마케팅까지. 시행착오도 다양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협업과 분업의 경계도 자유롭다. 한홍국 씨가 가구 디자인과 제작을, 권안나 씨는 주방 맞춤제작을 한다. 가게를 함께 운영하지만 그들이 부딪힐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함께 지내온 시간의 힘 때문인지 의견 다툼이 생기는 시기는 어느새 훌쩍 지났다. 서로에 대한 믿음은 빈스70과 함께 더욱 견고해진다.

각자 다른 파트에서 디자인과 제작을 맡고 있지만 그들을 아우르는 콘셉트는 비슷하다. 그들은 뒤틀고 비꼬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한홍국 씨는 나무 자체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나무 소재만으로도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된다고 말한다. 권안나 씨 역시 좋은 나무로 다양한 색상과 콘셉트를 구사해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주방을 완성한다. 그들은 평범한 디자인만으로 원목 가구, 인테리어의 느낌을 살리고자 한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좋은 나무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다. 심플하고도 뚜렷한 목표다.

죽전 전시장에서 만난 그들의 삶은 가구처럼 자연을 닮아 있었다. 자연친화적인 삶을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고자 넓은 마당과 텃밭,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공동육아’라는 협동 조합원이 되었다. 재정과 운영, 시설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들을 부모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보육공동체는 부부의 뜻과도 잘 부합했다. 지금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보다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빈스70.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

함께 있어 즐거운 코지뮤지엄

글 박신혜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일찍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이라 했다. 우정에 대한 그의 낭만적인 해석을 증명이라도 하듯 코지뮤지엄의 두 작가는 남다른 우정을 과시한다. 서로에 대한 돈독함으로 채워나가는 코지뮤지엄을 방문했다.



네 살 차이의 가구 디자이너 우성철(30), 염동훈(26)은 같은 학교 유리공예학과 선후배 사이로 처음 만났다. 하고 많은 학부생들 중 유독 두 사람이 친해져 회사를 차리고 함께 가구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쨌든 둘은 메이앤 공방의 가구 수업을 졸업하고 올봄에 코지뮤지엄을 개관했다. 반년도 못돼 첫 개인전을 가지고 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뛸 준비를 하는 그들이 멀어질세라 성급히 불러 세웠다. 숨 쉴 틈도 없이 어딜 그렇게 바빠 가느냐고 물으니 짧은 그들이 환하게 웃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코지뮤지엄

코지뮤지엄은 정확한 주소 없이는 찾아가기 힘든 곳이다. 이쪽으로 오라는 표지판도 없고 이곳이라는 간판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략한 주소 한 줄에 의지한 채 찾아간 건물 앞에서 이곳이 맞나, 한참을 서성였다. 두 작가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는 지하1층에 있었다.

빼듯한 예산 내에서 만족할만한 공간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땅값이 비싼 강남은 아예 제쳐두고 서울 이곳저곳을 이 잡듯이 뒤졌다. 제일 괜찮은 곳도 흡족하지 않았다. 세워놓은 계획에 맞추려면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다지





성에 차지 않지만 촉박한 마음이 앞서 허겁지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날 우성철 작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이곳으로 불렀다.

봉제 공장이었던 지난 이력을 보여주는 컨베이어 벨트와 천장에 설치된 텍스, 조명, 전선 레일들이 제 살갗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을 뜯어낸 후 각파이프를 이용하여 양카볼트와 알곤 용접으로 뼈대구조를 삼아 OSB(Oriented Strand Board) 합판으로 벽을 세웠다. 이 벽들은 나중에 각각 기계실과 조립실, 사무실로 나누어졌다. 합판의 제원과 생산지를 뜻하는 프린팅이 찍혀 있는 캐나다 산 합판으로 사무실에서 쓸 테이블도 만들었다. 직접 발품을 팔아 마련한 레일조명을 달고 바닥에 도자타일을 깔자 그들만의 아늑한 작업실이 완성됐다.



고생은 사서 한다. 짚으니까

이 모든 작업이 말처럼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작업하기 전 정확한 치수를 구하기 위해 수를 입력하고 도면을 그렸지만 오차는 아낌없이 발생했다. 하지만 뛰든 제 손으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청년들에게는 순간순간 덮쳐오는 시행착오가 소년의 모험기나 무협지의 한 대목처럼 느껴지나 보다.

이들의 생고생 스타일은 목공을 배우면서 둘이 함께 떠났던 첫 해외여행에서도 엿볼 수 있다. 먼발치에서라도 히말라야를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히말라야의 얼음이 녹아 흘러들어오는 곳, 갠지스 강이 처음 시작되는 인도의 리시케시로 향했다. 별이 쏟아지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그들의 우정을 더욱 돋독하게 만들었다.

인도여행이 낭만적이기만 했느냐하면 그건 또 아니다. 아무리 여행경비가 싸기로 유명한 인도라지만 하루 만 원도 되지 않은 예산 안에서 의식주를 만족스럽게 해결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한쪽에는 여전히 50L 크기의 배낭이 걸려 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히말라야를 보고 싶다는 그들의 꿈이 조만간 이뤄질 듯하다.



‘짝’ 하면 ‘쿵’, 그래서 짹꿍

선호하는 공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염동훈 작가의 답이 튀어나온다. “형은 라우터, 난 도미노. 그치? 딱 그거잖아.” 전통적인 가구는 대부분 짜맞춤 기법을 이용하는데 코지뮤지엄에서는 촉을 넣을 수 있는 기계인 도미노를 이용해 가구를 결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가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동양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는 그들의 가구는 그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코지뮤지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도전해야 할 것도 많다. 때문에 그들이 만든 아기용 흔들침대에는 귀여운 아기 대신 두꺼운 책들이 두서없이 쌓여있다. 그렇다고 서두르는 기색은 없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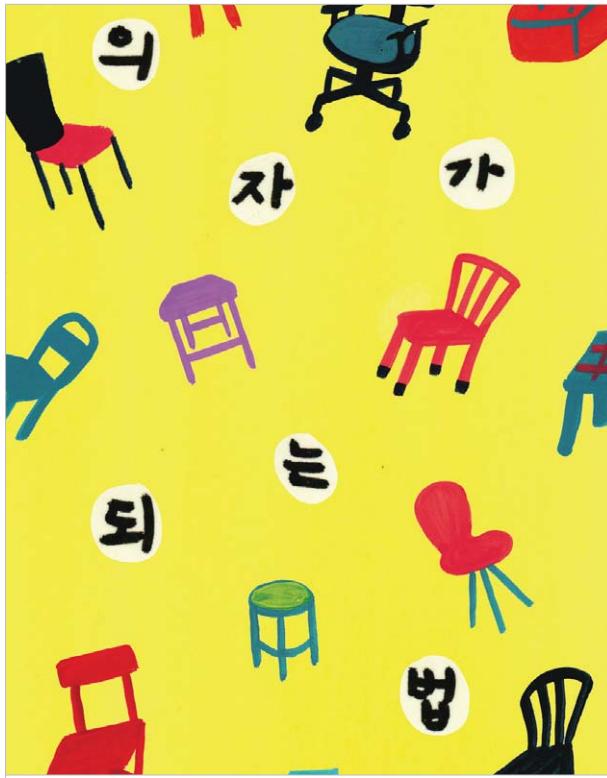
음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가구를 만들어갈 뿐이다.

둘의 명함에는 각각 핀 율과 한스 웨그너의 가구가 새겨져 있다. 건축가이기도 했던 대가의 가구는 하나의 건축처럼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튼튼하면서 예쁜 가구. 단순하지만 어려운 이 공식을 깨우치기 위해 그들은 오늘도 작업에 매진한다.

코지뮤지엄은 현재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대학로 이앙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열릴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인터뷰를 마친 그들은 재빨리 다음 뛴박질을 위해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입구 머리에는 웅비(雄飛)와 약진(躍進)이라는 붓글씨가 힘차게 뛰어가라며 두 사람을 독려하고 있다. 합판 벽에 걸어놓은 알림판에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두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듯하다. ⑧

다큐멘터리 <의자가 되는 법>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에디팅 박신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 를 나누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의자에 몸을 맡긴다. 그리고 보니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었던가? 늘 내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면서도 신음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의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다. 그래서 의자는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손경화 감독은 지난 9월 <제6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의자의 혼잣말을 집요하게 주제한 결과물인 다큐멘터리 <의자가 되는 법>을 선보였다. 영화제는 의자의 목소리에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여했다.

How to be a chair

의자가 만들어진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기도 하고 공방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져 만들어낸 가구는 각자의 주인을 찾아간다. 반절반질 윤이 나던 새 의자는 흐르는 세월에 이가 빠지기도 하고 다리가 꺾이기도 한다.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유행이 지나 못생겨진 의자는 집밖으로 쫓겨난다. 이때부터 의자는 또 다른 생명체가 되어 거리를 부유한다.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지고 내리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자신의 무게를 맡길 누군가를 기다리며 가는 다리로 간신히 오늘을 버텨내고 있다.

의자는 가장 민감한 가구 중 하나이

다. 신체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받아내기 때문에 잘 만들기도 어렵고 내 몸에 딱 맞는 의자를 만나는 것 또한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가구에 비해 부러지기 쉽고 또 그래서 잘 버려진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의자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우리 모두 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향하는 모든 일상이 쓸모 있고 가치가 있는 무엇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늘 완벽한 의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완벽한 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길가에 놓인 의자를 허투루 보고 지나갈 수가 없다.

흙(soil)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버리는 걸 못하고 물건 만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폐기된 가구와 땅에 떨어진 가로수를 이용해 스타일의 네 다리를 완성했다. 이번에는 깨진 플라스틱 의자에 나무를 덧대 부러진 의자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언제나 반짝이는 새 의자일 수는 없다. 버려진 의자는 자신의 존재를 알 아봐주는 예술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등받이 쿠션이나 천을 가는 개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기도 한다. 혹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골목 어귀에 오가던 어르신들의 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의자의 삶은 지속된다. 의자는 체중을 받아내기 위해 태어났다. 엎어지고 깨진 의자도 사람들은 의자라고 인식한다. 그것이 의자의 숙명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의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ARCHITECTURE

&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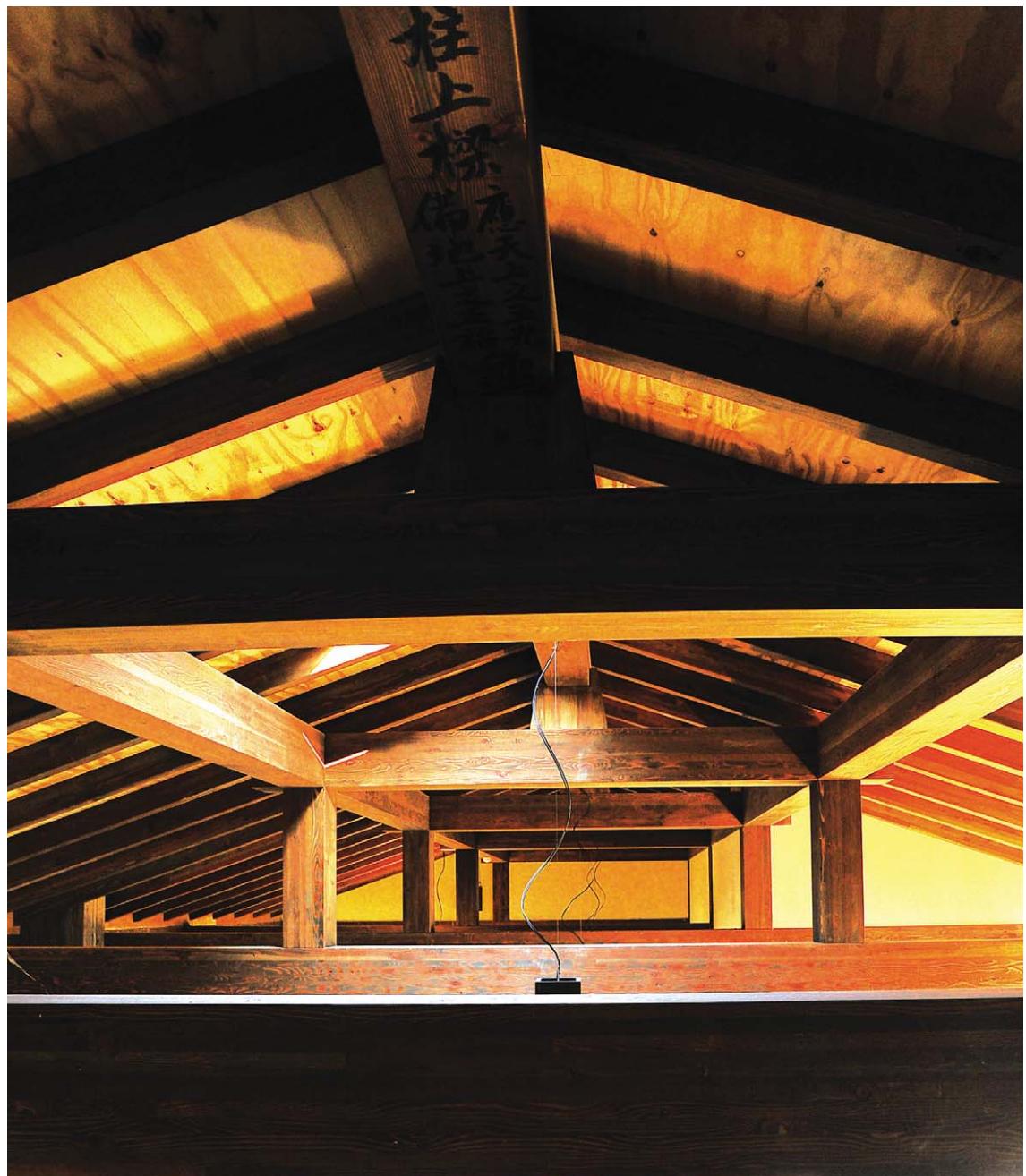
평창동 내촌목공소 한옥

이정섭 언어가 빛은 당당하고 우아한 집

글 유재형 미디어팀장 | 사진 장뤽 리(Jeanluc Lee)

평창동 사람들이 잘빠진 창고 같다고 말하는 집, 미로 같은 길을 타고 올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만나는 이 집의 정체는 '그리하여, 최고의 나무공간'이다.

평창동 내촌목공소 한옥은 통상적 개념의 한옥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버선코를 닦은 기와지붕의 선도, 비어 있어 채워진 마당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패한 한옥인가? 가쁜 숨이 좀 채 진정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전통한옥이 수식하는 특징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다. ‘내촌목공소 한옥’은 이정섭이 고안한 한옥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존 한옥에 대한 개선과 진화의 여지가 목수 이정섭의 손을 타고 좀 더 구체화된 곳이다. 그래서 내촌목공소 한옥은 여느 명문가의 집을 재현했다거나 이름난 대목장의 영향을 받은 집이 아니다. 이정섭 고유의 것, 그가 ‘현대적 한옥은 이런 모습이다’ 하여 주석을 단 집의 모습이다. 때문에 내촌목공소의 한옥은 독창적이지만 낯설다. 대목과 소목 구분 없이 하나의 개념으로 짜맞출한 집이기 때문이다. 기와를 얹거나 화려한 보아지 장식도

만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가벼운 지붕이다. 기와를 쓰지 않은 집을 두고 한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의도적인 생략은 그의 가구처럼 버리는 것에서 참뜻을 찾는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의종이 가벼운 지붕을 구조하는 데 으뜸이 무엇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 마을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좋은 것이 나무 속 껍질을 벗겨 여러 겹 겹쳐 만드는 지붕이라고 답했다. 사실 기와가 한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순 없다. 국왕이 선택하고 장려했다는 이유로 한옥 위에 굴피와 너외를 올리는 일은 널리 보급되고 장려되었다. 후대 기



과감하게 생략했다. 철저하게 현대인의 쓰임에 맞게 조각된 집, 그러나 기둥과 보가 주는 당당한 골조는 그대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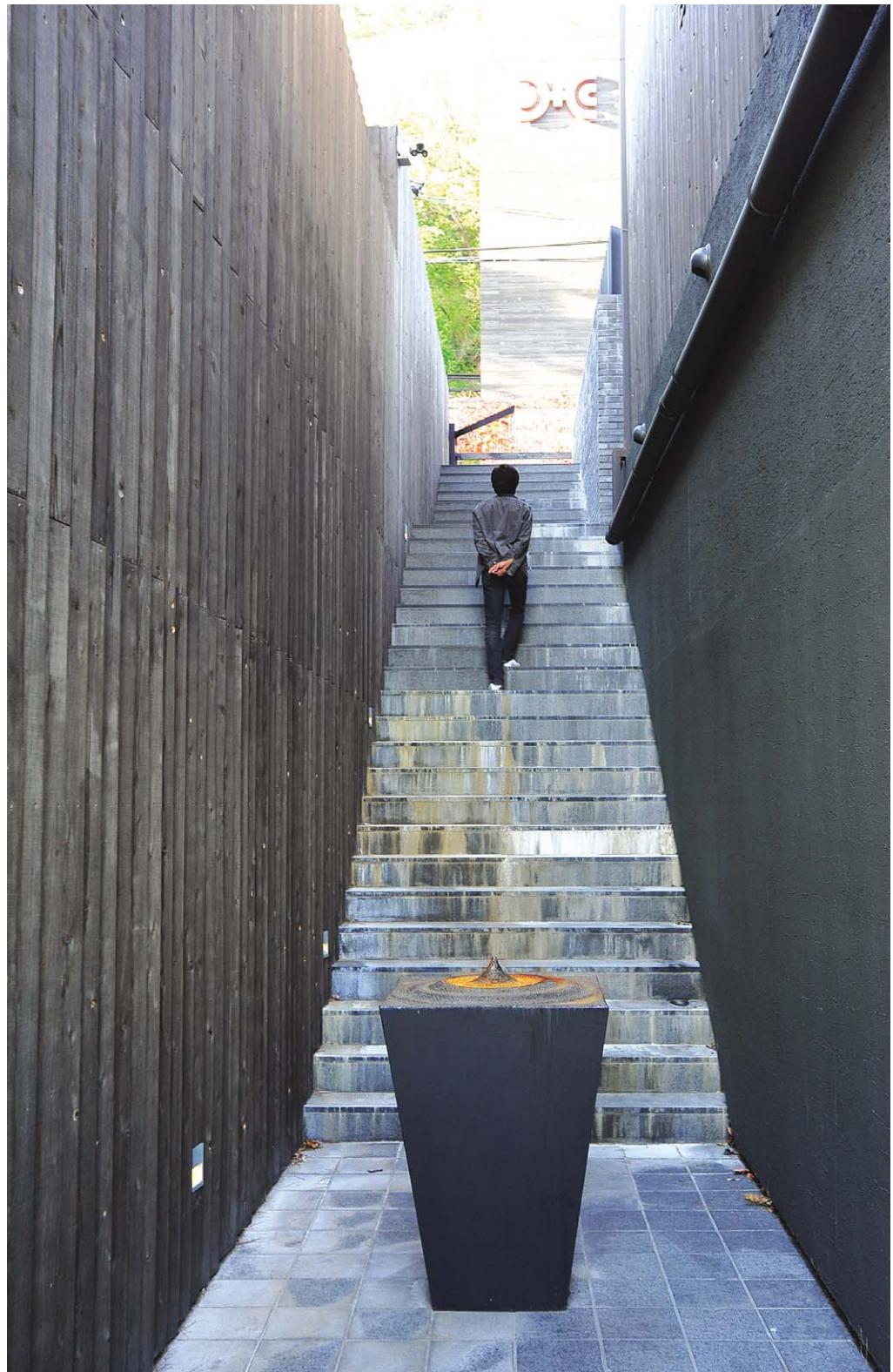
한옥은 정신과 시대를 담은 집

‘대목 이정섭’ 역시 낯설다. 2002년 세상에 선보인 이정섭의 가구 스타일은 ‘디자인 없는 디자인’이었다. 기능적이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소목의 작업은 집짓기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간략한 오늘날 한옥주택 모티브를 너와집에서 찾았고, 날렵하고 가벼운 몸체에서 한국적 미감을 얻었다. 평창동 주택을

와지붕에 용마름이 권위의 상징처럼 여겨졌듯이 백두산 지역 전통가옥에는 말쑥한 너와지붕에 용마름이 올라선 채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고 있다. 내촌목공소 한옥 역시 동시대의 최신 공법과 검증된 자재를 채택한 경우다.

내촌 목공소 한옥은 전통한옥과 비교하면 경제적인 건축이다. 그러나 품질을 개선하고자 창호와 단열재를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프랑스산 지붕패널, 미국 혹은 뉴질랜드산 단열재, 독일 제조의 시스템 창호도 이정섭 식 한옥에는 단골이다.

“박공지붕을 적용한 이유는 오랜 인류 역사가 검증한



가장 완벽한 지붕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건축을 시작한 덕분에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집을 고민해 왔습니다.”

목수 이정섭에게 한옥은 어떤 개념일까. 그는 시대에 따라 부단히 변하는 삶의 여러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한옥의 개념이라 설명한다. 이 속에는 문화와 사상과 환경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옥은 재료나 형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건축주 부부는 우연히 강원도를 여행하다가 마음을 사로잡는 건물 한 채를 발견했다. 〈우드플래닛〉 창간호에 소개된 흥천 소재 내촌목공소 한옥이었다. 부부는 무슨 작심이라도 한 듯 이 집에서 하루만 머물다가 해달라고 청했다. 이정섭 목수는 흔쾌히 수락했고, 다음 날 아침 이들 부부에게서 이곳을 맑은 집 한 채를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응하고 보니 땅 보러 다니는 일부터 이 목수의 뜻이었다. 설계도 당연지사. 북한산 산세와 어울리는 집을



북한산 품에 안긴 집의 통창을 타고 북한산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산 속의 집, 그리하여 평창동주택의 처음 이름은 산간한옥이었다.

“기와지붕의 선을 따오거나 옛날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통의 계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한국인이며 이 땅에 지어지는 집이며 거기에 저의 정신과 우리 삶의 양식이 담겨있다면 그 자체로 한옥의 정체성은 생긴다고 봅니다.”

생각하는 손, 이정섭의 건축

평창동 내촌목공소 한옥은 다층 목구조이다.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구조 위 집을 헐고 2층 목구조를 신축했다. 무엇보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골조를 살피자면 팀버프레임 주택이 연상된다.

그려나갔다. 그래서 처음 이름을 평창 산간한옥이라 명명했다. 이어 나무를 다루는 최초 치목작업에서부터 최종마감 공정까지 세심하고 꾸준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산허리 경사면에 지어지는 집이라 철저한 보완이 필요했다. 안전진단, 설계 검증과 보완은 디엠피 건축의 황철호 건축사가 담당했다.

“처음 구상은 미술관과 주거를 결합한 목재 구조 건축이었습니다. 기존에 짓던 ‘살림집’과는 다른 구성과 스케일을 적용한 겹집 구조로 지었고요. 건축 디자인뿐 아니라 공간 내부 조명, 가구까지 이어지는 토탈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부터 2층 부부공간에 마련된 작업실과 침실, 욕실

1년 4개월간 작업 끝에 내촌목공소가 지은 또 하나의 한옥이 들어섰다. 북악산 스카이라인이 한가득 창을 채우고, 안산 줄기 가장자리에 여의도 전경이 펼쳐지는 곳, 이 산간한옥은 서울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담아 내기에 충분한 배포를 가졌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당당하고 우아한 집이라는 화두를 건축주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내촌목공소 류의 집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서 기본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건축주는 이정섭 목수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 이 신뢰의 바탕에는 그 간 목수 이정섭이 다져온 예술적 성취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이가

간에 들면 누구든 ‘편안하다’고 말하게 된다. 이 집에 왔을 때 불편한 무엇을 찾아보려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인에게 적당한 집, 그런 면에서 이곳은 ‘한옥’이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오래 머무는 객이 되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글쎄요. 동시대의 한국인이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읽은 것이 아닐까요?”라는 답변이 오고 갔다. 그리고 “나무집이기 때문”, 이라는 대목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무릎을 쳤다.

그는 흙, 돌, 나무 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고집하는 목수가 아니다. 아니, 이정섭은 오히려 싫어하는 쪽이다. 가능하면 자연의 재료 중 좋은 것을 찾아 쓰는 것은 맞지만 전례 양식을 따르고자 에너지를 과도하게



지하 서재

지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신뢰. 흥천 내촌 한옥은 충분한 유혹의 크기를 가졌고, 문학을 전공한 건축주는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문법을 바르게 읽어냈다. “따뜻한 집, 비가 새지 않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기본적인 요건 외에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사용량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평창동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만으로 별 무리 없이 휘젓기를 날 수 있도록 시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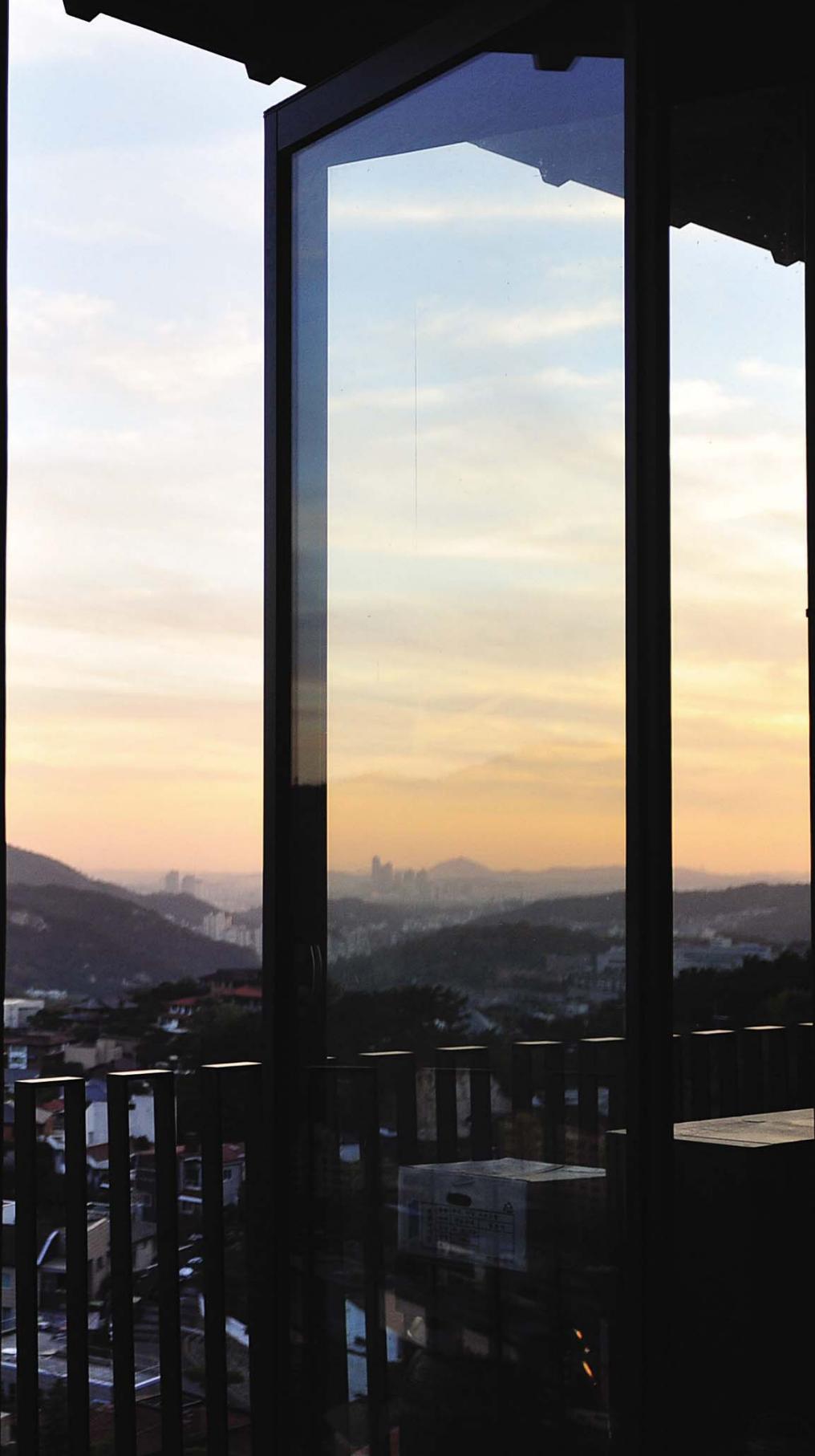
대목 이정섭은 ‘집다운 집’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DNA로 풀이하고 있다. 머무는 곳이 체질과 맞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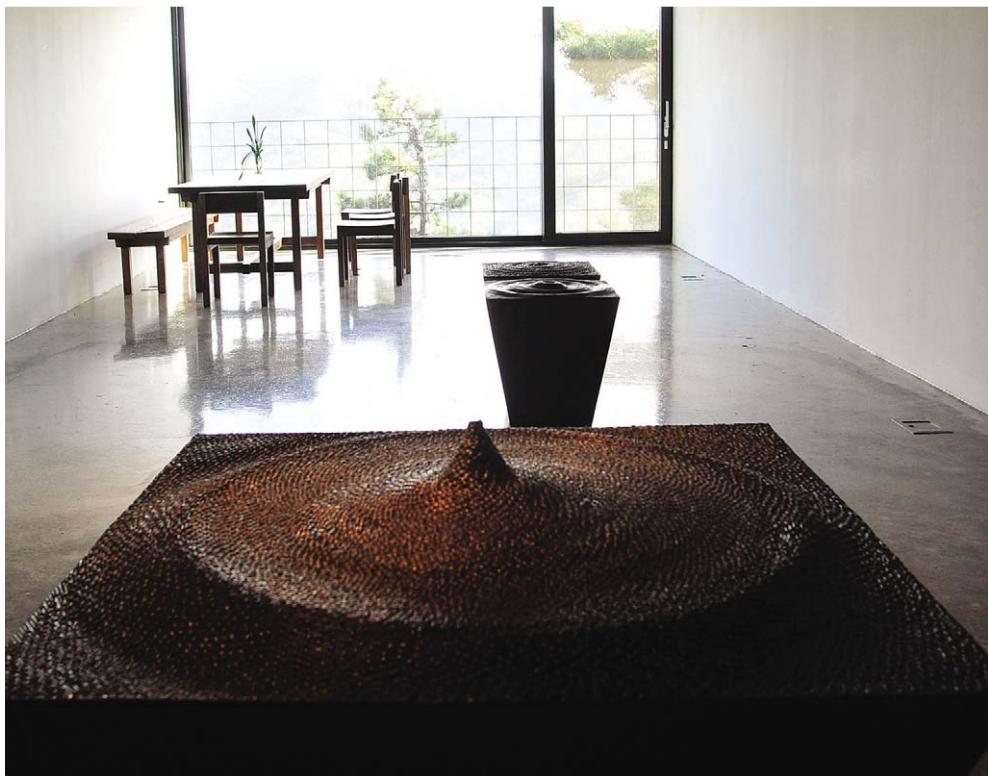
소비하는 집은 사양한다. 다양한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쪽에서 건강한 집을 짓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령, 나무의 단열 값은 콘크리트의 일곱 배에 달한다. 하지만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스무 배가 넘는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는 열린 것이 된다.

자연을 닮아 존엄한 나무건축

평창동 주택의 전체 폭은 30m에 이른다. 열한 개의 종보를 머리에 인 희랑을 닮은 복도가 시원하게 뻗어 있다. 대들보는 고사하고 보 기둥에 쓰일 부재조차 구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할 방도가 글루램이다. 건축 프레임을 이루는 기둥과 보, 도리에는 소나무와 전나무, 가문비나무가 쓰였다. 경민산업에 의뢰해 이곳으로 옮겨와 수직 벽체를 세웠다. 글루램 방식은 강도면에서 뛰어나 평창동 주택과 같은 다층

조망하고, 부엌 쪽 작은 창을 통해 사시사철 살아 움직이는 북한산의 미세한 변화조차 전해진다. 밸코니에 나서면 경량의 목구조와 구분되는 우아한 목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우아한 집’에 대한 고민은 설계 단계에서 해결된



지하층 디자인콘셉트는 ‘복도’ 가 돋보이는 갤러리다. 문학을 전공한 건축주 부부는 이곳에 자연과 조화로운 예술공간을 마련했다.

중목구조에서도 안정적인 구조재 역할을 한다.

1층 출입구에 들어서면 남매의 생활공간이 나온다. 물푸레나무 집성계단을 오르면 부엌과 건축주 부부의 생활공간이 등장한다. 박공 아래 밸코니는 북악산을

셈이다. 이정섭 목수는 사실 ‘당당한 집’에 대한 요구는 자신 있었지만 ‘우아한 집’에 대한 고민이 따랐다고 농담처럼 고백했다. 강원도 산골에서 살고 있기에 우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스갯소리다. 수평부





왼쪽 사진 1층에서 핸드레일을 생략한 물푸레 계단을 타고 오르면 천장이 마련된 집성 목골보를 만날 수 있다. 이정섭 목수는 강원도 산간 너와집에서 디자인콘셉트를 찾았다.

재가 결구된 채 평창동 고급주택가 가장 큰머리에 목골건축의 위용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빔의 테넌이 기둥 장부를 물고 선 모습을 확인한 주민들은 탄성을 질렀다. 짜맞춤 방식으로 목재를 연결한 진정한 의미의 조립식 주택은 감동 그 자체였다.

2층 생활공간에는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이 놓였다. 횡부재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5m에 이른다. 가구식으로 방을 배열하는 전통방식과는 달리 가운데 복도가 높이는 구조라 공간 천장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친환경 합판으로 마감했다. 보와 도리 아래 천장 공간은 자연스레 다락방이 되었다. 복도 끝에는 오픈형 침실이 있다. 과감하게 문을 제거해 공간 전체에 주인공이 머무는 생활공간임을 강조한 듯 보인다. 서재는 합판처리 덕에 층고가 낮아져 안락함을 준다.

복도 반대편 부엌 공간에는 오크로 짠 이정섭의 식탁이 놓였다. 자작나무와 물푸레나무로 문과 주방가구를 제작했다. 일반 한옥과 비교해 “내촌목공소 한옥

에는 다양한 활엽수, 침엽수가 사용될 뿐 아니라 전통 방식의 목재 건축보다 더 많은 수량의 목재를 구조재, 내장재, 외장재 그리고 고정가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이정섭 목수의 설명이다.

또 좋은 나무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무겁고 물에 가라앉아 비싼 나무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 쓰이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볍고, 경제적인 나무도 많습니다. 우리 소나무가 최고라고 고집하는 일부 목수들과 이에 감상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은 세계의 다양한 목재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우러지는 집이 좋다

내촌목공소 한옥에 투입되는 모든 목재는 터짐과 뒤틀림이 적다. 목재건조률(함수율)이 12%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글루램 방식 채택도 터짐과 뒤틀림을 막는 묘수가 된다. 내장재로 쓰인 목재 중 호두나무가 눈에





전망창을 타고 자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건축주 가족의 삶을 담은 거실공간이다. 거실 한 쪽에는 김주환 작가의 미술작품이 벽을 장식하고 있다.

뛴다.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문 손잡이가 주인공이다. 이 문 잠금장치를 두고 특하는 냈느냐는 질문에 그저 웃고 미는 이정섭 목수는 “저는 집의 품질에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집의 외장은 일본산 삼나무 차지다. 철 마감을 거친 마감재는 검은 색조의 고급스러운 기운을 뿐이다. 흥천 내촌목공소 한옥에 사용한 결과 5년이 지나도 견고하고 은은한 잿빛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이 목수의 설명이다.

다시 지하층으로 내려간다.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지하공간은 갤러리와 작업실로 쓰인다. 미술과 음악을 전공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한쪽 넓은 공간이 갤러리다. 현재는 서울대 미대에서 이정섭 목수와 함께 수학한 김주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층 복도는 미술작품들과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복도 끝 전망창을 타고 북악산 일부가 들어온다. 이곳에서 이정섭 목수에게 다시 물었다. 가구 만드는 일하고 집 짓는 일의 차이를. 그는 “가구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건축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양단을 설명했다. 또 “가구는 단순하지만, 집의 디테일은 도면에 모두 끊기기가 어려워 현장

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쩌면 그의 감성은 가구 작업에 적합하지만 체질은 건축 쪽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공부하는 건축주의 아들이 마음껏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을 헤아리고, 강남 아파트에서만 생활해온 부부의 일상을 북한산 아래로 옮겨온 것도 자연과 어울리도록 건축주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부부에게 자연은 일부가 되었고, 오디오 볼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강사와 직원들을 식구로 맞아들였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총 다섯 세대가 내촌목공소 한옥 아래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건축가 김봉렬 한예종 교수가 정의한 ‘한옥은 한국인의 삶을 담은 집’ 속에서 바뀐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유와 집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건축주 아내는 흙이 보이니 자연스레 텃밭을 열었고, 남편은 계단 허리에 ‘山林貞舍’라는 글귀를 새겼다. 모든 게 즐거움의 일부다. ‘그리하여 곧은 나무를 타고 하늘을 향해 지어진 이 집도 마침내 땅으로 내렸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

遊園 ; 만인이 즐기는 뜰, 안양예술공원

글 유재형 미디어팀장 | 사진 남정우 | 자료 제공 (재)안양문화예술재단 AP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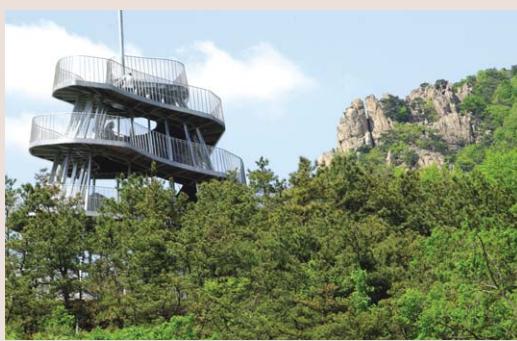
7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 속 안양유원지는 ‘호사’였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안양역에 당도할 때면 삼성천변으로 향하는 마이크로버스는 이미 북새통이었다. 1930년대 처음 풀장이 문을 연 이후 휴가철이면 하루 3~4만 여명이 찾았던 유명세는 시설이 낙후되면서 쇄락의 길을 걷다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건축과 재건축이 어려웠던 안양유원지의 풍경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1977년에 안양에서만 230명의 인명 피해를 낸 유례없는 홍수 때문이었다.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구조물들은 안양유원지의 자연경관을 망치는 계기가 되었고, 1986년 교통부는 안양유원지에 대한 국민관광지 지정을 취소했다. 다른 좋은 것이 많아진 지금도 서울 신촌에서 출발하는 5713번 버스 종점은 안양유원지다. 어느 햇빛 좋은 가을날, 버스에 몸을 싣는 청춘들의 손에는 DSLR카메라가 한대씩 들려있다.

이들이 안양유원지를 다시 찾는 이유는 2005년 이후 열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악산과 삼성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야외조각과 건축물 등 50개 작품은 ‘호사’의 개념을 예술로 바꾸어놓았다. 이 놀라운 반전은 공공디자인과 도시예술화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청춘의 걸음 속으로, APAP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다시 상상하기를 제안하는 공공예술을 담고 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2005년 개최된 이후 미술, 건축,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공간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망대〉

삼성산의 등고선을 연장하여 산의 높이를 확장한 전망대로, 추상적인 데이터를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시도해온 건축가 그룹이 제작했다. 삼성산 주변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강조하여 안양유원지(현 안양예술공원)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건축가는 산의 정상에 위치한 160 m² 규모의 지역을 나선형 길이 감싸며 올라가는 전망대를 제안했다. 등고선 두 개로 길의 윤곽을 결정한 전망대를 따라 오르면 안양시를 비롯한 안양예술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내부의 빈 공간은 전시를 열거나 공연 무대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객들은 전망대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건축스튜디오 MVRDV

MVRDV는 1991년 비니 마스, 야코프 판 레이스, 나탈리 드 프리스가 조직한 건축 스튜디오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기반을 두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들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법규, 에너지 효율, 기후 조건, 고객의 요구 등 건축물의 디자인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주변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13채의 가구를 서립을 빼듯이 돌출시킨 〈보조코 아파트〉(1997), 서로 다른 기능의 건축물을 하나로 결합시킨 독일 하노버 엑스포의 〈네덜란드 전시관〉(2000), 암스테르담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실로 담〉(2002) 등이 있다.



〈종이 뱀〉

종이접기 방식으로 구성한 뱀 모양의 구조물로, 어떤 면도 평행하지 않은 비대칭 나선형을 이룬다. 건축가는 숲 속으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별집 모양의 ‘페이퍼 허니콤’이라는 재료를 개발했다. 가볍고 강하면서 빛을 투과하는 이 재료는 3 mm 두께의 종이를 40 mm 두께의 FRP 패널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다.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원했던 건축가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200 mm 직경의 플라스틱 다발을 세운 후 그 위에 접착제로 패널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최상의 접착제를 찾는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켄고 쿠마는 20세기 건축을 ‘콘크리트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로 인해 건축이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됐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다. 쿠마는 한번 굳으면 되돌릴 수 없는 콘크리트의 특성이 역설적으로 20세기 사회의 불안감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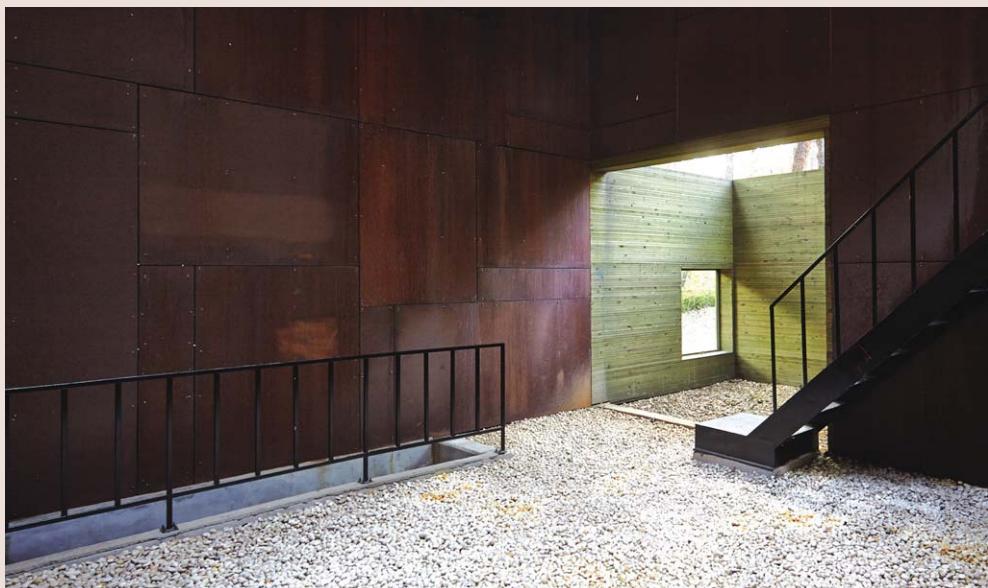
켄고 쿠마 Kengo Kuma

1964년 요코하마에서 출생한 켄고 쿠마는 도쿄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집합주택을 연구했다. 공간연구소를 설립하고 일본의 경제 호황과 더불어 다수의 건물을 설계했으며, 1990년에는 쿠마Kenzo 건축도시설계사무소를 개설해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대표적 건축물로는 〈FRAC 마르세이유〉(2012), 〈LVMH 오사카〉(2004), 〈JR 시부야역 리노베이션〉(2003), 〈그레이트(뱀부) 월〉(2002), 〈물/유리〉(1995)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건축가 승효상, 도미니크 폐로, 이종호 등과 함께 제주 〈롯데아트빌라스〉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대학교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4원소집(地, 水, 火, 風)〉

정육면체 모양의 중심 공간에 네 개의 작은 공간들을 연결한 건축물로,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각각의 공간은 자연의 기본 원소인 불, 물, 공기, 흙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붉은 흙과 소나무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부식 철판과 나무를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작가는 안양예술공원 이용자들에게 삽성산과 관악산의 경치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의 경계에 위치한 이 작은 건물이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앉아 고요 속에서 생각할 여유를 갖는 장소로 기능하기를 원했다. 작품은 ‘하늘 다락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네 개의 방 중 불을 상징하는 방에는 노르웨이 작가 존 로저 홀트가 콘크리트로 만든 향로 〈평온〉이 있다. 주요 재료로는 철골·콘크리트 구조, 코르텐 강판, 목재가 쓰였다.



사미 린탈라 Sami Rintala

건축가, 1969년 هل싱키에서 출생한 사미 린탈라는 هل싱키기술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건축가이자 예술가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농부들이 버린 헛간에 다리를 달아 십 미터 높이의 공중에 띄운 〈랜드(이)스케이프〉(1999)와 2000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에 초대 받아 베니스에서 나온 폐기물을 오래된 배에 채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했던 〈식스티 미뉴트 맨〉(2000) 등이 있다. 2008년 이후 린탈라는 아이슬란드 건축가 다구르 이게트슨과 건축사무소를 설립해 현재까지 노르웨이의 오슬로와 보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용의 꼬리〉

이승택은 삼성산 중턱에 기와를 소재로 목구조 작품을 제작했다. 숲 속 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이 작품은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이 땅 속에 파묻혀 그 일부만이 지면 위로 드러난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작가는 삼성산을 하나의 큰 용으로 파악하고, 기와로 용의 꼬리를 쌓아 끊긴 능선을 이어주고자 했다. 완만한 곡선으로 솟은 ‘용의 꼬리’는 산의 능선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고, 작품에 사용한 천오백 여 장의 기와는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전설 속 동물의 비늘을 연상하게 한다. 전통적 소재에 주목해온 작가가 작품에 기와를 도입한 것은 미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기실 바닥에서 소조 진흙으로 만든 기와를 시작으로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하여 올림픽공원, 일본의 에치고-츠마리 지역 등에서 기와를 사용한 설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승택 Lee Seung-Taek

1932년 함경도 고원에서 출생한 이승택은 흥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를 졸업했으며, 특정 장르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선보여왔다. 성곡미술관(서울, 2012), MIA미술관(서울, 200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서울, 1997), 토탈미술관(장흥, 1989), 관훈갤러리(서울, 1988)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은관문화훈장(문화체육관광부, 2013),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백남준아트센터, 2009), 보관문화훈장(대한민국정부, 2000)을 비롯하여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각목분수〉

삼성천 옆에 자리한 〈각목분수〉는 분수처럼 뿜어 나온 각목 위에서 체조 선수가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작품에 세 가지 이미지가 겹쳐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삼성천이 가지고 있는 ‘홍수’ 이미지고, 두 번째는 각목이 대표하는 ‘개발’과 ‘건설’ 이미지며, 이 둘 사이를 매개하거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 전달자 혹은 파괴자로서 체조 선수가 그 세 번째 이미지다. 작품의 하단부는 각목 다발이 더 이상 휘는 것을 막으려는 듯 굵은 끈으로 묶어 놓았고, 그 옆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표지가 서 있다. 이 개발제한구역 표지는 작가가 작품을 현 위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작품을 구성하는 개발과 홍수 그리고 조정자의 이미지는 작품이 위치한 안양예술공원의 지난 이야기에 내재해 있다.



고승욱 Koh Seung-Wook

1968년 제주에서 출생한 고승욱은 흥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에서 2009년 까지 대안공간 풀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제도비평적인 작품을 선보인 첫 개인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관훈미술관, 1997)을 시작으로 소비자본주의와 공권력의 지배 하에서 펼하되는 일상의 몸, 노동, 기억, 생활, 여가에 담긴 가치와 정서에 주목해왔다. 〈돌과 깃〉(관훈갤러리, 2013), 〈말더듬〉(아트스페이스 풀, 2010), 〈삼각의 서〉(그문화갤러리, 2010), 〈레드 후라이드치킨〉(대안공간 풀, 2000) 등을 비롯해 수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발견〉

하천에 버려진 방갈로를 복원한 작품으로, 모든 장소가 가진 나름의 역사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작가는 현장 답사 중에 이 방갈로를 발견하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한 후 흙으로 쌓은 단 위에 옮기는 작업을 제안했다. 그는 기획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방갈로 본연의 미학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존 작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수 차례의 의견 교환 끝에 오래 전 삼성천 주변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했을 법한 방갈로는 마치 고고학적 유물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복원되어 콘크리트로 만든 단 위에 놓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이 방갈로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폐건물이 아니라 안양예술공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유적으로 변모하기를 바랬다.



장-뤽 빌무트 Jean-Luc Vilmouth

1962년 프랑스 크로이츠발트에서 출생한 장-뤽 빌무트는 메조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애초의 맥락에서 벗어난 새로운 환경에 위치시켜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빌라두파크 현대미술센터(안느마스, 2007), 갤러리 안느비달(파리, 2006), 카르키손성(카르키손, 200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소성 · 비장소성〉

헬렌 박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기획팀으로부터 제안 받은 장소는 APAP 투어 코스가 일단락되는 경사진 대지였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가는 이곳에 휴식공간이자 정원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만들고자 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직육면체를 비스듬히 겹쳐서 공간을 구획했으며,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던 기존의 나무는 그대로 두었다. 모든 벽은 루버(louver, 폭이 좁은 판을 비스듬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열한 것) 공법으로 시공하여, 관람자가 서 있는 높이에 따라 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달리 했다. 대지의 경사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안쪽 직육면체 공간에는 평평한 플랫폼을 설치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플랫폼에는 계단식 단을 설치해 그 위에 올라서면 시야의 방해 없이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모두를 통해 건축가는 조경과 건축물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물, 즉 자연과 구조물 자체를 조망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헬렌 박 Helen Ju-Hyun Park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헬렌 박(박헬렌주현)은 하버드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동 대학의 건축대학원에 진학하여 건축학 석사와 조경학 석사를 수여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건축사무소 L.A.R.S를 공동 설립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DOK 미디어센터〉(서울, 2005), 〈그리팅 가든/비전 빌리지〉(여주, 2004), 〈덕성여자대학교 외국인 교수 숙소〉(서울, 2003), 〈삼현여자고등학교 교사/생활관〉(진주, 1999/2000), 〈우리마을〉(강화도, 1999) 등이 있다. 한국목조건축대전 본상(2003), 미국건축가협회 최우수작품상(1999)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기졌다.



〈그림자 호수〉

그림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소설 같은 병풍으로, 작가의 대표작인 〈피톤의 호수〉를 비단에 먹으로 그리는 대신 알루미늄 판에 새겨서 완성한 작품이다. 〈그림자 호수〉 속의 이야기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했던 로버트 피톤이 스물 여섯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사료로 사용한 사건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이 기괴한 사건에 발레 〈백조의 호수〉, 영화 〈엘리펀트 맨〉, TV 시리즈 〈트윈 픽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흰 코끼리 같은 언덕〉, 팝송 〈Jennie's Got a Gun〉, 살바도르 달리의 〈코끼리를 비추는 백조〉 등의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교차시키며 사라진 여성들의 행방을 찾는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담은 병풍을 안양에 설치하며 ‘낙원’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에서 여성들이 평안을 얻기를 바랬다.



박윤영 Park Yoon-Young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박윤영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서울과 캐나다 밴쿠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붉은 물고기가 강 위로〉(동인아트센터, 2010), 〈익슬란 스탑〉(아리리오갤러리, 2007), 〈피톤의 호수〉(인사미술공간, 2005), 〈로고산수〉(브레이인팩토리, 2003)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2009년에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양 사원〉

기존의 나무를 인도네시아의 대나무로 둘러싼 돔 형태의 구조물로, 인도네시아 건축가 에코 프라워토의 작품이다. 자연과 인간을 더 긴밀하게 연결시키길 원하는 프라워토는 지푸라기, 대나무, 코코넛 나무 등 주로 인도네시아의 자연에서 선택한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만들어왔다. 특히 대자연에서 인간은 단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보는 건축가에게 대나무는 일시성을 상징하는 재료로서 2000년부터 그의 건축적 설치 작품에 지속적으로 사용됐다. 삼성산 숲 속에 자리한 〈안양 사원〉은 대나무가 모여 봉긋하게 솟은 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프라워토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데,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에서 산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축을 의미한다. 건축가는 2006년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대나무를 사용해 백삼십 채의 주거지를 만든 바 있다.



에코 프라워토 Eko Prawoto

1968년 푸와레자에서 출생한 그는 인도네시아의 기자미디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한 후 암스테르담의 베를리헤인스티튜트에서 건축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건축가이다. 건축과 미술 두 영역에 걸쳐 활동하며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익숙하고 평범한 장소를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시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구조물을 만들어왔다. 2006년에는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니비칸 미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푸라기, 대나무, 코코넛 나무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로 짧은 시간 동안 지진에 강한 주거지를 완성함으로써 아기킨건축상의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인도네시아 옥아카르타에 위치한 대안공간 〈체메티아트하우스〉가 있다.



〈안양 파빌리온〉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축가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가 카를루스 카스타네이라, 한국 건축가 김준성과 함께 설계한 건축물로 예술공원로를 접한 긴 대지 위에 관악산을 배경으로 나지막이 자리잡고 있다. 회백색의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단순하고 유연하게 뻗어나간 파빌리온의 내부는 웨구조가 다양한 곡면을 이루며 만들 어낸 단일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최소의 간접 조명을 사용하여 대지가 가지 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본연의 건축적 어휘를 드러낸다. 4회 APAP는 〈알바루시자홀〉로 불리던 이 건축물을 애초에 건축가가 제안했던 〈안양파빌리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도서관, 만들자연구실을 연중 운영하는 APAP의 허브로서 재기획했다. 파빌리온의 내부 공간은 초청공모전과 시민 투표를 통해 당선 된 신혜원 건축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 Alvaro Siza Vieira

20세기와 21세기 건축을 잇는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루 시자 비에이라는 1933년 포르투 근처의 작은 마을 미로지뉴스에서 태어났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포르투 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스위스 로잔폴리테크닉 대학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표작으로는 〈세할베스 현대 미술관〉, 〈아베이루 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안양파빌리온〉을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크리에이티브 파워하우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등을 설계한 바 있다. 1992년 프리츠카상을 비롯하여 2002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건축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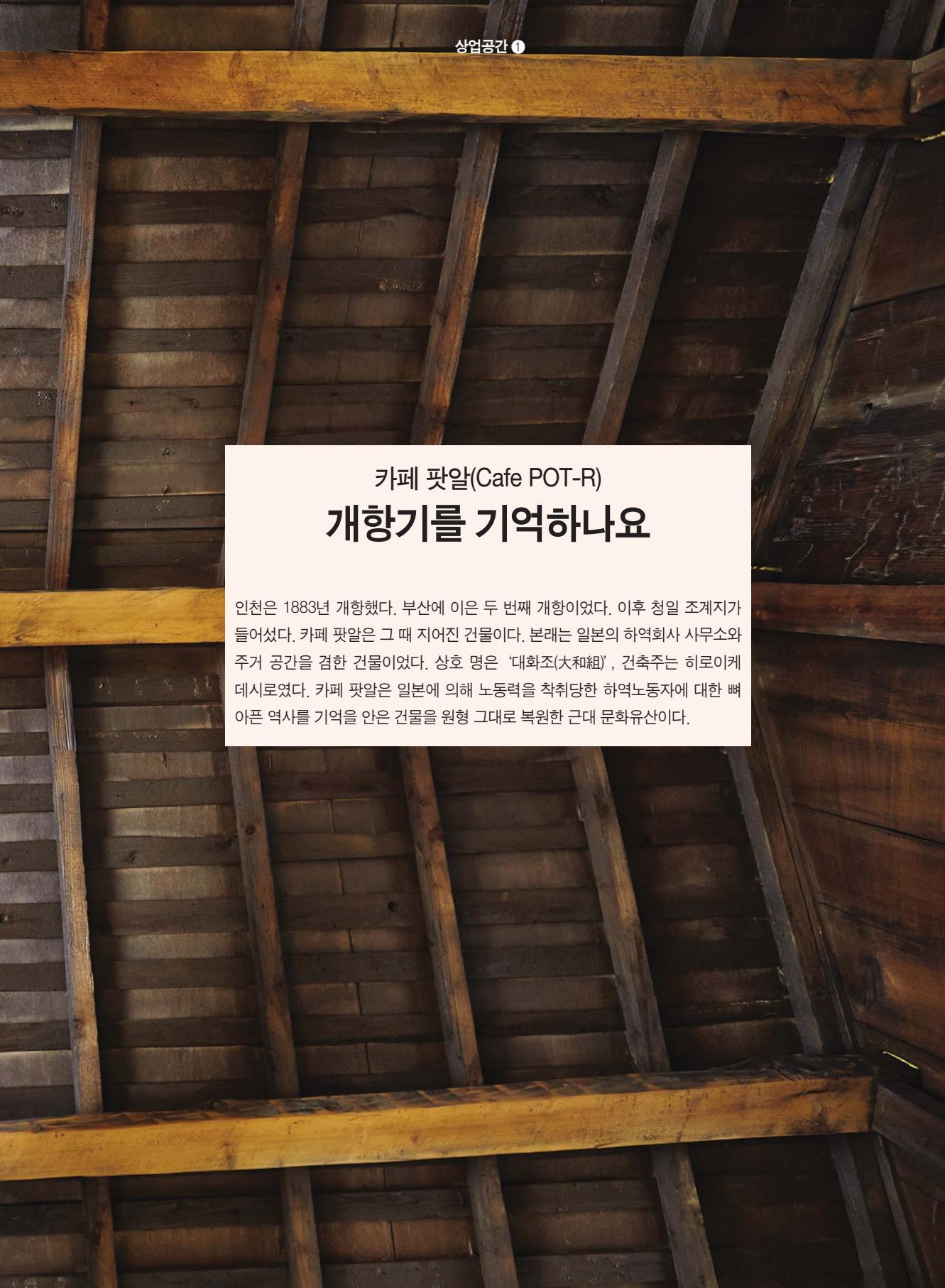
목구조 천장이 근사한 식음료 공간

글 서주원 기자 | 사진 남정우

만일 건축 재료들로 온기의 순서를 매긴다면, 그 중 선두는 단연 나무일테다. 인테리어에 깃든 목재는 공간에 친근하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다. 공간 인테리어 중에서도 특히 천장은 공간의 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다. 목재 구조부를 그대로 노출시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고 실용성까지 갖춘 공간들을 찾아가 봤다.







카페 팟알(Cafe POT-R) 개항기를 기억하나요

인천은 1883년 개항했다. 부산에 이은 두 번째 개항이었다. 이후 청일 조계지가 들어섰다. 카페 팟알은 그 때 지어진 건물이다. 본래는 일본의 하역회사 사무소와 주거 공간을 겸한 건물이었다. 상호 명은 ‘대화조(大和組)’, 건축주는 히로이케 데시로였다. 카페 팟알은 일본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한 하역노동자에 대한 뼈 아픈 역사를 기억을 안은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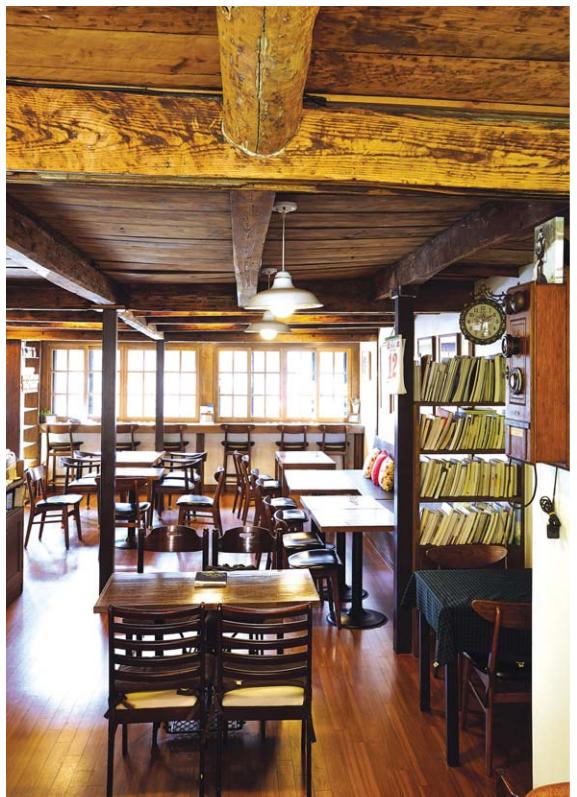
유일무이함의 가치

카페 팻알은 1880년대 말~1890년대 초에 지어진 걸로 추정된다. 용도는 일본의 점포겸용 주택이었다. 카페 팻알은 '마찌야(町家)'라는 일본의 건축 양식을 따랐다. 마찌야 양식은 19세기 일본 교토 상점가에 많이 활용된 양식이었다. 인천 조계지에 마찌야 양식이 보존되어 있는 근대 건축은 카페 팻알이 유일하다. 카페 팻알은 3층짜리 건물로 1층은 하역회사 사무소, 2·3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 팻알의 백영임 대표는 개항기 일본식 목조주택을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역사가 증명하는 외세의 잔재들을 보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 대표가 복원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공사 과정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한 이유다. 카페 팻알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이기에 문화재위원회들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됐다.



박물관이 숨 쉬는 카페

카페 팻알의 독특한 특징은 공간 활용에서도 드러난다. 이곳은 역사적인 건축이니 만큼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백 대표는 이 곳을 한 번 방문하고 끝낼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찾는 상업 시설로 탈바꿈시켰다. 카페 팻알은 상업 시설로 활용되는 문화유산으로도 유일한 공간이다. 카페 팻알은 문화재 활용 우수사례로 꼽힌다. 그래서 메뉴에도 나름의 역사적 정체성이 있다. 카페 팻알은 120년 전부터 존재했던 근대 유산, 그리고 개항 도시라는 지리적 위치에 어울리는 메뉴를 선보인다. 일본인이 예전부터 즐겨 먹었다는 팔빙수와 팔죽, 그리고 나가사키 카



스테라는 카페 팟알의 대표 메뉴들이다.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대화조에서 하역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노인은 카페 팟알을 찾아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의 맛을 음미한다고 한다.

◎ 카페 팟알 공간 디자이너 오장연(굿하우스) 대표

- 마찌야 양식은 무엇이며 대화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카페로 꾸며졌는가
“120년 전 건축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되, 현재 사용하는 데에도 기능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건축주와 나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1880년대에 촬영한 지금의 인천 중구청 앞길 사진과 19세기 마찌야의 입면 형태를 참고해 시공했다. 입면에서 마찌야의 건축적인 특징을 되살린 부분은 크게 세 군데다. 먼저 첫 번째는 지붕이다. 나중에 덧대어진 2층의 테라스를 철거하고 눈썹지붕을 설치했다. 지붕은 일식기와와 가장 비슷한 검은 금속기와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1층 목재 격자 방 범창이다. 이 외부 격자창은 마찌야 양식 주택 입면의 핵심 요소다. 이 격자창은 통풍과 채광의 기능은 물론,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면서 실내에서는 밖을 잘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블라인드의 구실을 한다. 격자의 간격이나 형태 구성을 마찌야의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 만들었다. 세 번째는 외장재로 목재 사이딩을 사용한 것이다. 마찌야 양식에 활용된 외장재는 요즘 전원주택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딩보다 훨씬 넓은 폭의 목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폭이 가장 넓은 베벨사이딩재를 활용했다. 수종은 북미산 적삼목이다.



- 목구조 천장을 노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카페 팟알은 120년 된 일본 목조주택을 복원한 건축물이다. 이 카페를 찾는 이들은 당연히 집의 오랜 내력을 드러내는 흔적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다. 카페 팟알의 천장 구조부는 그 세월의 흔적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 팟알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판단했다. 건물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는 목재 천장 구조부를 노출해서 공간에 시간성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2층의 경우 천장이 낮게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덜어 내고 천장 하부를 바로 노출시켰다. 1층과 3층도 기존의 목구조 천장을 그대로 활용해 일본의 목조주택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목재 천장이 주는 느낌에 맞게 카페 1층에도 마루 바닥재를 시공했다. 2층과 3층의 계단과 마루는 그 시절의 것이다. Ⓜ



디자이너	오장연
시공	굿하우스
연락처	goodhaus.com
건축주	백영임
위치	인천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96-2
면적	221 m ²
마감재	북미산 적삼목(외장재), 미송 원목(창호재), 금속기와 등





스탠다드 커피바 맛과 멋의 표준

카페 참 많다. 언젠가부터 많아졌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다.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카페가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들어서 있는 것쯤이야 이젠 놀랍지도 않다. 카페가 백 개라면, 운영에 대한 고민도 백가지 일 테다. 그러나 그 깊이의 정도가 모두 같을 순 없을 터. 스탠다드 커피바도 고민을 안고 출발했다. 시작부터 깊게 고민했다. 깊이가 깊을수록 철학도 남다른 법이다.



낡고 오래된 것의 매력

스탠다드 커피바는 역삼1동에 위치한다. 2년 전만 해도 이 곳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었다. 호텔8월의 이빌상 대표는 호텔을 짓기 전 카페부터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는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해 본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자산은 20년이 넘은 해외생활을 통해 축적해 놓은 연륜 있는 경험이었다. 이 대표는 해외의 건축과 인테리어를 찾아다니며 보고 배운 것들을 카페 인테리어에 접목시켰다. 이 대표가 카페 인테리어에 담은 철학은 단지 모방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 대표는 물건을 한 번 사면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쓰는 독일인들의 생활방식, 빈티지한 멋이 살아 있는 유럽의 상업공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들어서면 생경한 느낌을 주는 콘셉트보다는 차라리,

새 것 같은 느낌은 없지만 언제든 한결 같은 공간 인테리어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칠이 벗겨진 앤티크 우드 도어, 못 자국이 선명한 천장의 고재, 세 월의 흔적이 역력한 나무 계단, 그리고 태국 등지에서 수입한 고재 창문이 공간 안에 서로 어우러져 있는 이유다.

고집이 일궈낸 기준

공간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맛에 대한 철학도 확고하다. 스탠다드 커피바는 '커피 맛의 표준'을 지향한다. 상호 명을 '스탠다드'로 지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메뉴에 큰 변동 없이, 처음에 중점을 둔 에스프레소 머신 위주의 메뉴를 일관적으로 고집해왔다. 최고의 맛을 지향하는 카페니까 라마르조꼬 머신을 사용할 거란 추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탠다드 커피바는 라마르조꼬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측에 속하는 미스트랄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라마르조꼬로 내린 아메리카노 맛을 봤다.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 산 원두가 블렌딩된 커피의 바디감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상호 명처럼 표준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맛있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풍미였다. 빈티지한 멋이 살아있는 인테리어와 나무로 된 가구들, 그리고 이 대표가 손수 모은 소품들은 이곳을 찾아와 커피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 스탠다드 커피바 이빌상 대표

- 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간 디자인을 직접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공사를 진행하는 다섯 달 동안 누구보다 더 오래 현장에 매달려 있었다. 테라스를 만들면서 카페 주변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다. 메타세콰이어는 십 미터 이상 되는 나무라서 심으려면 주변 교통 통제도 해야 하고 나무를 이동시킬 크레인도 빌려 와야 했다. 나무 몇 그루 심는데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 힘들었다. 하지만 손님이 테라스에 앉았을 때 나무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에겐 더 큰 보람이었다. 나무가 주는 싱그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어 보면 볼수록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 천장의 구조부를 노출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에는 목재 프레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카페가 많다. 천장의 목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생각했다. 이 곳은 원래 미용실이었던 자리였는데, 시공을 하면서 천장을 덜어내니 목구조가 보였다. 여기에 다른 고재 패널을 덧대 지금의 천장을 완성했다. ↗



시공	이빌상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18-17
시공기간	2011년 6월 ~ 2011년 11월



옥인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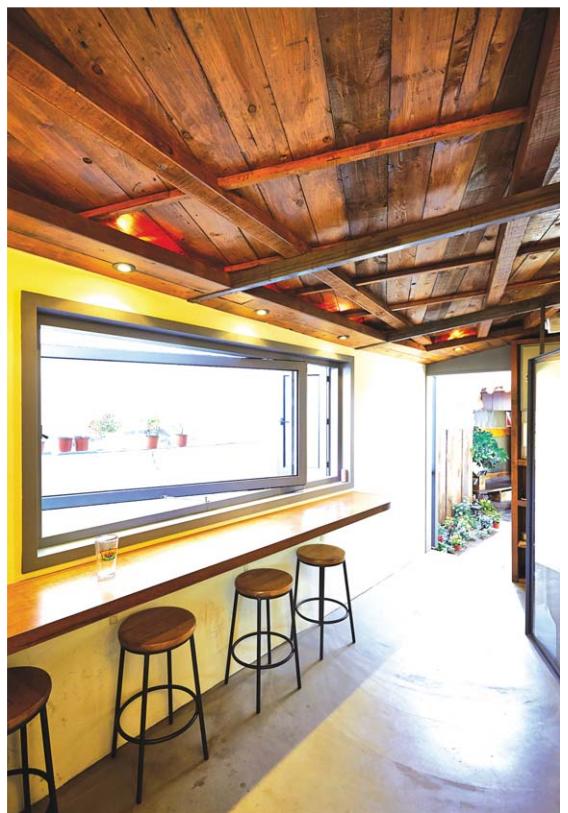
한옥에 스며든 달콤한 냄새

옥인동에 있는 피자 가게. 상호명만 들어도 그 의미를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단순명료한 조합을 위해 옥인피자의 노민호 대표는 두 달을 고민했다. 궁리 끝에 내린 결론은 담백하기 그지없었다. 특별한 수식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옥인피자’란 상호 명 만큼이나, 노 대표가 꾸미고 싶었던 공간도 소박하고 담백한, 화장기 없는 얼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어울림을 생각하는 옥인동 그 가게

‘핫 플레이스’ 보다는 ‘정감 있는 식당’, ‘레스토랑의 사장’ 보다는 ‘동네 가게 주인’. 옥인피자에 어울리는 수식어들이다. 종로구 옥인동에 위치한 이 피자가게는 도시적인 인테리어 대신 소박한 한옥의 모양새로 찾아드는 이들을 정답게 맞이한다. 옥인피자는 신혼부부가 운영한다. 지금은 만삭인 아내와 노 대표가 작년 여름에 이곳을 찾았을 땐 천장에서 흙이 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하자가 많은 상태였다. 대여섯 곳의 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공사가 어렵다며 대부분 거절을 당했다. 우연히 알게 된 디자인펌(designfirm)의 김영진 디자이너는 옥인동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던 지라 누구보다 노 대표의 마음을 잘 읽어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의 궁합이 맞았다. 옥인동에 살지는 않았지만 10년 넘게 이 동네를 관심 있게 지켜온 노 대표와 한옥 공사 경험이 풍부했던 김영진 디자이너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낡고 오래된 정취가 짙게 밴 이 곳 분위기에 맞춘 따뜻하고 정감어린 공간, 동네 골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였다.



동양과 서양의 공존

옥인피자는 골목 사이에 난 또다른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 옥인피자의 외관은 가게가 있는 골목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야 하는 손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목재로 마감한 외관은 이 곳에 들른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인상을 풍긴다. 자그마한 화분들이 놓여 있는 돌길을 따라 들어가면, 작은 공간 안에 나무 가구들이 고요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게의 천장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한옥 서까래와, 추가로 시공된 목구조로 마감되어 있다. 기존 한옥의 빼대가 가진 특유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목재 천장 구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나무 서까래는 새로 시공한 목재 패널과 불협화음 없이 공간에서 서로 잘 어우러진다.

● 옥인피자 공간 디자이너 김영진(디자인펌) 실장

- 전통적인 한옥 서까래와 모던한 목재 구조가 함께 어우러진 천장을 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천장 레벨을 조금 올렸더니 서까래가 보였다. 이 걸 다시 덮자니 아까웠고 그냥 두자니 서까래가 공간의 전체 분위기와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 점을 원화하고 포근한 공간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목재 천장을 추가로 시공했다.

- 낡은 한옥집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상업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니 만큼 낡은 집에 생기를 주려고 많이 노력했다. 옥인동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동네다. 조금만 소란해도 곧바로 민원 신고가 들어올 만큼 말이다. 그래서 주변 장소들과 비교했을 때 생경한 느낌 없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매우 낡은 상태였던 한옥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공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많이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처마선을 드러냈고 서까래를 노출시켰다. 출입구에 있는 대기 공간은 목재로 된 다른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게끔 고개를 이용해 꾸몄다. 출입구에서 식당으로 이어지는 석재도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고려해 시공한 것이다. Ⓜ



디자이너	김영진
시공처	designfirm
연락처	02-3789-2982
위치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55
면적	52.3m ²
미감재	Vintage Pine(바닥재, 천장구조부), Lauan(테이블) 벤자민 무어 페인트(외관미감재)



유니버셜 스페이스 오두막 판타지

글 서주원 기자 | 자료 제공 Gudmundur Jonsson

계획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이 건축은 오두막을 닮았다. 오솔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휴식공간의 정취를 듬뿍 담은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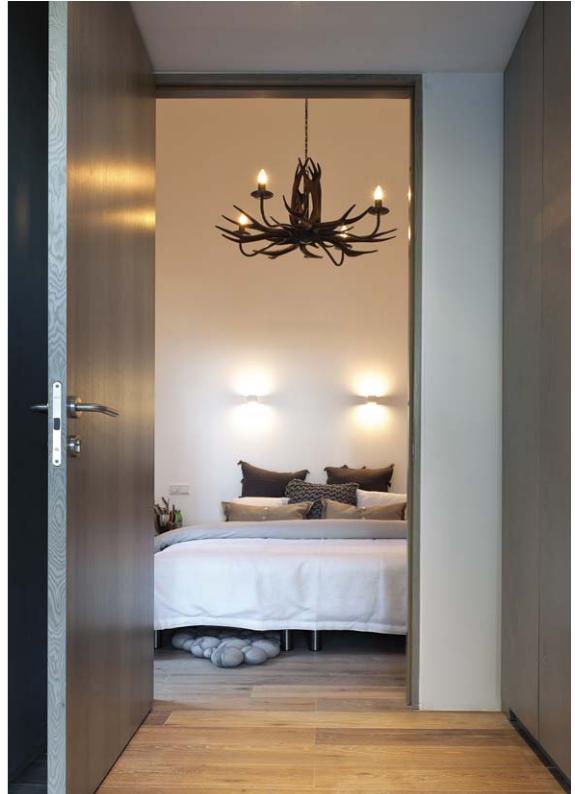
유니버설 스페이스(universal space)는 다목적 공간을 일컫는다. 건축 거장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제안했다. 그는 목적에 따라 건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건축을 지향했다. 다분히 기능주의적인 사고관이다. 노르웨이에 위치한 Modern Cabin GJ-9(이하 'GJ-9') 역시 공간의 다목적성을 내세운다. GJ-9은 그 쓰임새를 한정짓지 않는 건축이다.

고요한 숲속에 찾아든 캐빈

GJ-9은 노르웨이 항구도시 스타방에르(Stavanger) 인근에 위치한다. GJ-9의 정면엔 호수가, 후면엔 산이 자리해 있다. GJ-9은 숲 속의 흐젓한 정취와 어울리는 캐빈을 콘셉트로 시공됐다. 건축기는 도심 속 일상에선 접근하기 어려운 오두막집이란 공간의 특징을 건축에 접목시켰다. GJ-9은 자연에 내던져진 인간에게 대지의 경이로움을 감상할 수 있는 판타지적 공간감을 제공한다. 대지면적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공간 규모 역시도 캐빈의 그것과 닮았다. 공간과의 유기성을 위해 GJ-9의 외장재는 인공의 것 대신 자연과 가까운 물성을 지닌 재료를 택했다. GJ-9의











외관은 목재 사이딩재와 벽돌로 마감되어 있다. GJ-9은 도시적 모던함과 전원 생활의 아늑함이 공존하는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가족만을 위한 용도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실용성에 기반을 둔 이 공간은 주거라는 목적 외에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양방향성이 깃든 재료

건축은 낮 동안에는 자연광에 의지하고, 밤이 되면 인공적인 조명에 기대 존재감을 드러낸다. 통유리가 외관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GJ-9은 낮과 밤의 대비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건축 재료로써의 유리는 빛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외부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GJ-9의 외관을 장식하고 있는 통유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GJ-9은 공간 안의 모든 방향에서 외부의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자나 정원 건축, 서양식으로 표현하자면 파빌리온의 공간으로 비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간들은 공원이나 정원에 머물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GJ-9도 마찬가지다. GJ-9은 본래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동시에 파빌리온이 되어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충실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에 집중하다가도 시야만 돌리면 맑거나 흐린, 밝거나 어두운, 때로는 빨갛고 때로는 푸르기도 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사방으로 자연이 펼쳐지는 구조는 GJ-9의 또 다른 매력이다.

루프에서 발현되는 조형적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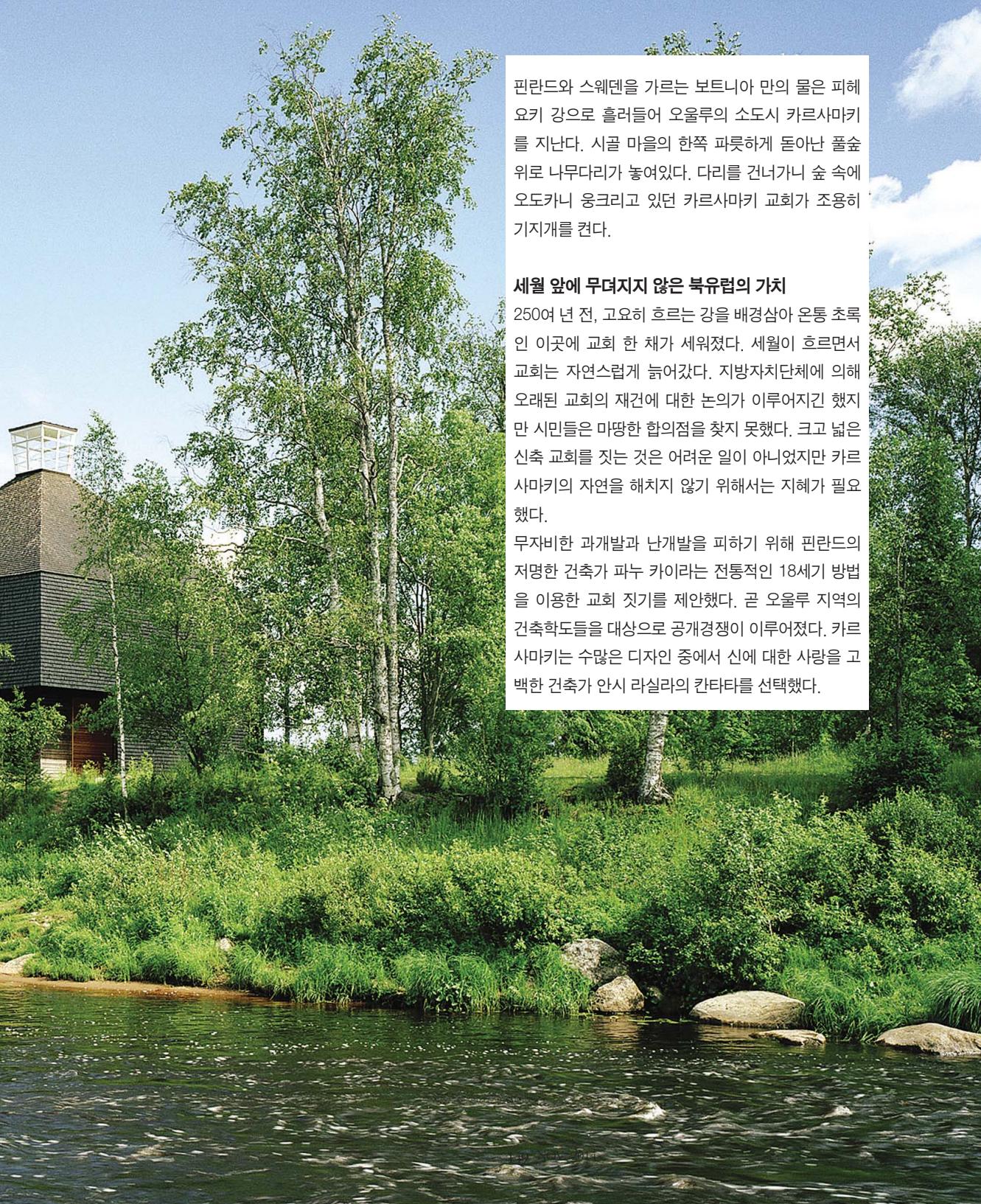
GJ-9의 또 다른 공간적 악센트는 바로 루프다. GJ-9의 루프는 실제 주거 공간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으로 설계 됐다. 이러한 구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건축주를 배려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천장의 사방으로 얼마간 길게 뻗어 있는 루프는 자연 광을 적절히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비 내리는 날에도 테라스에 앉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한옥의 처마가 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둘째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다. GJ-9의 루프는 건축에 디자인적인 생기를 불어넣는다. GJ-9은 형태적으로 굴곡 없이 설계된 건축이다. 자칫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건물에 대형 루프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건축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살렸다. 루프와 함께 목재 사이딩재로 마감된 지지대 부분은 전체적인 조화로움과 균형미를 더해준다. GJ-9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외관에 극적인 형태의 루프를 조합해 현대적인 조형미를 살린 건축이다. Ⓜ

사색이 필요할 때 우리는 카르사마키에 간다

글 박신혜 기자 | 자료 제공 OOPEAA

지어진 지 이제 갓 십 년이 된 카르사마키 교회는 사실 25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오래된 건축물이다.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 따윈 가볍게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난 비밀스런 공간을 들여다보자.





핀란드와 스웨덴을 가르는 보트니아 만의 물은 피해 요키 강으로 흘러들어 오울루의 소도시 카르사마키를 지난다. 시골 마을의 한쪽 파릇하게 돌아난 풀숲 위로 나무다리가 놓여있다. 다리를 건너가니 숲 속에 오도카니 웅크리고 있던 카르사마키 교회가 조용히 기지개를 켠다.

세월 앞에 무뎌지지 않은 복유럽의 가치

250여 년 전, 고요히 흐르는 강을 배경삼아 온통 초록인 이곳에 교회 한 채가 세워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늙어갔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오래된 교회의 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시민들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크고 넓은 신축 교회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카르사마키의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다.

무자비한 과개발과 난개발을 피하기 위해 핀란드의 저명한 건축가 파누 카이라는 전통적인 18세기 방법을 이용한 교회 짓기를 제안했다. 곧 오울루 지역의 건축학도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이 이루어졌다. 카르사마기는 수많은 디자인 중에서 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건축가 안시 라실라의 캉타타를 선택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뿐

교회의 구조는 소박하다. 기도를 위한 예배당과 갑옷처럼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외부 공간으로 나뉠 뿐이다.

외벽과 지붕은 근처 숲에서 가져온 사시나무로 덮었다. 내구성이 좋아 핀란드 전통 건축에 자주 사용되는 사시나무가 핀란드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숲의 0.3 퍼센트에 불과하다. 많이 분포하는 수종은 아니지만 활엽수로서는 자작나무, 오리나무와 함께 주요한 수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거목인 이 나무는 껍질이 희미한 연두색을 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희끗희끗하고 푸르스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물성의 나무를 타르에 담그니 그 가녀린 모양새가 모두 사라졌다. 사시나무를 쪼개고 깎아서 만든 5만 개의 널빤지들은 한 조각 한 조각 뜨거운 타르에 몸을 던진 후



건물을 감싸 안았다. 타르를 바른 나무는 본래의 생김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색과 균열을 드러냈다.

실내에는 가문비나무와 소나무를 사용했다. 길고 튼튼한 소나무의 몸통으로 건물의 구조를 세웠고 텁으로 자른 가문비나무로 천장과 바닥, 문을 만들었다. 가문비나무에는 타르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테레빈유를 발랐고 소나무에는 어떤 칠도 입히지 않았다. 자연에 노출된 소나무는 곧 회색으로 변했다.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보면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 서로 다른 처리를 한 세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하나의 평면 위에 놓여있는 듯 기묘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고도 믿



을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가 벌어진 공간을 확인하고 기어이 제 손으로 나뭇결을 만져 본 후에야 납득이 간다.

입구에 들어서면 어둑한 공간에서 한 줄기 빛이 순례자를 건물의 중심부로 이끈다. 안쪽으로 조금 이동하자 어느새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비추는 건물 중심부에 다다른다. 제단을 비롯해 이 곳에는 고정된 가구가 없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없으니 공간은 자꾸 움직인다. 사람들은 앉고 싶은 장소에 앉고 빛은 순례자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이동할 뿐이다.

과거로 짓는 현재, 미래가 되다

파누 카이라의 제안대로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을 이용하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던한 공간을 만드는 21세기 카르사마키 교회 재건의 기본 목표가 이루어졌다.

평방 200 제곱미터의 소박한 건축이었지만 전통 기법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건축 기술이 필요했다. 때문에 전통 기법에 대한 연구와 학습은 물론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영역의 디자이너들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는 건축 시공자들과의 릴레이 회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 결과 요즘 건축물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의 중심이 될 소나무는 오래된 제재소나 현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구조를 이루는 프레임은 날이 넓은 도끼로 베어 도끼, 톱, 끌과 같은 전통 수공구로 만든 나무 경첩으로 엮었다. 반 오백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카르사마키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교회는 광활한 숲에 매몰되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한 덩이 초처럼 의연하게 지나가는 이의 시선을 불잡는다. Ⓜ



〈런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공간디자인 스터디〉

런던의 공간을 엿보다

에디팅 서주원



상업 공간 취재를 나가다보면 취재원으로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공간을 꾸밀 때 외국의 인테리어를 참고 했더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커

피나 빵, 스테이크나 파스타가 메뉴에 빼진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식문화들이다. 카페나 베이커리, 레스토랑의 인테리어도 당연히 그 곳에서 먼저 발달되기 시작했다. “태양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솔로몬의 말처럼,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많이 참고하고 영감을 얻으려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업장에서 파는 메뉴가 외국 음식이라면, 그 음식 문화에 맞는 공간 디자인도 함께 어우러져야 할 터. 〈런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공간디자인 스터디〉(커뮤니케이션북스)는 해외 중에서도 특히 런던의 상업 공간 인테리어를 심도 있게 소개해주는 책이다.

공간에 대한 역사나 위치 등 개괄적인 설명은 물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현지 공간의 도면도 함께 제공한다.

〈런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공간디자인 스터디〉에서 소개하는 상업 공간은 런던의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베이커리다. 책에는 우선 오래된 건물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힌 참신한 공간들이 소개 되어 있다. 이파트에서는 기존의 건물을 리뉴얼하여 빈티지한 멋을 살린 공간들을 볼 수 있다. 커피를 파는 공간의 소개도 빠질 수 없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커피 맛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절제한 런던의 카페들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브랜드화 된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의 공간은 각각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섹션도 포함되어 있다. 〈런던 레스토

랑 카페 베이커리 공간디자인 스터디〉는 이 밖에도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각 공간들에서 판매중인 차별화 된 메뉴를 함께 독자들에게 알려 준다. 독자들은 〈런던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공간디자인 스터디〉를 통해 런던의 감각적인 상업 공간의 특징들을 낱낱이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까지 넓힐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ART & PEOPLE



조각가 김기로 집성 패턴이 그리는 유니크한 기억

글 유재형 미디어팀장 | 사진 장뤽 리(Jeanluc Lee)

바투, 단풍나무, 멀바우, 부ingga. 경춘선 기차가 지나는 마석 작업실에 나무가 퍼즐 조각처럼 누웠다. 어쩌면 사람으로 귀화한 한 그루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집성 이전의 나무조각들은 김기로 작가에게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달라고 보채는 듯 보였다.





그도 서울사람이었다. 분진이 일고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받아줄 집주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비닐 하우스에 세 들어 작업실을 냄 현재 만큼 마음 편한 날도 없었다. 에어 컨프레샤가 돌아간다. 진동이 일자 그의 어깨가 들썩인다. 조각난 예술흔을 집성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나, 김기로

김기로 작가는 인체를 제재로 하는 소조 작업으로 작가적 역량을 쌓아왔다. 조각가로서 처음 이름을 알린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작 역시 인체구상 조각이다. 사람이 탐구 대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성성에 대한 고민에 좀 더 치중할 뿐, 나머지는 나무에 대한 생각들로 채워졌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예술의 공통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이 가지지 못한 문양이 존재 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것과 구분된 특징이 있을까. 김기로 작가의 대답은 원초적이다. “나무”, 하고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이유다. “쇠”, “돌”, “흙”하고 불렀을 때 느끼지 못한 기운이 온몸을 따스하게 감싼다. 그의 선형적 경험은 나무와 물에서 비롯된다. 나고 자란 곳이 작업장이 있는 마석에서 멀지 않은 청평이다. 작가의 유년은 물안개와 물안개를 휘감은 나무로 채워졌다. 나무는 북한강의 정령처럼 여겨졌다. “파문(물결) 시리즈는 기억의 집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작업의 일종이라 볼 수 있어요. 가운데 목재심 부분을 파들어 갈 때면 오롯이 정제된 기억만이 남게 됩니다.”

나무 역시 스스로 기억을 가졌다. 여기에 사람의 것이 더해질 때 기억은 더욱 분명해지고 객관화된다. 멀바우, 부ingga, 바투 등 그가 작업에 이용하는 모든 나무들은 자연과 사람의 중첩된 기억을 담은 메모리인 셈이다.

그가 원목 계단재를 집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정된 경험들을 모아 더하는 것으로 이 기억은 초월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고단한 생활이지만, 나무를 모아 집성하고 깍고 새기고 다듬는 것으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김기로 작가는 이 대목에서 간접효과라는 단어를 꺼집어낸다. 공유하되 자신만의 상처를 파문처럼 새기는 것, 큰 물결이 작은 물결을 잡아먹지 않듯이 각 주체가 지닌 생각의 크기를 인정하는 것이 김기로 작업의 원칙이다. 경험은 파문을 넣지만 집성에 의지하며 위안을 얻으면서도, 하지만 객체가 가진 기억을 존중하는 법을 나무는 가르치고 있다.

집성목에서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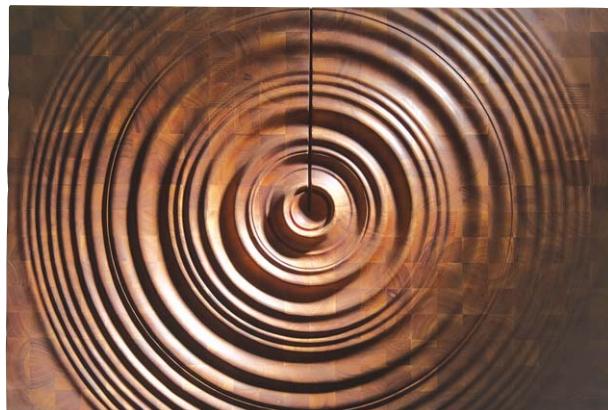
그는 현재 집성목을 재료로 자연성의 상징인 ‘물결’과 인위성의 상징인 ‘우산’이라는 형상을 조각하는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주로 계단재로 쓰이는 이 나무토막을 붙임으로써 안정적인 오브제를 완성했다. 숙성의 때를 기다려 다시 집성의 과정을 겪으며 나무는 원목보다 견고한 힘을 가지게 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현실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추는 물결을 시각화한다는 발상이 그것이다. 집성이 가져온 격자 안



파문 | 멀바우

에서 일정한 패턴을 그리는 물결문양 동심원은 내부로부터 외부를 향해 무한하게 확장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나무는 김기로 작가의 손을 타고 자유를 만났다. 수직적인 은유에 지나지 않던 나무의 상상력을 수평적으로, 그것도 무한궤도 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나무는 김기로 작가에게 예술가로 살아갈 힘이다. 과거 식물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작업실로 들어서면 뿌리가 그곳으로부터 뻗어 삶을 이루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을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이 내린 천형 같은 작업을 달게 감내하는 김기로 작가



파문2 | 참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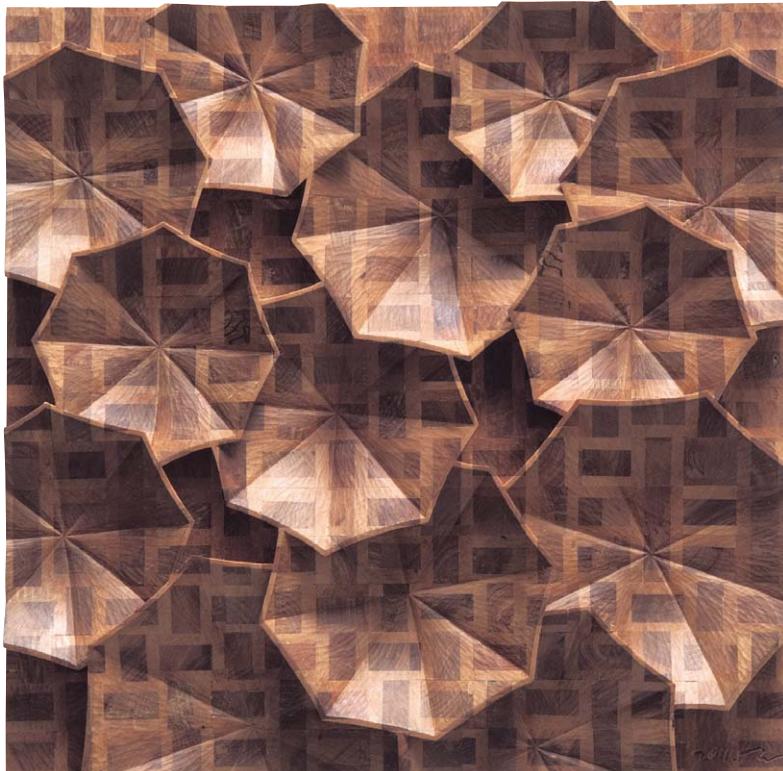
Raindrops 08 | 바투

는 나무를 수학하는 농부이다. 또 인생 전업을 이루는 나무의 예술가이다.

“나무 위에 파문을 새기는 이유는 공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라는 물성은 고물수제비 뜯 기억이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낙수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형상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공감과 목재라는 희귀의 언어를 조합한 것입니다.”

작가 그리고 아버지, 남편

2008년 이후 인사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 장은선갤러리 등지에서 매년 전시회를 가지던 그가 2012년 개인전을 마지막으로 소식을 끊었다. 강원대학교 미대 강의도 그만둔 채였다. 작가에게 슬럼프가 찾아온 것인가? 물었다. 김 작가가 웃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나무 소재는 슬럼프가 찾아오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원 살 전에 무엇인가 이루어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숙성을 시간을 타는 나무에게서 배웠습니다. 작가가 좋은 점은 스



Raindrops 05 | 침죽

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잘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홍익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한 그는 영화 소품제작 업체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마음의 파문을 그리는 동심원의 진원이 지적 갈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장 일을 접고, 2006년 강원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부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공부라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소재에 대한 공부와 연구 끝에 나무를 접했다. 작가라는 일상의 시간에 충실하고, 기행보다는 정상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채 먼 곳에 이르는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작품 활동도 마찬가지다. “일흔 살까지는 할 각오”로 보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

려고 보니 무엇에 쫓기듯 조급함에 사로잡혀 지내온 과거가 뚜렷이 보였다. 작가가 은폐해 온 시간으로부터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나무였다. 그 위에 새기는 ‘파문’ 시리즈는 작가 김기로의 작품 활동만이 아니라 인간 김기로를 새기는 성찰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세인의 평가보다는 잘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신항섭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의미있는 평가를 남겼다. “집성목의 연속적인 패턴은 현실성을 차단하는 도구가 된다.”, “차단된 현실, 즉 추상적인 공간 위에다 사실적인 이미지라는 조형의 집을 지어내는 것은 확실히 새로운 방식의 조형적인 경험이다.” 86학번 김기로 작가는 앞으로 열릴 20여 년 시간을 현실 속 예술의 주권자로서 아버지, 남편, 작가의 이름을 새겨나갈 계획이다. “파문 그리는 속도감이 기억을 잡아둔다는 것. 그래서 목재심 부분 같이 단단하게 중심이 선 모습을 표현하고자 해요. 2년 후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산 아래 그리운 얼굴들

그 앞에 서면 편안하다. 하지만 자신은 그 반대다. 김기로 작가는 어색함을 즐기는 부류이다. 활짝 웃는 것도, 사물과 시선을 마주하는 표정도 참 어색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어색함이 편하다. 어쩌면 작가는 어색한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로에 섰다’는 말이 있다. 결정 내리지 못한 이 어정쩡함이 그의 작품 소재가 된다. 김기로 작가의 다음 전시회 명은 ‘여럿기로’가 될 것이다. 한 명의 관객으로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파문이 교차하는 그 어색한 기분을 즐기고 싶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색한 사람들이다.

그는 전시장에서 관객의 표정을 관찰하면 나무 소재를 대하는 불안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상작가로 지내온 젊은 시절 자신도 나무에 대한 시각이 그랬노라고 고백했다. 요사이 나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양한 경로로 전달된다. 관객의 불안한 시선은 나무라는 소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래서 김 작가는 나무작업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희귀하고 불안한 물성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녔고, 문양도 제각각이다. 따지고 보면 근래 작업 중인 우산 패턴도 나무를 보여주면서 인위적인 정감을 그려내고자 노력한 흔적들이다. 우산은 물결 파문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쉽다. 나무를 통해 본 우산은 소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할 힘을 가졌다.

“비 내리는 오후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층 교실에서 내려다 본 적이 있어요. 우산의 모양만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 든 친구의 모습이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가는 우산 속에서 가려진 얼굴을 상상하며 패턴을 새겼다. 횡과 종이 어긋나면서도 묘한 질서를 이루는 이 대열 속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얼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집성목의 연속적인 패턴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걸음이기도, 첫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리움의 대상이기도한 우산 속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벌써부터 김기로 작가가 그립다. ④



조각가 나점수의 식물(識物)적 사유

의식이 무너지는 어떤 순간

글 유재형 팀장 | 해설 나점수 | 인물사진 육소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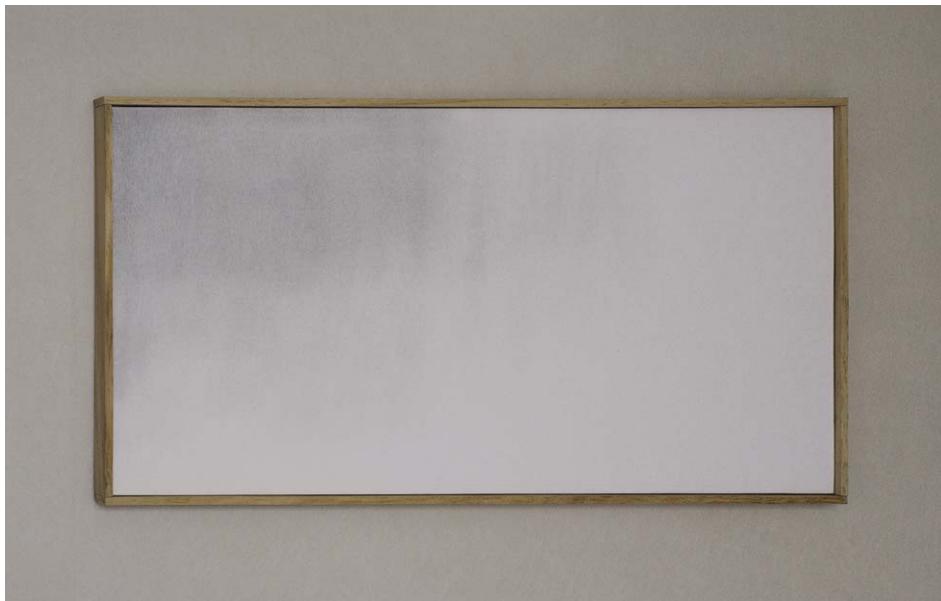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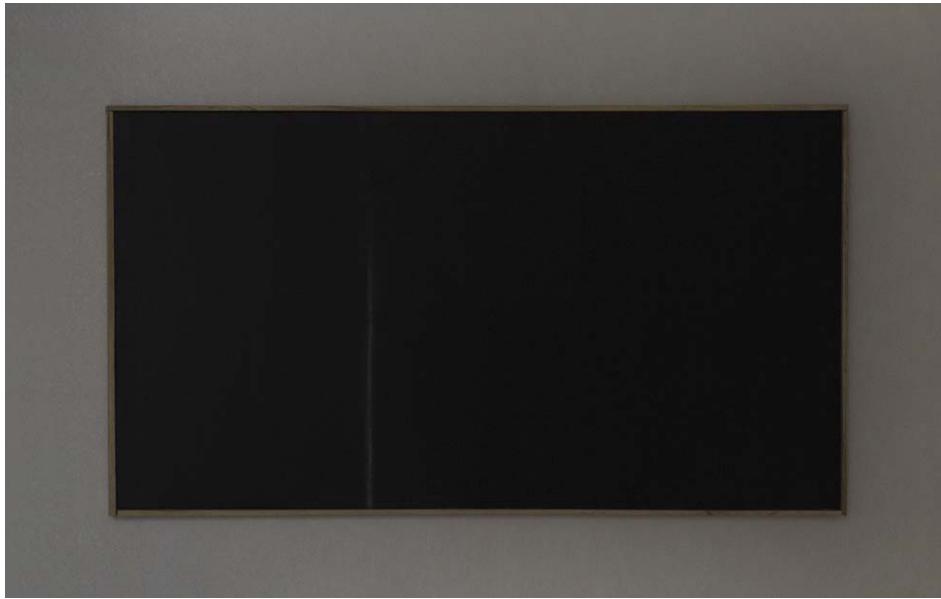
나점수 조각은 곧 시(詩)다. 식물적 사유에서 길어온 정제된 언어다. 길이 길에 서 만나 다시 길을 만드는 생각의 이름이다.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생각의 길이 열린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사동 ‘갤러리3’에서 만난 작가는 우주의 한 공간을 빌어 생각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듯 보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무의 수축과 팽창만큼 거대한 울음을 따르는 이 사물들을 보편적 진리라 볼 수 없다. 식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관계 맺지 않는다. 간극이 있을 뿐. 간극이 주는 아득한 깊이 속으로 사유라는 것이 부유할 뿐.

그래서 나점수의 작품은 곧 화두다. 나무를 매개로 ‘여행’하고 ‘순례’하며 ‘시대’를 만난다. 마치 카르마에 들고자 수속 밟는 지구인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나무가 전 우주를 상대로 벌이는 투쟁을 만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조각가 나점수는 지난 10여 회의 개인전을 통해 만물의 근원과 관계를 정립하는 구도의 예술가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 역시 나무라는 물성을 매개로 중의어로서 식물(植物)의 의미와 어떤 식(識)의 상태로서 식물(識物)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위와 흔적의 진폭을 지지하게 하는 어떤 세계를 응시하는 일이 곧 나점수 작업의 시작이다. 작가는 말한다. “한 세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이다.” 시중(時中)이라는 말과 은자(隱者)라는 말을 떠올리며 작가는 나무와 마주한 때를 주체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 순례

한때 순례자로서의 시간을 그리워하던 때가 있었다. 순례는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놓여지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른다. 씨방의 씨앗이 허공을 향할 때 그들에게는 떠남이 목적이 아닌 어떤 장소에 불들리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작가에게 어떤 장소란 정신일 것이다. ‘남는 것은 정신뿐이다’ 라는 밀처럼 나의 세계는 정신이어야 한다. 형태란 세상 모든 것에 있고 의미는 근저의 시선으로부터 발아(發芽)한다. 저 사소하게 보이는 들풀과 작은 소리들 그것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이 한때 숲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생의 연(緣) 만으로 흔들리는 저 시선의 깊이를 가늠하기에는 내 의식과 나의 손은 나약하다.





● 시선

얼마 전 나는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나뭇잎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의식 어딘가에 각인되는 듯했다. 붙잡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의 탈각되는 자유와 뿌리로 향하는 자기분해의 과정에 동참하는 ‘잎’이 주는 가볍지 않은 충격… ‘잎은 뿌리로 간다’라는 말을 생각하며 내 시선은 작업을 향해 돌아본다.







● 풀

한 세계를 대면하기 위해 씨방을 살찌우는 풀들을 바라보게 된다. 때가 일러서인가 그들은 아직 세계를 향해 닫힌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날 그들에게는 망설임이라는 의미가 인간의 언어임을 증명하듯이 허공을 향해 열리고 만다. 그것이 그들이 붙잡고 있던 빈 씨방을 넘긴 의미일지… 바람 지난 자리에 풀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흔들린다.

● 숲

흔들리는 나무를 부동켜안고서 나 또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다. 땅으로부터 기둥을 세우고 시원(始原)의 시
간을 흔드는 숲의 소리가 시작된 지점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곳에서 함께 흔들릴 뿐.









● 시대

나는 몇 가지 의사에 동의한다. 순례자의 남루함을 빙곤으로 여기는 사회는 진정 빙곤하다. 예술가의 감각을 소유하는 사회는 진정 빙곤하다. 감각이 넘쳐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회는 무감각하다. 숲이 없는 도시에 정신이 있을 리 없고 광야가 없는 마음에 정신이 있을 리 없다. 상처를 밟고 서는 사회에 인간의 정신이 설 자리는 좁다. 예술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이 사회의 토양에 자라난 잡초여야 한다. 예술은 한 경계를 열고서 한 세계를 품는다. 품어 안고서 화(和)를 이룬다.



데렉 와이드먼 너와 나의 연결고리

글 서주원 기자 | 사진 제공 Derek Weidman



인간이 창조한 산업문명은 자연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고 어떤 피해를 입혔을까. 데렉 와이드먼의 고민은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에서 출발한다. 데렉 와이드먼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회복과 조화를 보여주는 시각 언어다. 자연이라는 본질과 인공의 기계문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그의 조각에 깃들어 있다.

데렉 와이드먼은 조각가다. 나무를 깎고 색을 입혀 작품을 완성한다. 조각의 소재는 주로 인간이나 동물이다. 그는 생명이 있는 것들의 신체 구조를 모티프로 삼아 작품을 만든다. 그런 그가 인체해부학이나 동물의 형태에 관한 이론에 관심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다. 정교한 조각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테다. 생명에 대한 조각가의 관심은 결코 형태적인 부분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생명이 가진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천문학과 우주론, 고대의 종교나 신화를 탐독하며 영감이 될 재료들을 찾는다. 조물주가 빚어낸 창조물에 대한 경외심, 야생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그의 작품 속 철학으로 재현된다.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

데렉 와이드먼의 조각은 사실주의와 추상의 경계에 서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



을 모티프로 조각을 만든다 해도, 결과물은 차라리 비현실에 더 가깝다. 그는 기준에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표현법으로 재현한다. 기준의 오브제가 예술가의 상상 속에 자리한 그 무엇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두 마리의 동물을 접합시켜 기이한 형상을 창조해 낸다거나,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불사조를 고색창연한 채색을 거쳐 완성한다. 또한 그가 만드는 시각적 결과물들은 완만한 선 대신 급한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그의 작품엔 은화하고 서정적인 정서 대신 날카롭고 역동적인 힘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다.



호랑가시나무의 화려한 진화

데렉 와이드먼은 주로 레드우드(Redwood, 미국 삼나무), 홀리(Holly, 호랑가시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흑단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든다. 그 중에서도 그는 홀리를 가장 즐겨 쓴다. 감탕나무과(Aquifoliaceae)에 속하는 홀리의 심재는 주로 백색 혹은 회백색을 띤다. 데렉 와이드먼은 나무에 색을 입혀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홀리가 제격이다. 도장 미감을 평활하게 할 수 있는 수종이 바로 이 홀리이기 때문이다. “홀리에 칠을 하면 만화책 같은 색감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컬러풀한 표현이 가능한 이 나무는 제가 작업을 하는데 가장 탁월한 재료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빚어낸 드라마틱한 나무들

데렉 와이드먼은 공작기계(lathe, 선반)를 이용해 나무를 조각한다. 손 대신 공작기계로 나무를 조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다. “내가 만일 익숙한 오른손으로 조각을 한다면 비교적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진짜와 똑같은, 정말로 사실적인 조각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왼손을 이용해 조각을 한다면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평소에 쓰지 않는 왼손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 시켜보면, 제가 기계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공작기계로 작품을 만든다면 (손으로 조각 하는 것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탄생할 거예요.”

시장과 상생하는 예술가

아티스트와 브랜드의 협업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진다. 인간의 심미적 욕구는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욕구를 읽어내는 시장은 예술가와 함께 작업해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만들어 낸다. 데렉 와이드먼 역시 의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작품 그대로를 의상 디자인에 활용한 비교적 대중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기본적인 형태와 요란하지 않은 색을 지닌 의류는 그의 작품 프린트를 더욱 돋보이게끔 만든다. 예술을 일상의 영역에 가져다 놓으려는 시도는 어떤 면에선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장소나 사이트를 통해 저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공간적 거리감을 줄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술을 더욱 가깝게 마주할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말이다. Ⓜ

데렉 와이드먼(Derek Weidman) | 1982년생이며 10년이 넘게 조각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BCCC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펜실베니아에 거주 중이다. 그의 작품은 AAW Annual Member Exhibition 등에 소개된 바 있다. 데렉 와이드먼의 다른 작품은 그의 웹 사이트(weidmanwoodsculptur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M P E R S A N
&
D
EST. 2014

Antique & Classic Leather Goods
—LEATHER CRAFT—



우사단의 새로운 기호 &

글 정인호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천성이자 숙명이다. 위도와 경도를 넘나들듯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른다. 젊은 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는 우사단로에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두 남자의 작업실에 찾아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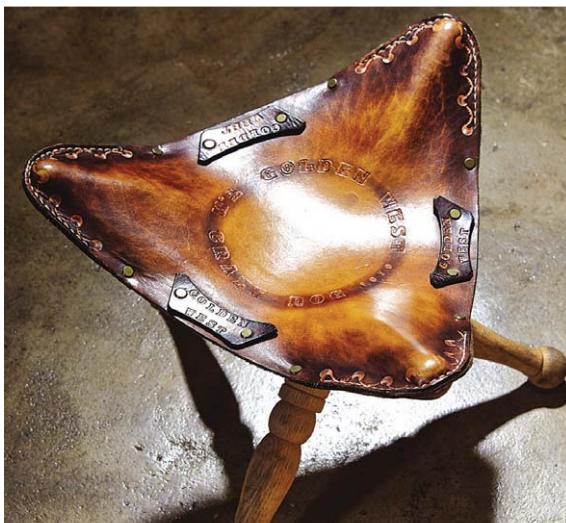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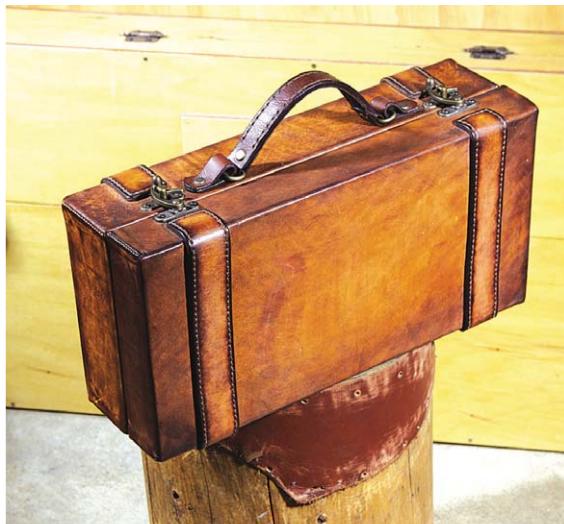


도깨비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우사단 10길. 이 곳은 이태원 중심 지역의 상권이 성장하면서 낡은 동네인 채 지냈다. 강인종 씨와 임성찬 씨는 올해 이 조용한 골목에 작업실 겸 가게를 마련했다. 낙후된 곳을 살리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역 살리기 투어를 다닐 때였다. 거기서 만난 지리학에 능한 한 친구가 선점한 장소가 바로 우사단이었다. 그들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작업실을 일구어냈다. 영상 및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다 새로운 것이 하고 싶어 가족 공예에 무작정 뛰어든 그들의 기질은 우사단에 썩 잘 어울렸다.

그들의 길은 우사단으로 통한다

지금은 계단장으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진 우사단로를 임성찬 씨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동네’라 말한다. 그는 평소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뜻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관계의 폭이 늘 한정적이었지만 이 동네에 와서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고 인사했다. 스스럼없이 도움을 주고 말을 건넸다. 그에겐 자연스레 동네친구가 생겼다.

계단장이 여러 매스컴에 등장하며 규모가 커지기 전엔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과 알고 지냈다. 이런 곳이



서울엔 잘 없지 않으나며 반색을 하고 묻는 그의 표정
엔 모종의 자긍심이 배어 있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도시 생활에 길든 젊은 청년은 이동네에 흠뻑 빠졌다. 어느새 그의 모든 네트워크는 우사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들을 위한 제품이다. 두 남자는 '탈것'을 좋아한다.
탈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방증하듯 작업실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떡하니 지키고 있다. 작업을 하다 잠시 나간 강인중 씨가 가죽부츠에 라이더 재킷을 걸치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우사단길로 돌아왔다.



오토바이와 가죽을 사랑하는 섬세한 마초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게 전면에 진열되어 있지만 두 남자는 원래 거친 제품들을 좋아한다. 그들이 가장 애착을 갖고 만드는 것은 할리데이비슨 백이다. 라이

작업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으로 두 남자의 일과는 점철된다. 대화조차 불필요해 보이는 그들의 작업실을 주변 사람들은 '공장' 같다고 말한다. 간간이 친구들이 놀러와 수다를 떨고 있지만 어느샌가 그들





은 또 투닥투닥 작업에 집중한다. 그들은 오로지 소가 죽만 취급한다. 크롬 가죽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가죽의 물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직접 가공하고 염색하는 가죽이기에 직접 신설동의 가죽 시장에 가서 보고 만지는 수고로움을 거쳐 가죽을 사온다.

그들이 이렇게 가죽의 물성에 집착하는 것은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가죽 공예는 기질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작업실에서 운영하는 가죽 공예수업도 좋아하는 사람은 꾸준히 좋아했지만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했다고 한다. 섬세한 작업 같지만 의외로 거칠고 투박한 면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임성찬 씨는 이 모든 기질을 집약하면 오타쿠가 된다며 웃으면서 말한다. 스스로를 오타쿠라 칭하며 가죽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두 남자의 작업공간이 재미지다.

그리고 앰퍼샌드

작업실 곳곳에선 나무에 가죽을 덧댄 작업물들이 보

인다. 나무로 틀을 짜서 가죽을 씌운 가방도 눈에 띠었다. 원래는 사시미 가방이었던 것을 와인 가방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은 실용성보다는 미적인 느낌을 추구한다. 시장을 돌아다니다 눈에 띄면 무작정 사온 나무들도 많다고 한다. 나무와 가죽의 결합은 오로지 그들의 감성에 기인한다. 각각의 소재가 가진 물성에 집중해서 감성을 포착한다. 나무나 가죽, 그 외에 어떤 소재라도 그 본연의 성질이 살아 있는 것이 사람들의 감성에도 가장 친숙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작업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냥 때 되면 나와서 일을 하는 곳이다.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온종일 일만 하는 그들에게 투박함이 묻어난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걸 구현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정작 본인들은 이 공간의 의미를 찾지 않지만 우사단로에 얹혀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와 작업물들이 가게 이름 앰퍼샌드를 대변해준다. 앞으로 두 남자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무수한 ‘그리고’들이 궁금하다. ☺

마스터빌더 최현기 모든 건축주는 ‘빌더’ 여야 한다

글 유재형 미디어 팀장

최현기 소장의 쓴소리는 목조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집을 가질 권리로 찾는 집, 건축주가 짓는 ‘매뉴얼하우스’는 20년 빌더인생이 완성한 최고의 건축이다.

올해로 건축인생 이십 년을 맞은 최현기 소장에게 불는 수식은 ‘마스터 빌더’이다. 스테디셀러 저자이고 대학에서 목구조 강의도 맡은 빌더. 사실 양어깨가 무겁다. 부담이다. 스무 해 넘게 지켜본 목조주택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기는커녕 성장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다양한 경로로 통해 ‘바꿔야 산다’고 주장했다. 알아듣는 쪽도 있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쪽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저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할 위치이기에 뼈아픈 직설은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기도 하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소장이 진단하는 현실.

건축주가 짓는 집

최현기는 곧 브랜드다. 목조주택을 이야기할 때 ‘최현기’란 이름 석 자는 파워메이커이다. 이십 년 동안 그의 손을 빙어 탄생한 주택들은 ‘집다운 집’의 교과서가 되었다. 최근 그는 이 모든 영광을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되돌리고자 한다. 건축주-설계-시공-자재-감리-디자인이 한 지붕 아래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집짓기 과정은 무척 고단하다. 한 이불 속에서 욕망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얹힌다. 나쁜 집은 아래서 만들어진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시공자(사)가 지은 집을 상상해 보라. 목조주택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준다. 목조주택은 짓지 말아야 할 집으로 점점 인식된다. 최현기 소장은 “안타깝게도 이게 목조주택 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프다. 아니, 부끄럽다.

해법이 없을까. 방도가 있다고 그는 단언했다. 건축주가 똑똑해지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매뉴얼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집을 만들면 된다. 이른바 ‘매뉴얼하우스’이



다. 이십 년 동안 목조주택 건축 한 길을 걷다보니 이제는 보인다고 말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시장을 여는 길 말이다.

기득권의 호도는 계속된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는 룰이 있다. 규칙은 완벽한 집으로 향하는 답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무시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피해는 온전히 건축주에게 돌아간다. 이윤을 남기려는 시공업계(자)의 횡포를 막지 않으면 목조주택은 외면 받게 된다.

“시공 파트의 자성을 주문했지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안되겠다 싶더군요. 방법은 하나죠. 건축주가 변하면 시장이 바로 서기 마련이죠.”

화가의 꿈을 접고 빌더로 거듭나다

마스터빌더 최현기도 초보인 시절이 있었다. 미대 진학을 꿈꾸던 그에게 찾아온 병마는 화실 출입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6년간 손 놓지 않았던 화구를 정리하며 그는 “내가 이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나날이 이어졌다.

“도화지를 사려고 문방구를 찾았어요. 아이 부모와 가게주인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하든 20원을 놓고 싸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TV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인 생활이 이어졌다. 그런데 외국도시를 소개하는 화면 속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저런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당시 탑차를 몰고 각지에 물건을 대는 친구가 있었다. 조수석에 올라 TV속의 집을 짓는 현장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90년대 초반 당시 만해도 목조주택을 짓는 곳은 드물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무작정 종로에 자리한 미국임산물협회 자료실을 찾아갔다. 원서로 된 책과 써름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북미 목조주택 건축이론과 규범은 이때 다져진 것들이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건축박람회에서 목조주택을 발견했다. 눈이 번쩍 뜨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난색을 보이는업체 사장에게 임금은 받지 않겠으니 일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그렇게 빌더로서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현장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무슨 대단한 기술인양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신입을 대하는 태도는 무례하고 거칠었다. “원칙과 공식이 있어도 경험이 없다고 무시당해야 되는가.” 성공 이후에도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실력은 숨기려야 감춰지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현장에 이르러 건축모형 제작은 이미 그의 뒷이었다. 미술을 공부했고, 밤새워 원서를 읽은 실력이 유감없이 드러났다. 입문 3개월 후 첫 월급을 받아들었다. 옷을 사 입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먹는 것으로 탕진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고심 끝에 목공용 절삭기계를 구입했다. 옥탑방 마당에 기계를 놓고 밤낮없이 수련했다. 서까래부터 시작한 일은 창호와 기둥, CAD를 포함한 전 분야를 섭렵하고 있었다.

순탄한 일상이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IMF를 맞았다. 일감은 현저히 떨어져 나갔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메모한 것들과 지식을 배경 삼아 원고를 써내려갔다. 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도량을 편하게 환산할 수 있는 ‘Slide Ruler’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탐욕으로부터 자립을 꿈꾸는 집

어느덧 세월이 흘러 팀을 지휘하는 소장 직에 올랐다. 여기까지 오르는 데 14년이 걸렸다. 현장에서 경험을 후학들에게 돌려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해비타트 학교에서 교육강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재능과 지식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 가르치고 전수했다.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이자 파트너인 송재승 건축가도 이 시기 만났다. 송 건축가는 빌더 최현기의 디테일한 감성을 신뢰했고, 최 소장 역시 송재승 건축가와의 협업이 주는 안정감에 매료되었다.

“시공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집을 억지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조화로운 집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일화가 있다. “낮은 구릉을 끼고 아침이면 안개가 찾아드는 마을이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지붕만 드러낸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층집이 들어섰습니다. 조화는 깨지고 말았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후부터 시공사의 의뢰가 있어도 아니다 싶으면 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틈틈이 준비한 〈목조주택 시공실무〉 저서가 출판되자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그는 후배 빌더에게 책을 써보라고 권한다. 책 한 권 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한 분야를 섭렵한 저자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타의에 의한 인정이 함부로 기술을 행하지 않는 자기단속의 효과를 가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실 최 소장은 ‘인정’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 부류가 아니다. 그래도 대학 공부는 마쳐야 한다는 권유에 이끌려 늦깎이 건축공학도 생활도 경험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울 것은 자신의 처지에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 건축과 대학교수는 술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현장경험이라곤 공병대에서 막사지어 본 것이 유일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이론과 더불어 현장경험을 중요시하는 쪽이다. 엉터리 경험이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말이다. 그는 중퇴를 결심했다.

그러나 마스터빌더 최현기에게 대학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단국대학교에서 목구조 강의를 요청한 것. “학교후배라는 생각보다는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면학열기가 일반인들에 비하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요로 해 강의실을 찾은 이들과 주어진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가 극도로 싫어하는 말이 있다. 건축주가 많이 알면 피곤하다는 말. 반대로 건축주가 알아야 제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엔에스홈 강의실에서 만난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대개는 예비 건축주들이다. 〈우드플래닛〉이 소개한 ‘주현재’ 주택도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이 뭉쳐 탄생한 집이다. 그런 그에게 건축주는 주체적 집짓기를 실행할 가장 큰 중심자이다. 준비 중인 ‘매뉴얼 하우스’는 건축주가 매뉴얼을 보고 따라 집짓는 작업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면서도 경제적이고 알찬 시공이 가능하다.



최현기 소장은 현재 단국대학교 건축과에서 매뉴얼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목구조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주가 메뉴얼로 짓짓기

혹자는 밀한다. 시공사 일감을 뺏는 일 아니냐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시장은 공멸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건축사가 짓는 집, 시공사(자)가 짓는 집, 건축주가 짓는 집 모두 목조주택 대중화로 가는 길이다. 시공과정 중 정확한 원칙을 따르는 일이 어찌 피해를 끼치는 일이겠는가. 가령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시공사 고객이 아니다. 그런 이들도 목조주택을 가지는 매뉴얼하우스는 방편으로 충분하다. “매뉴얼하우스는 제대로 짓자는 의미에 방점이 있습니다. 프로정신이 결여된 영터리 집들이 목조주택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해법은 건축주의 개입입니다. 경제적이고 완벽한 집이 알려진다면 자연스레 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매뉴얼하우스는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고 단열을 중심으로 기술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건축예산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다. 그렇다. 가난한 자, 부자인 자 모두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

집에 대한 옹고집은 최현기를 마스터빌더 반열에 올려놓았다. ‘최현기가 지은 집은 다르다’는 평가는 건축은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얻은 것이다. 화가의 꿈을 접고 빌더와 강사로 거듭난 그가 그리는 집들의 자립이 이제 시작된다. 20년 빌더인생,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20년, 이 땅의 집을 고민하며 고안한 매뉴얼하우스가 들어설 마을을 상상하자. 원칙과 규범을 해하는 탐욕과 돈을 좇는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집들을. 그리고 “건축은 베푸는 것”이라는 그 집의 사람들을. ⑩

김고은 <고은쌤의 우드버닝> 버닝으로 불태우는 시간

에디팅 서주원



무언가에 푹 빠졌을 때 우리는 ‘버닝(burning)한다’는 표현을 쓴다. 재밌어서, 좋아서 그 일에 몰입한다는 이야기다. <고은쌤의 우드버닝>을 쓴 김고은은 작가도 자신만의 버닝 포인트가 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니라 ‘우드버닝’에 버닝한다.

버닝 아트의 색다른 매력

‘버닝’은 나무를 비롯해 종이, 가죽, 박 위에다가 버닝펜(burning pen)으로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버닝펜이 지나간 자리가 만들어낸 고동색의 점과 선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버닝은 4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외국에서 전파

된 버닝이지만 어딘가 친숙한 냄새가 풍긴다. 과거의 우리에게도 나무를 태워 만든 그림이 있었다. 화로에 달군 인두로 그린 그림이라 해서 ‘인두화’라 불렸다. 지금은 관광지에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다루기 어려운 인두 대신 버닝펜을 이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버닝 아트를 즐길 수 있다.

버닝 아트를 즐기기 위한 Tip

버닝을 위해서는 우선 버닝펜이 필요하다. 버닝펜의 비용은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일반펜의 경우 10만원,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고급펜의 경우 20만원 선이다. 버닝펜이 없을 땐 전기

인두기를 대신 사용해도 된다. 버닝펜 외에 그림 도안과 먹지, 도트펜, 펜치(통노르플라이어), 드라이버(주먹드라이버), 사포, 커터칼, 마스킹테이프 등을 갖추면 버닝 아트를 위한 준비작업은 끝난다. 저자는 버닝 아트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도구부터 익숙하게 다루라고 조언한다. 버닝 펜으로 여러 종류의 나무를 태워보면서 직접 느껴보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이 충분히 손에 익었을 때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고은쌤의 우드버닝>은 버닝 아트를 최초로 소개한 책이다. 나무가 타면서 나타나는 색과 향의 느낌이 좋아 버닝 아트를 하게 되었다는 저자 김고은은 현재 (사)한국버닝문화협회의 교육본부장으로 일하며 버닝 아트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CRAFT



미쓰뭉의 따뜻한 나무

글 박신혜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한 걸음 집에 발을 내딛자마자 두껍게 쌓인 팔레트와 목재들이 손님을 맞는다. 선반에는 벼룩시장에서 잽싸게 구매한 얇게 커 난 나무들이 가득하다. 차고 넘치는 나무에 대한 사랑을 주제하지 못하고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그녀의 나무 이야기를 뒤져본다.



은행에서 일하던 스무 살 아가씨는 마감 때마다 실수를 해 사고뭉치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미쓰뭉이 된 그녀는 “나무하고 잘 맞는다.”는 점괘를 듣는 순간에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몇십 년이 지나 꾸미기 좋아하고 산천초목 놀러 다니며 사진 찍기 좋아했던 철부지 아가씨의 손에 충전드릴이 예삿일처럼 들려있을 줄이야. 세월이 흘러 섬섬옥수는 거칠어졌지만 나뭇결만 보면 훌린 듯 쓰다듬게 되는 미쓰뭉 (blog.naver.com/s2_1004)의 손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녀는 지금 방구석 공방 운영 중

한창 일할 때 집은 그저 짐 놔두는 곳, 잠만 자는 곳이었다. 그러다 문득 집을 둘러봤다. 족히 20년은 됐음 직한 낡은 단독주택. 제일 처음 한 일은 문을 칠하는 일이었다. 어두운 고동색 문이 밝은 옷을 입으니 집안이 환해졌다. 겨울이 오기 전 단열벽지를 구해 온 집 안에 붙이니 시린 윗풍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불어 그녀의 삶 역시 생기가 돌았다. 뜨개질, 퀼트, 홈패션 등 좀처럼 손을 놀리는 법이 없던 그녀가 홈쇼핑에서 덜



컥, 샌딩 기계를 주문했다. 돌이켜 보면 무슨 생각으로 주문했을까 싶기도 하다. 어쨌든 덥석 기계 하나를 집안에 들이니 숨어있던 결심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나 목공 해야겠어.”

이후부터는 속전속결이었다. 주야장천 인터넷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가구 만드는 과정 살펴보고 연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보름 내내 이중길이에 매달려 있던 때가 있었다. 이중길이를 마스터하고 나서는 삼단 레일이 궁금했고 삼단 레일을 단 이후에는 싱크 경첩을 공부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명문대를 갔을 거라는 그녀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아는 만큼 배운다

가구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래 묵은 주택을 개조해야 했다. 전기도 만져야 하고 콘센트도 새로 갈아야 한다. 싱크대에 타일 하나를 붙이려 해도 벽타일인지 바닥타일인지 자기타일인지 도기타일인지 알아야 했다. 도를 때는 발품 팔며 여기저기 물어보는 게 상책이다. 귀찮아하는 사람도 많고 어설프게 알려주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은다. 블로그는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해두는 그녀만의 비밀 노트다. 대충 넘겨보고 지나가는 이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군분투하며 작업하는 그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물론 혼자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방구석 공방을 운영하는 동안 충전드릴이며 테이블쓰는 물론, 라우터와 도미노까지. 목공 기계가 많이도 생겼다. 목공 기계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작업대가 있는 공방을 찾아갔다. 기초반 실전 수업에서는 보통 화분 받침 같은 작은 것을 만드는데 침대 협탁을 만들어야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알아서 모서리 라운딩을 시도하질 않나, 일 크게 벌이기로는 일등이라 하니 새삼 공방 선생님의 고충이 느껴진다.

땀빵의 기술

사람들이 묻는다. “나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그녀는 그런 걸 궁리해본 적이 없다. 해도 될까, 혹시 실수하거나 망



치는 건 아닐까, 고민해본 적도 없다. 일단 해놓고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되어 있다. 작업이 삐끗해도 다 방법이 있다.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어붙이면 된다. 실수는 해도 실패가 없는 이유다. 그렇게 만든 가구에는 대부분 조색한 벤자민무어 페인트를 칠한다. 원목가구가 인기인 요즘은 나무의 결이 보이도록 대부분 오일 칠을 하지만 대세라고 해서 따를 그녀가 아니다.

현재 그녀는 잠들기 전까지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베드 트레이를 만들고 있다. 디자인한 가구에 맞는 바퀴를 시중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완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 고심 끝에 미닫이문 호차를 선택했는데 바닥에 흠집이 날지도 모른다며 걱정하는 공방 선생님에게 미쓰둥이 답한다. “흠집이 나면 어때요. 흠집 나서 더러워지면 제가 다시 바닥을 깔면 되죠.” 안 되는 것 없고 못 하는 것 없는 그녀의 가구가 기대된다. ☺



고미술 가게 ‘고운’

시간을 파는 상점

글 정인호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진짜’로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들만이 손님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물건을 속이지 않는다. 답십리고 미술상가에 위치한 골동품 가게 ‘고운’은 유영범 씨와 최경숙 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다. 수리 환경이 열악한 목기를 직접 보수하는 남편과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꾸리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는 소박하지만 묵직했다.



사람들은 흔히 인사동을 골동품의 본산지라고 여기지만 답십리와 장한평 사이 길게 늘어서 있는 답십리고 미술상가에 가면 그간의 생각들이 무색해진다. 이곳은 청계천과 아현동에서 정부의 환경미화정책으로 쫓겨난 사람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고미술로’를 따라 다섯 개의 건물들 속에 꼭꼭 숨어있는 가게들은 인사동의 활기찬 거리와 사뭇 대조적이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없고 창밖을 향해 얼굴을 내민 가게도 없다. 인사동의 시간이 유유히 흘러가는 동안 답십리의 시간은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표상이 된 물건들

우리의 전통가구는 어느 곳에나 어울린다. 세련된 서양식 건축구조에서도 정갈한 품격이 드러나고 소박한

자리 한편에서도 아담한 매력이 엿보인다. 전통가구만 있으면 인테리어가 만사형통일 것 같다. 가구뿐만이 아니다. 앤틱 소품들은 조합하고 윤색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멋이다. 고미술상가의 ‘고운’은 이러한 소품들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유교적 덕망에 만 걸맞게 꾸려졌을 것 같았던 그 옛날의 집들에서 보물 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요즘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부터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조상의 지혜가 느껴지고 그들의 세월이 엿보인다.

통일 신라 말부터 조선 초까지 씨앗을 보관한 토기. 더운 여름에 몸을 시원하게 해준 팔 토시. 디테일한 쓰임새엔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정교하게 짜인 담배합, 오동나무로 제작된 귀여운 망간





통, 사랑방에 늘 쌓아두었던 목침. 남자들의 소비패턴이 한정적인 요즘과는 달리 다양한 꾸밈새를 갖춰 놓았다. 이 모든 물건들은 사랑방이라는 공간의 표상이 된다.

그들의 일상을 유추해보며 만나는 삶의 내경은 흥미롭기 그지없다. 골동품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곳에 온다면 인위적이지 않은 옛것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직관은 시간의 흔적을 놓치지 않는다.

사물과 사람의 온기로 따뜻한 가게

그들이 답십리에 가게를 마련한 때는 6년 전이지만 골동품에 대한 유영범 씨의 애정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가구박물관에 근무하며 보수 작업을 하던 그는 앤틱 가구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본인이 모은 가구와 소품들이 너무 많아지니 이것을 잘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장

사에 재주가 없었던 그는 아내에게 가게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최경숙 씨는 선뜻 의지를 표현했다. 골동품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가득한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만 가게를 구성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가게가 되었다. 최경숙 씨는 스스로 골동품에 대한 가치를 알지 않으면 재밌게 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발견한 앤틱의 가치를 알아주는 손님이 있으면 일하는 재미는 배가된다.

“저희 단골손님 중 외국을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출장비를 모아 종류별로 고가구를 모으죠. 처음 그분에게 판 것은 반닫이였어요. 그의 지인 중 연구소에서 감정을 하는 분이 있어서 연대측정을 부탁했대요. 솔직하게 장사하는 저희 면모를 확인한 후 쓰임새 별로 가구를 다 사간 것이죠.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손님이지만 목가구만은 꼭 저희 가게를 고집해요. 지금은 외국에 있지만 일 년에 한두 번씩 국내에 오면 가게에 꼭 들려요.” 단골과의 두터운 신뢰





관계에 대한 최경숙 씨의 이야기보따리는 끊임없다. 한 젊은 연인은 낙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앤틱 가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한다. 몇 번을 가게에 들러 구경을 했던 부부는 아이의 것만이라도 좋은 것을 사고 싶다며 아주 신중하게 고가구를 구입해 갔다. 최경숙 씨는 애틋한 마음에 서비스로 한지를 발라 드렸다고 한다. 사뭇 건조해 보이는 고미술상가의 가게이지만 그들의 정서적 교류는 마음 언저리에 시간의 흔적을 남긴다.

골동품과 친해지기

골동품의 매력을 알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 시내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답십리고미술상가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골동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 보통 사람들은 으레 비싸고 사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국 사람들은 물건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유영범 씨는 골동품이 처음 짜졌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고 여기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부딪혀서 떨어지고 틀어지는 과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완

벽하게 구현해놓고 얘기 안 하는 상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골동품을 구입할 때는 물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것조차 인정하지 못하면서 골동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만 백 프로를 찾으면 찾을수록 가짜에 현혹될 확률이 높아요.” 이곳엔 지역별로 특색이 다른 반닫이들, 모양새가 재미진 사령방 가구들 등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법한 놀라운 것들이 많다. 최경숙 씨는 이 모든 골동품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써야 하는 물건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사용하다 닳아진 모든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에 이야기를 담는다. 골동품은 창작이 아닌 전승이다. 그래서 사고방식 또한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조금은 폐쇄적인, 몇 겁의 시간이 쌓여있을 것만 같은 고미술상가에 젊은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들을 기대해본다. 차 한 잔과 함께 우리 것의 멋과 맛을 느끼다 보면 골동품에 대한 감식안이 생길 것이다. ☺

● 고운(古雲)

위치 : 동대문구 답십리2동 우성빌딩 139호
문의 : 02-6408-9479 | yyb4028@hanmail.net



JOHN
NEELMAN

HANDFORGED IN ENGLAND

SD

John Neeman Tools 손으로 쓸 것을 손으로 만드는

글 정인호 기자 | 자료 제공 John Neeman To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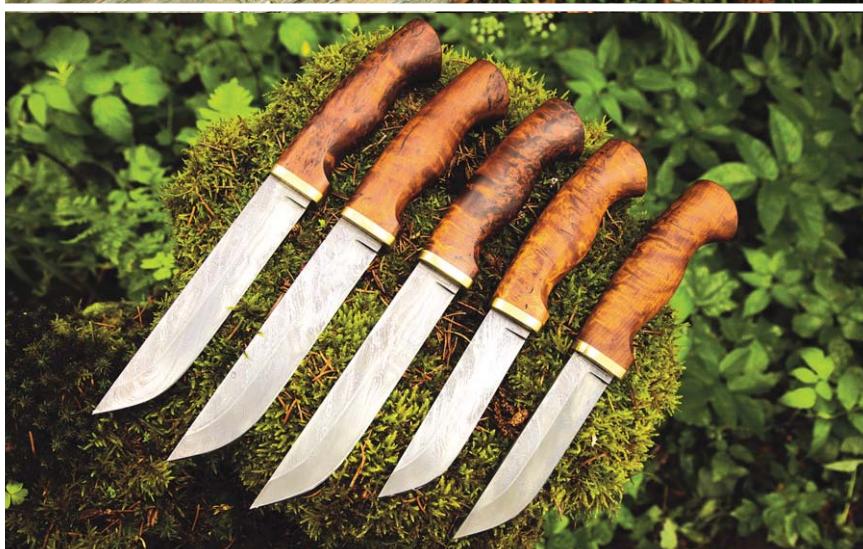
발트 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라트비아’ 엔 나무와 철, 가죽으로 각종 연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물건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 작은 마을에서 서서히 모인 친구들이 만든 브랜드 ‘John Neeman Tools’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누군가 왜 물질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있느냐고 묻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대답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없앤 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입니다. 기계에 대한 열풍, 유행이 지속된다면 우린 신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들을 포기한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존 니먼에선 간디의 말과 같은 정신에 입각해 장인들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고자 한다.

목수와 대장장이, 공예가가 만나다

존 니먼은 전통 목공예를 사랑하는 목수 제이콥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친구들 역시 그 지역의 대장장이들로 도구와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었다. 제이콥은 그의 목조주택을 만들기 위해 마을의 칼 대장장이 크리스에게 칼과 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크리스가 만들어준 칼과 끌에 제이콥이 만든 손잡이가 더해졌다. 그



들은 자신들의 작업 결과물을 보고 ‘손으로 만든 수공구’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제이콥과 크리스는 대장장이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대장장이 업을 갓 시작한 제니스라는 친구는 제이콥에게 끌 손잡이가 부러지지 않도록 강철링을 만들어줬다. 동네와 인근 마을을 전전하며 그들은 존 니먼의 멤버를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모인 멤버 7명은 크루를 결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목수와 칼 대장장이, 가죽 공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수공구를 만들어갔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든 그들의 작업 과정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우뚝 솟은 공장이나 연기를 내뿜는 굴뚝과는 거리가 먼, 그들이 만든 작은 대장간에서 전통적인 방법과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작업과정을 보고 있으면 신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시된 동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공명이 느껴지는 도구

존 니먼의 브랜드 모토는 그들이 사용할 물건들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심혈을 기울여 손으로 제작한 물건의 이면엔 이야기가 담겨 살아있는 도구로 생산된다. 그들이 만든 도구들은 각각의 장인이 주는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아 각각의 에너지와 개성이 담긴 채 탄생한다. 존 니먼에서는 양보다는 질에, 그 질에서 느껴지는 독특함을 추구한다. 오로지 인간의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만이 사람들에 의해 소모되는 과정에서 ‘기억’ 될 수 있다.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존 니먼의 크루들이 그랬듯 무언가를 만드는 소소한 시작이 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트비아의 대장장이들은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수공업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물건을 만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제품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간과한다. 그것에는 물건에 담긴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이야기도 담겨 있다. 존 니먼 툴스의 제작 동영상에는 그들이 공들여 만드는 공구의 스토리텔링이 유려하게 펼쳐진다.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장인들의 수공품들을 값진 유산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전승하고자 하는 라트비아의 존 니먼 툴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방향을 그들의 제품으로 말함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

나무와 뉴질랜드 사랑방 손님이 만드는 가구

글 정인호 기자 | 사진 스튜디오꼬레

흔히들 입에 달고 다니는 ‘친환경’이 진부하다면, 친환경을 빗댄 고가의 가구에 시들해졌다면, 공방 ‘나무와 뉴질랜드’를 찾아가 보자. 거칠고 투박하지만 솔직함이 담긴 그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목공구들이 말없이 주인을 기다린다. 누군가의 완성된, 혹은 미완의 작품들이 수북하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을 조망하며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나무와 뉴질랜드의 마스코트 고양이 ‘나무’가 있다. 적묘한 풍경과 활기찬 모습이 혼재된 공방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간다.

생활가구의 매력에 대하여

동양화를 전공했던 윤현중(45) 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것보다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림을 그릴 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지만 무언가를 만들 땐 그 누구보다 능동적인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목공 작업을 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좋았다. 가시적이고 입체적인 결과물에 가슴이 뛰었다. 목공 경력은 이제 5년 차 이지만 그가 나무의 곁에서 지난 시간은 그리 짧지 않다. 그는 대학시절, 학생들의 작품 표구도 직접 나무로 만들어줬다. 군대에선 집도 지었다는 그는 이제 생활 가구를 만들고 목조주택을 설계한다. 단순히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는 목공은 이제 그에게 생활로 다가오지만, 여전히 즐거운 작업이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 역시 어느 공방들처럼 원목,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는 친환경적인



장마
소통
100% 자연재료
사랑의



매력 너머 일상 속 생활가구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그는 서민층의 사람들에게 원목 가구를 많이 보급하고자 한다. 가격대도 MDF 가구의 것과 거의 흡사하다. 주로 쓰는 수종은 삼나무와 소나무 계열. 원목 가구를 고집하는 다른 브랜드들의 수종에 비해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지만, 결코 나쁜 목재는 아니다. 그 역시 고급스러운 가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로지 가격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다.



유일무이한 나만의 가구를 원한다면

획일적인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그에겐 북유럽 가구의 거장들도 룰모델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일부러 다른 디자인을 보지 않는다. 한 번 보면 까먹지 않고 종국엔 꼭 써 먹게 되는 습성을 애당초 피하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손님의 필요에 따라서만 가구를 만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의 의견을 듣고 디자인한다. 머릿속에만 원하는 가구가 있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참 많다. 그런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를 한다. 디자인은 조금씩만 가미한다. 그마저도 손님이 원하면 고친다. 결국 디자인은 손님이 다 하는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이곳의 가구들은 같은 디자인이 단 하나도 없다. 포크아트나 쉐비로즈도 원하면 해드린다. 손님이 디자이너가 되고 본인은 대행을 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는 그를 보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알 것도 같다. 함께 생각한 디자인이 제품으로 구현되었는데 과연 누가 싫어할까.





기성품 4인용 식탁 같은 경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평균 신장, 체형이 바뀌어도 사이즈가 그대로다. 그의 디자인은 그런 제품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가 제작하는 유일한 획일적인 제품은 일 년에 한 번씩 성당에서 주문하는 십자가 300개다. 그걸 만들 때가 가장 지루하다고,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진다. 이런 그의 고집스러운 면이 고객만족도에 기여하는 것 같다. 납기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꼭 맞춘다는 그의 바람은 본인이 만든 가구를 많은 사람들이 두루 쓰는 것이다. 좋은 수종으로 만든 비싼 가구는 그와 그의 손님들에겐 그다지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자신만이 가진 단 하나의 가구가 있을 테니까.

나무의 곁에서 수다를 떨고 싶다면

반복적인 작업이 싫어 인터넷 판매도 안 한다는 그의 공방 주 고객과 수강생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다. 지나가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끌려 들어오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다. 말만 하면 바로바로 스케치를 해주는 편안한 맛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계속 온다. 나중엔 지나가다 커피 마시러 들르고 주전부리를 사 들고 놀러 온다. 친해지면 서비스도 많이 해준다. 자연스럽게 공방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 동네 사랑방처럼 조성되었다. 엔지니어 김창원(43)씨는 장롱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에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목공 경력 1년

차인 그는 나무와 뉴질랜드에서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공방에 나온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차경수(57)씨는 내공을 쌓아 가족들과 함께 지낼 목조주택을 짓고자 한다. 수강생들은 첫 달을 제외하곤 수업료도 내지 않는다. 재료비만 별도로 낸다. 나무와 뉴질랜드는 공간을 제공해줄 뿐이다.

완성된 가구를 납품한 후 손님 만족도가 높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는 윤현중 대표는 앞으로도 서민들이 많이 쓰는 가구를 만들 거라고 말한다. 반품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사항. 가구를 반품시키는 손님은 거의 없지만 윤현중 씨는 클레임이 들어오면 수정을 하기보단 다시 만들어준다. 손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다 뜯어고친다. 제작을 다시 해준다. 가구도 인테리어도. 그림 그리던 시절에도 작품이 완성됐을 때 만족도가 없으면 무조건 찢었다고 한다. 그의 용골찬 고집이 참 새롭고 산뜻하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쓴 가격에 원하는 가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실속 있는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무가 있는 이 정다운 공방이 포실한 사랑방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

◆ 나무와 뉴질랜드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55-24
문의 : 031-841-9669

이승룡

취미가 생겼어요



을해로 61세인 직장인 이승룡 씨는 평소 취미가 없는 게 항상 안타까웠다. 그 흔한 독서나 악기 연주도 그의 취미는 아니었다. 등산이나 골프보단 생산적인 취미를 찾고자 했던 그는 2009년 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었을 때 목공을 시작했다. 많은 남자의 로망이라는 목수를 꿈꾸며 뜻뜻한 마음으로 공방을 찾았다. 첫 달 수업료를 내고 습작품을 완성한 후 본인이 원하는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공방에서 나무와 친숙해진 시간은 어느새 5년째다. 취미로 당당히 자리 잡은 목공으로 그는 큰딸의 혼수도 장만해주고 외손녀의 장난감도 마련해준다.

그는 지난봄 나고야의 도큐핸즈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크고 작은 서랍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남은 몇 장의 나무로 작은 조각보 박스를 만들었다. 5mm 두께의 원목들은 규격이 가로 50, 세로 200이라 23mm 정방형으로 잘게 잘라 서른 두 조각을 집성해 뚜껑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스크롤쏘 과정에서 공방장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 모든 조각을 직각으로 자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46mm 정방형으로 자른 여덟 조각을 집성해 서 뚜껑을 만들었다. 한 치의 틈도 없이 여덟 조각이 서로 잘 붙었다. 공방의 어느 회원이 용도가 무어냐고 묻는다. 이승룡 씨는 누군가 돈을 넣으면 돈 통이 될 것이고 연필을 넣으면 필통이 될 것이라 답한다. 여동생에게 선물한 이 조각보 박스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궁금하다.

이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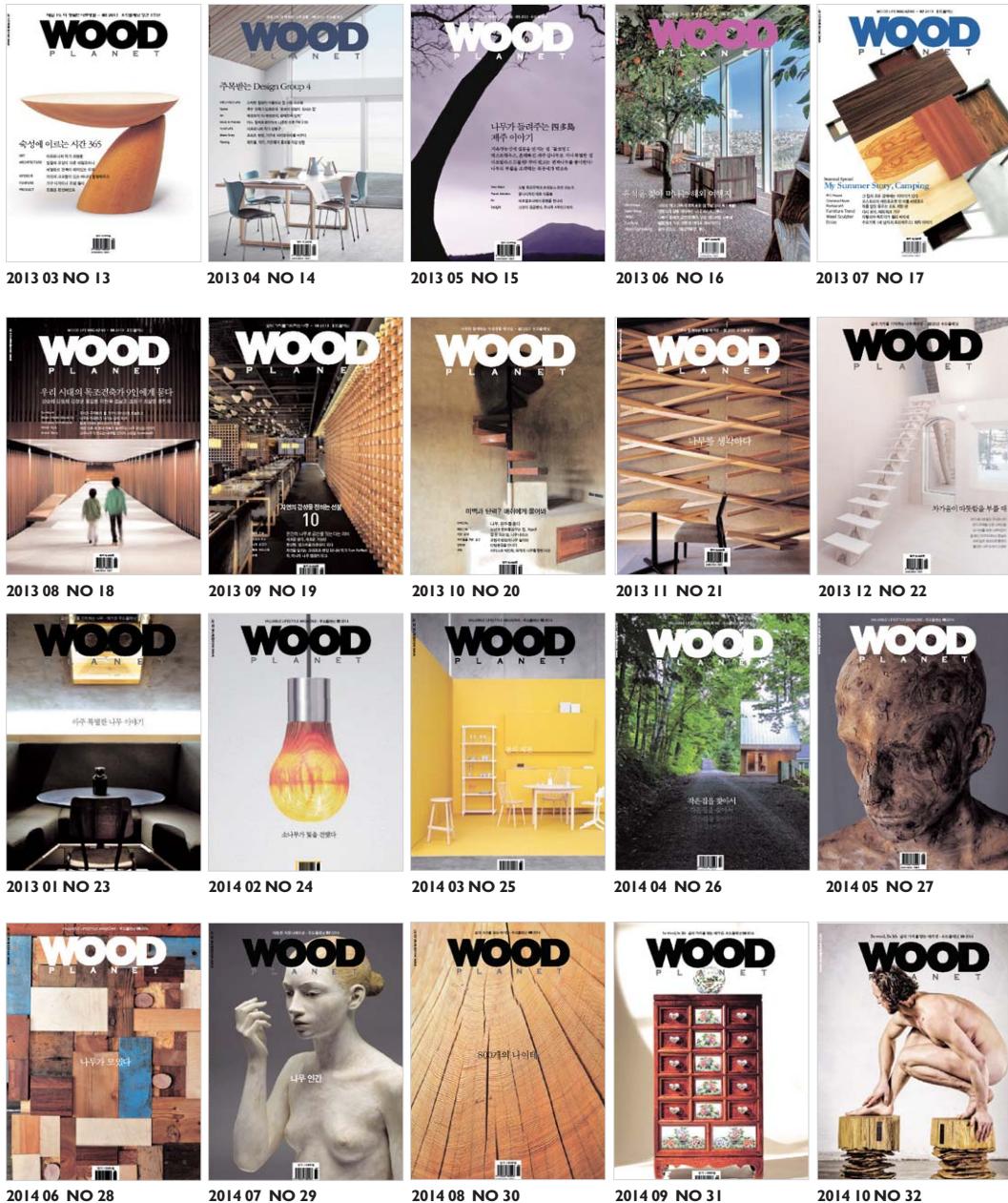
꼭두각시 춤을 추어요



55세 채인수 씨는 출판인쇄업에 종사하며 교회 주일학교에 다닌다. 교회 행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인형극을 보며 마리오네트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 그가 목공을 시작하게 된 이유.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는 성격이 아니라 마리오네트를 만들다가도 처박아두고 무료하면 다시 시작하며 작업한 경력이 벌써 15년이다. 성격이 급한 그에게 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한 얼굴 조각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손도 많이 다치고 완성 품의 관절이 작동되질 않아 실망하는 힘든 시기도 있었다. 기본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목공학원과 조형학원에 다녔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찾긴 힘들었다. 각종 외국 매체를 통해 독학하고자 했지만 한 게가 있었다. 하지만 한 번 빠진 목공의 재미는 그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 그는 결국 마리오네트의 본고장

체코까지 갔다. 그곳에서 구입한 마리오네트 인형을 연구해보니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의 마리오네트는 조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디카로 대부분 제작되지만 얼굴 부분은 다른 재료로도 만들어진다. 목공기계는 정육점에서 쓰는 무시무시한 골절기와 스크루쏘, 샌딩기 등을 사용한다. 골절기의 소음 때문에 작업실 사방에 계란판으로 방음장치도 설치했다. 비록 지금은 취미에 불과하지만 은퇴 후엔 마리오네트와 함께 선교, 봉사, 공연 등 무궁무진한 일들을 하고자 한다. 그에게 마리오네트는 만들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기에 더욱 매력적인 존재다. 그는 오늘도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마리오네트와 춤을 추며 묵은 스트레스를 푼다. ♪



정기 구독 안내

전화 02-722-4311
 이메일 woodplanet@naver.com
 홈페이지 www.woodplanet.co.kr
 구독료 1년 120,000원(각권 12,000원)

정기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주)라이프폼
 신한은행: 100-027-882189
 우리은행: 1005-801-984789
 국민은행: 598601-04-045440
 알라딘, 편샵, 바이핸즈에서도 정기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월호 구매 및 대량 구매는 별도로 연락주세요. t 02-722-4311